

한국 초기 아마추어무선의 역사

일제시대 - 1973년

KE6AJ/ex-HM1AJ 조 동 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이 창립되든 1955년초 부터, 내가 연맹 편집을 맡기 시작한 1958년초 까지의 초기 3년은, 정혜선/강기동 두 OMs 가 연맹을 이끌어 나갔고, 나는 적극적인 보조자의 하나로 두 OMs 를 도와 나갔으나, 1958년 4월에는 정 OM 으로 부터 KARL 지 편집을 인수 받았고, 다음 해인 1959년 초 부터는 총무직책까지도 인수하여, 우리가 미국으로 이주하든 1973년 까지의 15년 동안은, 수시로 여러 OM 들의 도움을 받으며, 내가 거이 혼자서 모든 연맹 일을 도맡아 해왔기 때문에, 나밖에는 그 15년간의 연맹 일을 아는 사람이 있을수가 없기에, 여기 그 기간의 “한국아마추어무선” 에 대한 역사를 종합해 보았다.

그때 당시에는 연맹 일이 바쁘고, 먼 앞날 까지 내다 볼 능력도 없어, 연맹의 역사를 쓸 생각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나, 근래에 와서 나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는 15년간의 역사를 정리 해 놓아야겠다는 책임감을 실감하게 되었고, 우연히도 1959년에 한국에 있으면서 1954년 부터 1959년 까지의 연맹으로서는 가장 중요 했던 시기의 일들을 “KARL 역사 : 1954년 부터 1959년 까지” 라는 제목으로 KARL 지에 연재한것이 있어, 그때의 기록이 되었고, 다시 2001년에 “AJ 의 KARL 이야기” 를 써 놓은것이 있어, 내 머리에서 기억이 더 사라지기 전의 기록으로 활용할수 있어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다행히 그간 역사적 기록은 남기지 못했지만, 모든 문서나 KARL 지의 보관만은 잘해서, “KARL 창립 60주년 기념 특별호 KARL 지” 에 일제시대와 내가 아마추어 무선을 시작하든 1954년 이전의 얘기에 이어, KARL 60년 간의 역사적 기록을 잘 정리하여 놓는것에 크게 공헌이 되었을것으로 믿고, 1985년의 “KARL 30주년 기념호 KARL 지” 에도 30년간의 기록이 잘 정리되어 있는것이 있어, 이 네개의 자료를 종합 함으로서 1973년 이전의 역사는 그런대로 여기에 제대로 기록할수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은 어느 정도 이것으로 다했다고 할수 있겠다. 여기에 정리한 “한국 초기의 아마추어무선 역사” 는 다음의 네개의 기록을 종합한 것으로, KARL 회원 여러분이 KARL 의 지나온 역사를 이해하는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두개의 내 글은 이 website 에 들어가 있어 www.thechofamily.com 에서 읽을수 있음.)

KARL 지의 1959년 10월호 - 12월호에 연재되었고, KARL 지 2005년 4월호에 다시 게재된 HM1AJ 의 “KARL 역사 : 1954년부터 1959년까지”

KARL 지의 2001년 7월호 - 2002년 3월호에 연재되었든 1954년부터 1973년까지의 기록인 HM1AJ 의 “AJ 의 KARL 이야기”

KARL 창립 60주년 기념 특별호 KARL 지

KARL 창립 30주년 기념호 KARL 지

지난 60년 KARL 역사중 1/4인 15년간을 연맹 일에 봉사.
 나보다 더 장기간 그리고 더 많이 연맹 일에 봉사한 회원이 있을까요?

한국아마추어무선의 역사



일제강점기 (日帝强占期 1937 ~ 1945년)



QST 1947, Jan p48, J8 AREA map



J8CK 이인영님 1945

I AM HAPPY TO CONFIRM OUR QSO

DATE			TWO WAY QSO
DAY	MONTH	YEAR	
29	1	79	Ⓢ SSB FM

GMT JST	MHZ BAND	UR SIGNAL			
		R	S	T	
0020	21	5	5	9	

TX. YAESU FL2000B 1 KW INPUT
 RX. YAESU FR DX 400
 ANT. 3 ELE YAGI UP 12M

OP. JASCP MASAKI TAKIGAWA (FATHER)
 (EX-19CH 1937~1941)
 : JA5CPJ NAOMASA TAKIGAWA (SON)
 QTH A631 SAKATE, UCHINOMI, SHODO,
 KAGAWA, 761-4, JAPAN

MANY TKS FER VY KIND QSO.
 HOPE TO CUAGN. VY 73 ES FB DX.

PSE QSL TRXER JASCP JA5CPJ

(65 years old)

TO RADIO

WB2UQY

尹敏相様
 1945년 1월 29일 QSO는 2시간 정도
 70A 4566-1 본국의 49573-2
 21.5MHz 100W 송신기 사용
 1937-1941년 간, Seoul Korea -
 J8CK와 21.5MHz QSO를 하였음. 당시의
 J8CK 송신기 21.5MHz, J8CK
 수신기 21.5MHz QSO 21.5MHz
 Seoul에서. 1945년 1월 29일 21.5MHz
 21.5MHz 송신기 100W 사용
 21.5MHz 수신기 21.5MHz
 21.5MHz 사용

滝川正己 大.

JA5CP QSL CARD to WB2UQY



한국 아마추어무선의 역사는 일제 강점기 까지 포함할 경우 1937 년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나라 고유의 Prefix 는 없었고, 일본을 나타내는 “J”의 Prefix 로 우리나라를 조선으로 Area 8 로 분류 (QST 1947 Jan. P48) 하고 있었고, J8AA - J8CN 까지 15 국의 실험무선국이 허가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대부분 일본인이었고, 그중 한국인은 J8CE 손원록 (孫元錄), J8CG 한진동 (韓振東), J8CK 이인영 (李仁榮) 등 3 명이었다고 기록 되어 있다.

당시의 조선중앙방송국 (JODK, 현 HLKA 의 전신) 기사로 근무 하던 이인영이 조선총독부로부터 실험무선국 J8CK 의 호출부호로 허가 받았고, 1938 년 6 월 16 일 부산에서 한진동님이 J8CG 의 호출부호로 첫 전파를 발사 하였다. [1938 년 6 월 16 일! 이날 만든 영원히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을것 같습니다.] 라고 1956 년 KARL 지 1 월호에 한진동 (당시 외무부 정보국 통신실장)의 나의 회고담에 적고 있다.

이인영은 연맹이 설립되고 특별회원으로 1966 년 부터 1977 년 까지 감사를 역임 하셨으며, 자제분이신 이기창 (ex-HM1DQ)도 1969 년 1970 년에 연맹 이사를 지나셨다. 한진동은 초대, 2 대 부이사장을 역임 하셨는데, 한진동의 J8CG QSL Card 는 JARL (일본아마추어무선연맹) 에 보관 되고 있으며, 위의 사진은 그 카드를 촬영한 것이다. J8CE 손원록의 기록이 특별히 없으나 한국에서 J8CH Call 로 무선국을 운용 하였든 JA5CP 께서 WB2UQY(KE2X 윤은상 OM 께 보낸 QSL Card 에는 “윤은상님 . 친절한 교신과 훌륭한 카드 참으로 고맙습니다. 깊이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1937 에서 1941 까지 Seoul, Korea 에서 J8CH 라는 Call 로 QRV 했었습니다. 당시 J8CE 손원록씨, J8CK 이인영씨, J8CG 한진동씨 등 Eye-ball QSO 를 한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다끼가와 마사끼” 라고 전하고 있다.

● J8 (朝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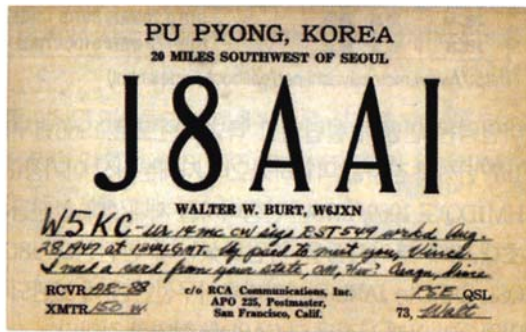
呼出符号	免許人	次の呼出符号	備 考
J8AA			朝鮮通信局 無線実験室 QRA-S15.12
J8CA	松永 茂俊	JS1LPK	S10.5.29朝鮮# 331, S11.4.20朝鮮# 265(6.4掲載)(移設)
J8CB	山中 勇		S10.5.29朝鮮# 332, S13.5.23朝鮮# 435(7.13掲載)(移設), S15.12.16朝鮮# 1435(2.10掲載)(移設)
J8CC	田中 勇		S10.5.29朝鮮# 333
J8CD	長滝 良藏		S10.5.29朝鮮# 334
J8CE	孫 元錄		S11.4.25朝鮮# 273(6.9掲載), S12.5.31朝鮮# 363(7.20掲載)(廃止)
J8CF	高田 安太郎	JA8AHW	S11.4.25朝鮮# 272(6.9掲載), S15.4.10朝鮮# 368(6.10掲載)(移設)
J8CG	韓 振東 上原 啓幹		S12.6.19朝鮮# 406(7.27掲載), S13.1.25朝鮮# 69(3.4掲載)(GSY), S15.7.24朝鮮# 777(8.26掲載)(移設), S16.7.26朝鮮# 1119(10.23掲載)(名義 上原啓幹)
J8CH	滝川 正己	JA5CP	S12.6.19朝鮮# 404(7.26掲載「J8CF」)
J8CI	二宮 克己	JA6JY	S13.1.20朝鮮# 23(2.17掲載), S14.12.11朝鮮# 1016(1.16掲載)(GSY)
J8CJ	竹井 衍		S14.2.2朝鮮# 74(2.18掲載)
J8CK	李 仁榮		S14.2.2朝鮮# 75(2.18掲載), S15.1.18朝鮮# 24(2.12掲載)(移設)
J8CL	大西 千秋	JH1NEF	S14.3.2朝鮮# 167(3.23掲載), S15.1.31朝鮮# 69(2.23掲載)(移設), S15.11.27朝鮮# 1296(1.23掲載)(廃止)
J8CM	対馬 勝弥		S16.6.20朝鮮# 897(8.18掲載)
J8CN	衣笠 舜三		S15.7.31朝鮮# 810(9.7掲載)

(<http://www.motobayashi.net/callbook/index.html>)

J8CK 이인영은 조용천 고문의 제자로 일제 강점기에 무선 통신 전문교육과정인 라디오 강습회를 수료해 무선 통신기술을 습득 하였고, 조선총독부로부터 J8CK 를 허가 받아 운용 하였으며, 연맹이 설립 되고 는 특별회원으로 1966 년 부터 1977 년 까지 감사를 역임하셨다. 대한민국의 호출부호를 받고자 여러 차례 자격고시에 응시 하셨으나 노령으로 CW 에 실패하셨고, 자제분이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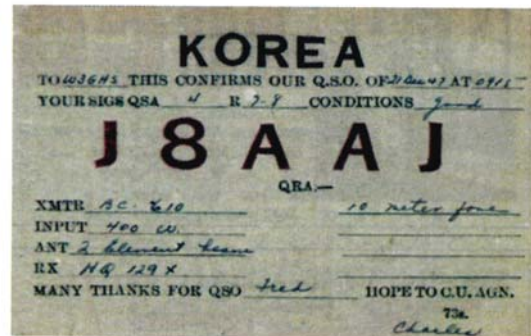
이기창 (ex-HM1DQ)이 경동중학교 3학년 때에 합격하였다. 이기창은 1969년, 1970년에 연맹이사와 KARL 지 편집을 하였고, 이인영은 1991년 71세로 세상을 떠나셨다.

수난기(受難期; 해방이후 ~ 6.25전쟁)



J8AAI 1947 Seoul, Korea

Courtesy of W5KNE
From the estate of W5K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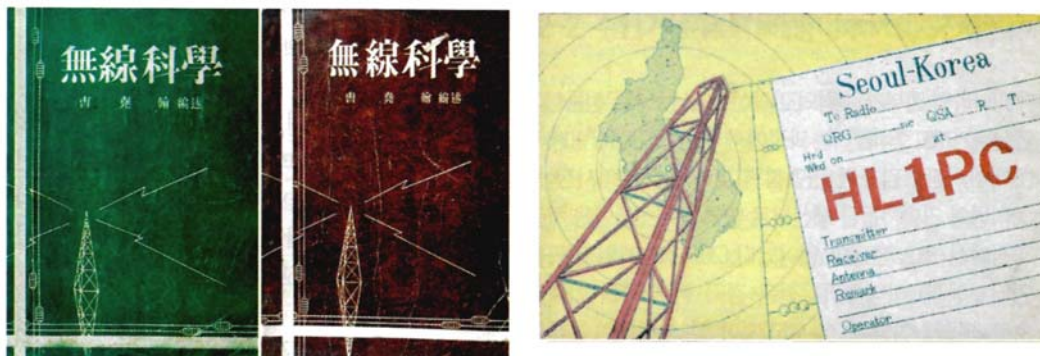
J8AAJ 1947 Korea

From the estate of W3GHS / W3NZ

1945년 해방과 함께 미군이 주둔하게 되었고, 어디를 가나 아마추어무선을 즐기는 그들은 이 땅에서도 예외 없이 햄의 전파를 발사하였다. 그들은 처음에 J8 Call 을 그대로 사용 하였으며, 그 후 HL 이라는 Prefix 는 우리들이 한번도 써보기도 전에 미군인에 의하여 먼저 전세계에 퍼졌다. 누가 허가를 해줬는지? 또는 무허가였는지?는 알수 없지만, HL 의 전파는 우선 미군의 손에 의해 발사 되었고, 처음 부터 수난을 겪어야만 하였다. 1945년 해방 이후 미군들이 J8Prefix 를 사용 했으며 주로 3 문자 Suffix 를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의 정부가 수립되고 체신부에서 국제무선통신에 관심을 갖이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인관 (연맹창립멤버, 초대이사장), 김규한 (연맹창립멤버, 초대부이사장)등 30여명의 기술자들을 체신부로 영입하여 기초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625 전쟁이 일어났다 (2015.1.23 일 김규한 인터뷰에서). 아마추어 무선은 결국 한 두명의 입에만 오르 내린 채 어둠 속으로 사라져야 했다. 민족의 불행한 수난사와 함께 묻혀 있던 아마추어무선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것은, 휴전이 성립 되고 얼마 후 부터였다.

태동기(胎動期; 1952 ~ 1954)



무선과학 1·II 표지

이땅의 아마추어 선구자들은 개인적으로 정부와 교섭을 시작하였으며, 아마추어 무선국의 허가를 요구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무선=간첩”인식이 팽배해 있던 그 시기의 한국에서 이것이 쉽사리 성공할 리가 없었다.

전쟁의 아픔속에서도 변화가 시작 된것은 전쟁의 잔해로 우리 곁에 다가온 미군들의 잔유물들, QST 등 미국 잡지와 온갖 전자부품과 미군용 송수신기가 있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전자부품과 미군용 송수신기를 쉽게 접하게 되었고, 그 무전기로 바깥 세상과 접하기 시작 하면서 그 욕구는 커져 갔고, 훗날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이라는 목표를 만들고, 그곳을 향한 준비를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도 있을 것이다.

무선국 허가라는꿈은 너무도 멀리 있었고, 송수신기는 가까이 있었다. 더욱 휴전 후 남북분단이라는 여건 속에 전파를 다루는 일은 정부에서도 선뜻 내키지 않는 일로 자칫하면 간첩으로 오해 받을 위태로운 일이었지만, 전파를 통해 신세계를 접하는 신비로움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당국의 허가 없이 은밀히 교신하였든 이들을 UC (Under Cover)라고 부르는데 아마도 많은 이들이 UC 로 활동 했을 듯 한데, 적발 되면 당국의 처벌을 받게 됨으로 은밀하게 이루어 졌다. UC 로 활동하다 적발 되어 처벌을 받았든 사례도 전해지고 있는것으로 보아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든 때문인지라, 그 기록도 일부만 알려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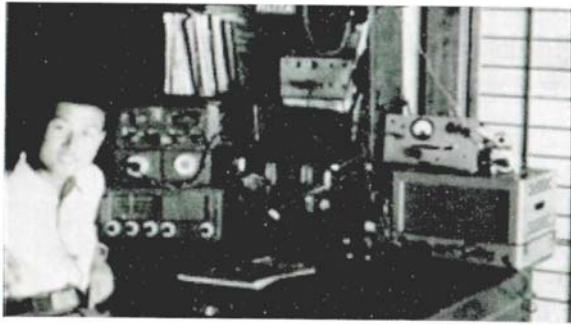
현재 까지 우리나라 ham 의 발전적 시각에서 알려진 UC 로는 무선과학의 저자 조요한 (HL1PC), 정혜선 (HL1AA) 그리고 강기동 (HL1TA)가 대표적인 분들로 알려져 있다. 정혜선과 강기동, 이 두분은 후에 연맹의 창립멤버로 활동하시고 연맹업무와 KARL 지 편찬에 참여하시는 등 크게 도움을 주셨다.

무선과학 I 은 1950 년 3 월 15 일에 초판이 발행되어 1952 년 6 월 15 일 까지 무려 8 판이나 출간 하였고, 무선과학 II 는 1953 년 1 월 20 에 초판을, 1954 년 3 월 25 일에 재판, 1957 년 2 월 20 일에 3 판을 발행할 정도로, 당시 무선과학은 과학도들의 지침서에 가까울 정도로 널리 읽혀졌고, 조요한의 동생들은 조요성, 조요윤으로 훗날 HM1AA, HM1AB 로 우리나라의 첫번째와 두번째의 호출부호를 부여 받는다. 조요한은 1948 년 6 월 오전 2 시에 20W 출력으로 14MHz Band 에서 W7EGR (Washington State, U.S.A.)과 교신하여, R5 의 통보를 받았다고 무선과학 II 의 P2 에 적고 있는것이 유일한 기록이다. 조요한의 자료를 찾고자 동생 조요윤(KD1AB, ex-HM1AB, Florida)과의 연결을 시도한 끝에 특별호의 편집이 끝나가던 3 월 8 일에 조요윤으로부터 조요한의 QSL card 자료와 당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두어야 할것은 출력전력이 커야만 반듯이 좋은 DX QSO 가 되는것은 아니어서, 필자의 경험에 의하드라도 단 20W 의 출력을 가지고 14MHz 대에서 전화로 W7EGR (Seattle, Wash. U.S.A.)과 통화하여 QRK 5, S8 의 보고를 받은적이 있다. 때는 1948 년 6 월 중순이었으며, 시간은 오전 2 시였다.” 조요한은 1948 년 당시 서울 종로구 궁정동 5-5 에 약 15m 정도의 안테나를 세개정도 세우고 교신을 하셨는데, 한국전쟁중에 미군과 북한군이 이 안테나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1953 년 서울대학교 전기과 학생이던 강기동과 아마추어무선에 관심이 있던 친구들이 아마추어무선국을 허가해 줄것을 체신부에 설득하는 작업과 아마추어무선사 자격시험을 치르도록 설득하여, 결국 체신부에서 자격검정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시험 당일 시험장에는 강기동 혼자 출석하여 감독관 눈치를 보며 혼자 시험을 치르고 혼자합격 하였다고 강기동 자서전에 기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아마추어무선통신사 자격검정 합격자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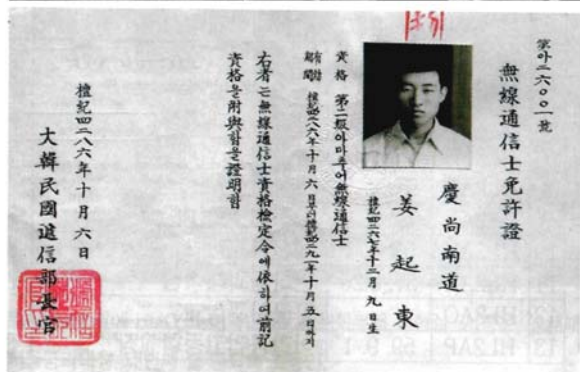
.



HL1TA_강기동님 shack



HL1TA_강기동님 QSL



우리나라 1호 아마추어무선통신사 강기동 면허증



그후에 육군 통신장교 중위였던 정혜선 OM 이 (DS2OAJ 로 허가되었다가 2015 년 8 월에 Silent Key) HL1AA call 로 아마추어무선의 전파를 내다가 적발 되어 불명예 제대처분을 받았고, 그 뒤를 이어 강기동 OM 이 HL1TA 로 전파를 내기 시작했었다. (강 OM 은 결국 치안국에 불려 갔으나, 강 OM 의 달변으로 치안국 과장에게 아마추어무선을 설득하여, 치안국 과장의 묵인하에 HL1TA 를 계속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아냈고, 이래서 완전 불법국도 아니고 합법국도 아닌 애매한 무선국으로 계속 전파를 냈다.)

내가 아마추어무선을 처음 알게 된것은 1954 년, 대학에 갓 들어간 1 학년 때였다. 그 때는 한국전쟁이 휴전협정으로 막 끝나고, 반공이 국시가되어, 정부기관은 물론이고, 일반국민도 개인이 무선통신을 한다면 무조건 간첩이나 하는것으로 아는것은 물론이고, 단파방송을 청취한다든가, 어느 집에서 CW 소리가 난다면 그대로 빨갱이로 몰려 경찰서에 끌려가는, 극도의 무선 공포증이 전 사회에 깔려 있던 시대였다. 이런 사상은 일제시대에 일본에도 깔려있었고, 더구나 식민통치하의 한국에서는 이 사상이 뿌리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일제 통치하의 잔재였지만, 미처 거기서 빠져 나올 여유도 없이 남북으로의 분단과 한국전을 치루다보니, 오히려 강화된 상태였다고 생각된다. 정부가 운용하는 무선국 외에는 항공기나 선박무선국이 있을 정도 이고, 일반인이 접할수 있는 무선국은 고작 방송국 정도 였든것으로 기억한다.

중학교 때 부터 라디오를 만들었다 부수고 하는것이 재미있어 장사동 시장을 뒤지고 다니는것이 크나 큰 낙이였고, 무선통신에 관한 책이라고는 조요한씨 (ex-HM1AA/HM1AB 의 만 형님)가 쓴 “무선과학”이라는 책이 유일하게 시판되고 있었으며, 우리는 주로 일본에서 밀수로 흘러 들어 온

일본 책들에 의존하고 있었다. (일제하에서 강제로 일본어를 배운 덕택에) 그 당시 일본에서도 “무선과 실험”이라는 책이 거의 유일한 무선통신에 관한 전문 월간 잡지여서, 이것을 장사동 시장에서 눈에 띄는대로 띄엄 띄엄 사다 보는 것이 최대의 정보를 입수하는 수단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호랑이 담배 피우던, 동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그당시의 현실이었다.

대학에 입학한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새로 사온 “무선과 실험” 잡지에서 낫 설은 Call Sign 들을 발견하였다. JA1AA 니 JA1BU 니 HL1TA 니 하는 Call Sign 들이었다. 방송국 Call Sign 은 가운데에 숫자가 없는데, 이상한 Call sign 들이었고, 한국은 모두 HLKA, HLKB 등으로 되어 있는데, HL1TA 라는 방송국이 있다는 소리는 들어본 일이 없었다. 그것도 한개 뿐이라면 오자로 보겠지만, 전 페이지에 이런 Call Sign 들 뿐이라서 미스라고 보기에는 이상하였다. 다행히 몇몇 Call Sign 뒤에 주소가 적혀있고, 개인 이름도 있어, (방송국에 개인 이름이 있는것도 이상 했지만), 생전 처음으로 국제우편이라는것을 보내 보았다. 일본의 JA1BU 앞으로, “JA1BU 는 JABU 방송국의 오자가 아닌가? 가운데 숫자는 왜 들어가 있는가?”라고 원래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라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 내가 아마추어무선을 알게된 계기가 되었다. (JA1BU 가 이편지를 보고 포복절도한 것 아닌지? hi hi)

편지를 보낸지 한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 잊어 버릴 무렵에, 엉뚱한 낯선 한국 사람에게서 편지가 왔다. 일본의 JA1BU 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한번 만나보자는 편지였다. 누군지는 몰라도 무선계에 있는 사람이려니하고 만나자고 답신을 보내고, 서로가 누군지를 모르니 간첩 접선하는 식으로 몇 일 몇 시에 돈암동의 XYZ 빵집에서 이런 옷을 입고 “무선과 실험”을 갖고고 나가겠노라고 써보냈다. 그리고 지정된 시간에 나가서 만난 분이 바로 정혜선 OM 이었다.

이래서 만난 정 OM 으로 부터 아마추어무선 얘기를 처음 들었고, 일본의 JA1BU 가 당시 7MHz Phone 으로 HL1TA 를 운용하면서 매일 같이 JA 국들과 QSO 를 하던 강기동 OM 과 QSO 를 하면서, 나에게서 온 편지 얘기를 하였고, 강 OM 이 다시 정 OM 에게 얘기하여, 정 OM 이 나에게 편지를 보낸것을 알게 되었다. 무선에 흥미가 많았다고는 하나, 고작 라디오나 만들었다 부셨다 하고 방송이나 들던 나에게, 아마추어무선은 완전히 새로운 환상의 세계로 들려왔고, 이 때부터 나의 아마추어무선에 미친 생활이 시작 되었다. 특히 강기동 OM 은 서울 공대 전기공학과와 한 학년 윗반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매일 같이 만날수 있었고, 필동에 있는 그의 집에서 HL1TA 로 JA 들과 Rag Chew 하는 것을 본 후에는 자나 깨나 아마추어무선 생각 밖에는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이때의 한국에서 유일하게 햄 전파를 내든 HL1TA 의 TX 는, 807 이라는 진공관 하나로 50W 정도의 출력이었으며, 진폭변조 (AM = Amplitude Modulation = Ancient Modulation? = A3 Mode. 햄들이 SSB 를 쓰기 시작하기 전 훨씬 옛날의 이야기임)의 전화였고, RX 는 미군부대에서 불하한 군용 수신기로 가장 손쉽게 장사동 시장에서 구할수 있고 가격도 적당하여, 햄들에게서 가장 사랑(?)을 받던 BC-342 (1.8 - 18 MHz)였으며, 안테나는 뒷마당 나무에 늘어 뜨린 Long Wire 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때는 일본도 아마추어무선이 개방되지 얼마 안 된 초기라서, JA 국 들도 많지 않아 2 letter call 들 뿐이었고, 그것도 JA1AA 에서 JA1GZ 까지 정도가 가장 활발했던 것 같다. hi hi. 7 MHz Band 에서 이것으로도 24 시간 편만한 JA QSO 가 언제나 가능했고, 14MHz Band 는, 그나마도 극소수였던 일본의 1 급국들 밖에 나올 수가 없어서, 항상 조용하여 QSO 상대를 찾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이 HL1TA 도 실제로는 무허가였고 (통칭 “언 커버” = Under Cover), 한국에서는 아마추어무선국이 허가 되지 않아 합법적인 햄 활동은 할수가 없었으며, 대학생 신분엔 기계를 살만한 돈도 없었으니 당장 시작할수는 없었다. 그러다가 하루는 양복을 사입으라고 얻은 돈으로 양복은 안사고 BC-342 를 한대 사갖고 집으로 갖고 와서 온 집안 식구를 놀라게 만들었고, 마당에 서있던 오동나무에서 Long Wire 를 끌고 와서 연결해 놓고 SWL 생활을 시작하였다. 수신 상대는 외국의 햄국들과 단파방송국들로 전세계의 단파방송국들은 자기네 전파가 어디서 얼마나 잘들리는가?를 알기 위하여 SWL 들의 수신보고서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서, 수신보고서를 보내주면 (비싼 국제우편료는 들었지만) 햄들의 QSL Card 와 비슷한 수신확인 카드와 팸프렛등을 보내왔었다. 특히 영국의 BBC 나 미국의 VOA, 일본의 NHK 들이 예쁜 카드와 자료들을 많이 보내왔었다. 이런 방송국들을 상대로 수신보고서를 보내는 활동도 활발하여, 이들을 BCL (Broadcasting Listener) 또는 그냥 통칭 SWL 이라고 했었다. 어쨌든 BCL 활동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이었고, 아침 저녁으로 7MHz 나 14MHz 를 틀어 놓고 온 집안에 시끄러운 소리를 내다 보니 가족들의 항의도 있어, Headphone (통칭 “레시버”= Receiver)을 하나 사서 머리에 끼고, 틈만 있으면 외국 햄들의 QSO 를 들으면서, 나는 언제나 이렇게 할수 있을까 하고 꿈만 꾸고 지냈다.

이렇게 내가 아마추어무선을 처음 알게 된것은 KARL 이 창립되기 전해인 1954 년으로, 이 때에 아마추어무선에 가장 열성적인 OM 은 역시 아마추어무선국의 공식 허가를 기다릴수 만은 없어서, 당국에 적발되면 간첩으로 까지 몰릴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특히 반공이 국시였고, 막 전쟁이 휴전으로 들어가던 당시에) 무허가로 전파를 내든 정혜선 OM (HL1AA)과 강기동 OM(HL1TA)이었고, 그외에 서울공대의 강 OM 과 한 반인 전기공학과 2 학년에는 이동호(후일 HM1AH) OM, 김동주(후일 HM1AF) OM 을 비롯하여 10 여명의 아마추어 지망생들이 있어서, 나도 학교에서 여기에 한 몫 끼어, 거이 매일 만나면서 아마추어무선에 관한 얘기에 꽃을 피우면서 지냈다.



SWL - D. I. Cho (Later HM1AJ)



BCL - Kim Dong-Joo (Later HM1AF)



BCL - M. S. Bae (Later HL2AA)

이들은 모두가 정부의 허가도 없이, 공식적으로는 불법무선국 일 수밖에 없었지만, 정식으로 허가를 받을수 있는 상태에서의 불법무선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아마추어들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위협을 무릅쓰고 전파를 내는 사람은 오히려 “개척자”로 대접하여 존경하고 있다.

KARL의 결성이 거이 익어 가던 무렵의 어느날, 강기동 OM의 shack에는 강 OM을 비롯하여 필자등 몇몇의 Ham 광들이 모여 언제나 마찬가지로 이것 저것 Rag Chew에 꽃을 피우고 있었다. 화제는 언제나 이런 족속이 모이면 일정한것. W가 어떻고, JA가 어떻고 등등. 더구나 HL의 Ham Radio를 개방 시키겠다는 불 타는(?) 의욕으로 KARL을 만들려고 하든 참이었으니 QRU란 당치도 않은 말. 미국의 Rag Chew Club 쥘은 뺨칠 정도로 무궁무진한 화제 가운데에 당국의 처사를 비난도 했다가 동정도 했다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결론은 도대체 체신부 아저씨들이 아마추어무선이 무엇인지 알기나 하는 셈이냐는 정도로 낙착 되는것이 일쑤였다. 이렇게 몇 시간을 Rag Chew에 꽃을 피우다가 화제는 SWL로 돌아갔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SWL Card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이동호, 조동인, 김동주등 서너명 정도였지만 앞으로 많이 생길 SWL을 위하여 장차 KARL이 결성 되면 SWL Number가 필요하게 될거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이래서 그곳에 있던 몇몇 사람이 성급하게 SWL Number를 확정 하였었다. 그래서 우선 SWL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이동호에게 HL-1001을, 내가 그 다음으로 HL-1002로, 그다음은 배명승이 HL-1003으로, 그리고 4자는 모두 싫어하는데 강기동이 자진해서 HL-1004라는 번호를 갖겠다고 하였다. 이렇게 하여 약 10명 정도의 SWL Number가 그자리에서 정해졌었다. 이 때에는 아직 Call Area라는것은 생각지도 못했으므로 한동안 전부 HL-1001로 부터 일련번호로 나갔으나, 그 후 연맹의 탄생과 함께 Call Area를 확정하여 HL-3001 김대진, HL-5001 조병주가 탄생 하였다.

Call Area(SWL)의 변경

1955년 KARL지 12월호(창간호)에서 부여한 SWL CALL AREA는 HL4가 제주도, 전라도의 2개 도(道)로 되어 있어서 착오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새로이 'HL'을 부여하여 각 지역을 골고루 배당하고자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있다.

변경된 SWL CALL AREA

지 역	변경전	변경후
서울특별시	HL-1	HL-1
경기도	HL-2	HL-2
충청도	HL-3	HL-3
전라도, 제주도	HL-4	
전라도	HL-4	HL-4
경상도	HL-5	HL-5
제주도	HL-4	HL-6
강원도	HL-6	HL-7
함경도	HL-7	HL-8
평안도	HL-8	HL-9
황해도	HL-9	HL-0

1955년에 등록된 SWL 회원

No.	SWL 번호	성 명	주 소 지
1	HL-1001	이동호(李東昊)	서울특별시
2	HL-1002	조동인(趙東潑)	"
3	HL-1003	배명승(裴明承)	"
4	HL-1004	강기동(姜起東)	"
5	HL-1005	정혜선(鄭慧善)	"
6	HL-1006	서정욱(徐廷旭)	"
7	HL-1007	이문중(李文鍾)	"
8	HL-1008	김동주(金東柱)	서울특별시
9	HL-1009	윤은상(尹殷相)	"
10	HL-1010	이강완(李康完)	"
11	HL-1011	이종상(李鍾相)	"
12	HL-3001	김대진(金大鎭)	대전시
13	HL-4001	김임준(金林浚)	광주시
14	HL-5001	조병주(曹炳柱)	부산시



1955 (KARL 30주년 기념호에서)



- 4. 20 창립총회 개최
- 2. 12 최초의 실험국 HL2AC (동국무선고등학교) 허가.
경기도 월계리 소재
- 5. 6 실험국 HL2AA (서울 문리대) 허가
- 7. 22 실험국 HL2AB (연대) 허가
- 11. 1 KARL 지 창간호 발행 (12월호)
- 11. 12 중앙우체국 사서함 162 사용 결정
- 11월 서울공대 동기등반대 HL9AA/P 운용 (실험국용)
- 11. 26 임시총회 개최 (서울 문리대 의예학부)
- 12월 SWL번호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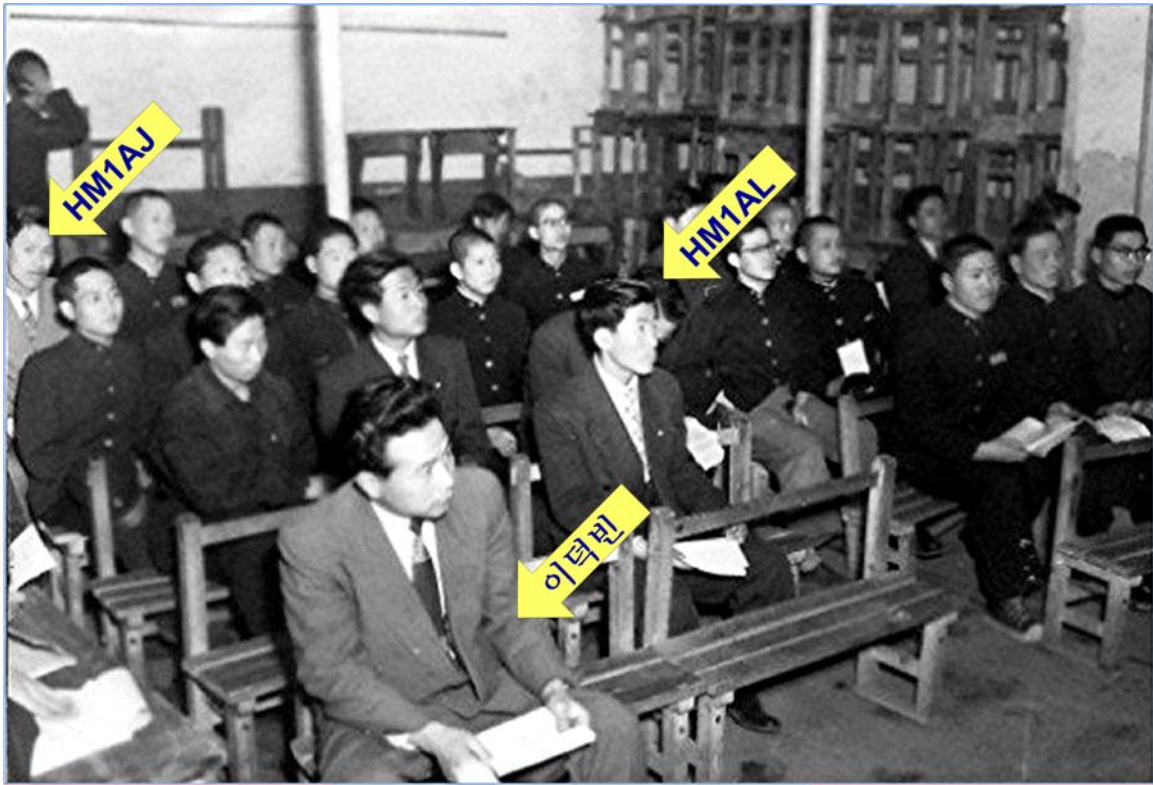
임원명	성명(姓名)
이사장	이인관(李寅觀)
부이사장	김규한(金圭漢)
"	한진동(韓振東)
감사	한기선(韓基善)
"	이봉익(李鳳翊)
이사	이덕빈(李德彬)
"(출판)	정혜선(鄭惠善)
"(총무)	김동주(金東柱)
"(대내외교섭)	강기동(姜起東)

19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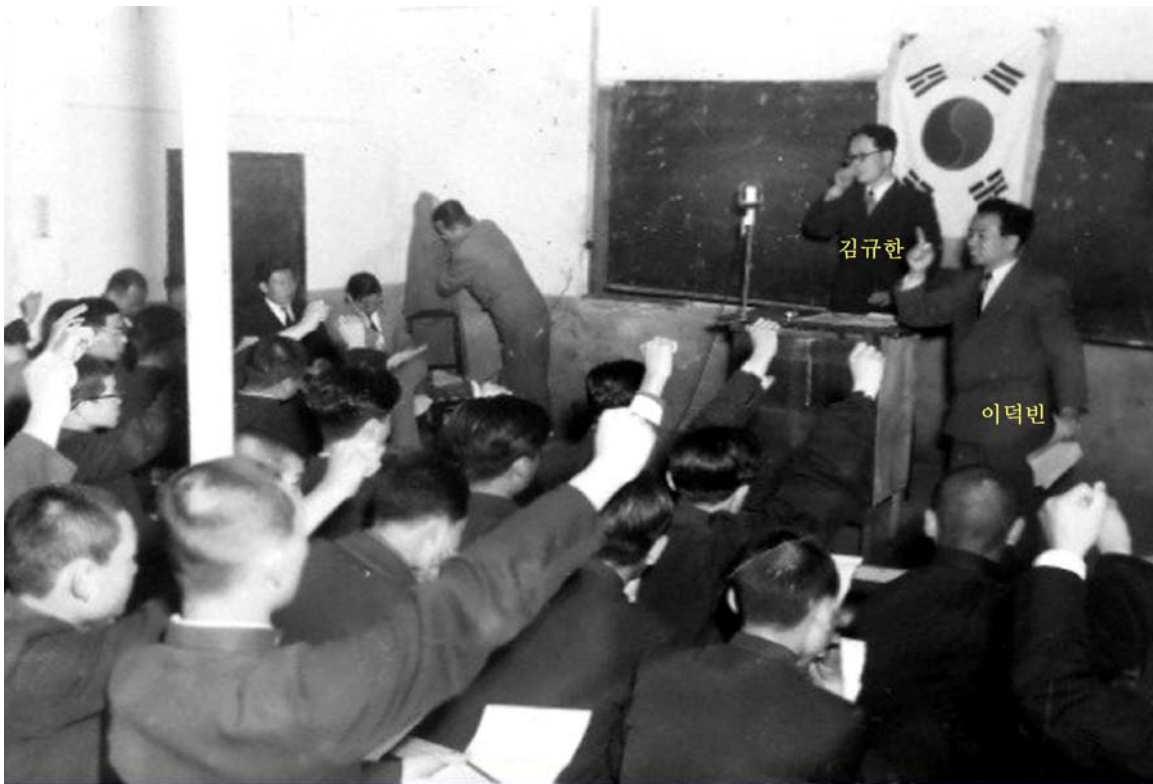
1955년이 되면서, 서울공대 전기공학과 내에서만 얘기 되었던 아마추어무선이, 서울 문리대 물리학과 배명승 OM (후에 실험무선국 제 1 호였던 HL2AA 의 창설자)등 공대 밖의 동호인들로 범위가 넓어지면서, 개인의 힘만으로는 안되겠고, 단체의 힘으로 정부와 교섭하자는 방향으로 진전이 되었다. 이래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의 발기인회가 구성되어, 후배 양성에 남다른 열성을 보이셨고, 당시 공보부 방송관리국 기감이시든 (KBS 에서 기술직 최고 공무원) 이인관 기감을 초대 이사장으로 모시기로 하였고, 부이사장으로는 역시 후배양성에 발벗고 지원 하시는 한국공사 (당시 미국의 가장 유명한 고급 통신기 메이커였던 Collins 의 한국대리점)의 김규한 사장님을 모시기로 하였으며, 그외에 기독교방송국의 기술부장이든 이덕빈 OM 이 적극 지원하여 주셨다. (종로 2 가의 기독교방송국이 있던 빌딩의 1 층에 있었던 "시온 다방"이 항상 모이는 장소가 되었고, 당시의 대부분 의 대학생 주머니 속에는 고작 뽕스값 정도 밖에 없던 시절이라, 모임후의 커피 값은 결국 대부분의 경우 이덕빈 OM 의 몫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하여 몇달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드디어 1955년 4월 20일에 동국무선고등학교 (광운공대의 전신) 교실 하나를 빌려 50여명의 동호인이 모여 드디어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이 결성 되었고, 초대 이사장에 이인관 기감님을, 한국공사에 근무하는 김규한님과 일제시대에 아마추어무선을 시작했던 한진동님을 부이사장으로 선출하고, 김동주는 총무를, 정혜선은 출판을, 강기동은 대내대의 교섭을 맡아 연맹은 명실공히 하나의 단체로서의 면모를 들어 내기에 이르렀다. 그후 체신부 전파관리국 관리하의 정식 기관으로 인정되어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공식적인 법인체로 인정 받기 까지, 이인관 이사장이 무선계의 원로로서의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 하여 크게 도움을 주셨고, 법인 등록의 법적 절차에는 김규한 부이사장님의 해박한 법률지식이 큰 역할을 했었다.



KARL 창립총회

4/20/55



KARL 창립총회

4/20/55

30주년

이 KARL의 창립은 대서양 향해 선상에서 모르스 (Samuel Finley Morse 1791 - 1872 미국)가 모르스 부호를 발명 한지 약 120년 후 (1832), 마르코니 (Guglielmo Marconi 1874 - 1937 Italy)가 무선통신을 발명하고 (1895) 대서양 횡단 통신에 성공한지 (1901) 각각 60년과 54년 후, 미국이 공중을 난무하는 무법의 전파를 전파법규로 묶어 당시로는 쓸모 없던 파장 200m (1.5MHz) 아래의 단파대로 아마추어들을 쫓아낸지 43년 후(1912), 미국과 불란서가 그 불모 황무지를 활성화 시켜 대서양 단파 횡단 통신에 성공한지 32년 후(1923), ARRL과 RSGB 창설부터 약 40년 후(1914, 1913), IARU 창설로부터 30년 후(1925) 그리고 2차대전의 독일과 일본의 햄 개방이 (1948, 1951) 이루어진지 수년 후에 비로서 생긴 일인 것이다

30주년



최초의 무선국이 허가되고, 곧 이어 창립총회의 발기가 있기까지의 과정을 창립의 중추를 맡았던 발기안중 가장 연상자인 정혜선은 다음과 같이 회고 한다.

“어느날 강기동씨가 집으로 찾아 왔어요. 그 다음에 강기동씨 하고 같은 서울공대 다니는 학생들인 이동호, 서정욱, 배명승, 김동주씨 등과 뜻을 맞추게 되고, 이어서 전파관라과를 찾아가니 신언모씨라고 당시 거기 근무하시던 분이데 오히려 반가와 하드군요. 햄 개방이 안되겠느냐고 물으니 그쪽에서 제발 하지 말아 달라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장들과 가까워 졌어요. 연맹 하지 마라, 차라리 협회로 해라. 그래도 굳이 연맹으로 하겠다 한거지요.”

또 당시 학생의 신분으로 “지금 생각하니 무시 무시한 일을 저질렀다”는 SWL의 선두주자 HL-1001의 이동호님은 “대학 들어가니 강기동, 서정욱이 있드군요. 뭔가를 만들어 보자. 체신부에 가서 날마다 떠들어 댔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가당치도 않은데 그리고 만들어진게 연맹예요.”라고 옛 기억을 떠올렸으며, 공군사관학교 실험무선국 HL2AO의 OP이기도 했던 서정욱님은,

“당시는 단파 수신기도 등록 되어야 될 때로 몰려들 가는데 마다 푸대접이에요.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당시 HLKY 기술부장이던 이덕빈씨하고 이중집씨와 contact 이 됐어요. 그들〇이 이인관씨를 찾아가서 상의해 봐라 하는거예요. 이인관씨는 당시 공보부 방송관리부 기감으로 방송계에서는 상당히 알려진 분이었어요. 그렇게 이야기가 되가지고 창립이 무르익었지요. 법원에 등기도 하고...”

또한 같은 서울공대 학생으로 나중에 열네번의 이사를 역임 한 끝에 이사장 자리에 올랐든 조동인님도 이렇게 그 당시를 회고 한다.

“그 때 여러 OM들의 열성은 굉장한 것이었다. 특히 서울공대에는 강기동, 이동호, 김동주, 서정욱 HL2AJ(서울공대 실험무선국) 창설자 김세대, 안수길 그리고 이미 사회로 나간 정혜선과 나....중략.... 어떻게 하면 HAM RADIO를 개방시키느냐.....연구 끝에..... 결론으로 단체를 만들어 단체의 힘으로 교섭해 보자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정혜선씨의 지도가 많았고, 배명승 OM이 문리대에서 유일하게 참가..... 강기동 OM의 Shack에 모여 명칭등을 결정 창립총회에 대비하게 되었다” [59년 7월호 p35-37, 10월호 p20 - 23, 12월호 p28 발췌]

1955년 4월 20일에 서울 중구 봉래동 1-83 동국무선고등학교에 초청인사 3명, 서울 공과대생 10여명, 서울 문리대생 1명, 동국무선고등학교생등 약 40여명이 모여 창립총회를 가짐으로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KARL, The Korean Amateur Radio League)이 탄생하였다



한편 KARL의 창립 이전 부터 Ham License를 얻는 방법을 여러가지로 연구해본 결과, 우리나라 법규에는 아마추어무선이라는 조항이 전혀 없으므로, 별수 없이 과거의 일본정부가 일본법을 적용하여 J Call을 내주면서 우리 나라 사람에게 까지도 Ham License가 주어졌던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 생각으로는, 일본이 소위 “조센징”이라고 무척 학대 하던 한국인에게 까지 Ham License를 주었는데, 이제 우리 나라에서 우리 나라 사람에게 Ham License를 안주겠느냐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래서 시험삼아 제출한 강기동 OM의 “실험무선국” 신청서는 점잖게 되돌아 오고 말았다. 그러나 체신부에서도 이미 그냥 넘어갈수는 없는 처지에 이르렀고, 학교에 한하여 “실험무선국”을 허가 하겠다고 관용(?)을 표시 함으로서, 1955년 5월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실험무선국 HL2AA에 3.5MHz를 제외한 모든 아마추어용 주파수대가 허가 되었으며, 이것은 Call Sign이나 주파수대가 그대로 Ham Operation을 할수 있는 것이어서, 우리는 이것을 사실상의 Ham 개방의 서곡이라고 보았다.

그후 뒤이어 HL2AB(연희대), HL2AC(동국무선), HL2AG(한양공대)등이 계속 허가되었고, 이제는 HL2AA를 허가 받은 서울대학교 문리대의 배명승 이문종 두 OM은 곧 807 single TX에 실험실 Amp를 그대로 Mod로 써서 우리나라 최초로 CQ를 14MHz 전파에 태워 보냈고, 이것은 곧 HL의 Sig를 고대하던 세계 각국의 DXer들 간에 인기를 총 집중시키기에 이르렀다. 그 다음에 나간 HL2AC는 CW QSO를 통하여 DX 실적을 올렸고, 1957년 경에는 서울공대의 HL2AJ가 Viking II TX와 SP-600 RX로 FB한 위치와 각 밴드용 Doublet 5기의 높은 안테나로 OP들이 곧잘 밤을 세워가며 Europe, Africa 등의 DX국들이 FB QSO를 전개 하였다.

이렇게 HAM 개방을 위한 목마름이 깊어지자 당국은 드디어 1955년 2월 8일 “무선전산법 제 2조 5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전신 무선전화에 관한 실험 전용에 공하기 위함”이라는 전제하에 “실험무선국”이라는 명칭으로 그 최초의 허가를 동국무선고등학교에 내리기에 이른다. 이는 순수한 실험을 위한 것으로 1955년 부터 1959년에 걸쳐 모두 13국의 실험무선국들이 허가되어 어쩔수 없는 묵인하에 정식 HAM 개방이 이루어 지기 까지 한동안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등 아마추어무선을 예인해 간 공로를 부인할수는 없으나, 순수한 의미에서의 아마추어무선국은 아니었다.

1955년 8월 1일에 HL2AC라는 호출부호가 부여(체전 제 453호) 되었으며, 1956년 3월 14일에 다시 HL2AE라는 호출부호가 두번째로 허가(체전 제 532호) 되었다. 1955년 부터 1959년 까지 허가된 실험무선국 현황은 다음과 같다.

	호출부호	허가일	시설자명	기기장치장소	관보No.	고시No.	허가 개정
1	기재안됨	55. 2.12	동국무선고등 조광운교장	중구 봉래동 1-83	1272	체395	허가
2	기재안됨	55. 5. 6	서울대학교총장	종로구 동숭동 31	1320	체422	허가
3	HL2AB	55. 7.22	연희대총장 백락준	서대문구 신촌 134	1368	체449	허가
	HL2AC	55. 8. 1	동국무선고등 조광운 교장	중구 봉래동 1-83	1374	체453	개정
	HL2AA	55. 8.20	서울대학교총장	종로구 동숭동 31	1388	체468	개정
4	HL2AE	56. 3.14	동국무선고등 조광운 교장	중구 봉래동 1-83	1508	체532	허가
5	HL2AF	56. 9.13	교통부장관	용산구 한강로 3가 65	1640	610	허가
6	HL2AG	56. 9.30	한양공과대학장	성동구 행당동 산 8-2	1644	613	허가
7	HL2AH	56.11.16	서울대 사법대학장	동대문구 용두동 138	1669	640	허가
8	HL2AJ	57. 2.13	서울대 공대학장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신공덕기	1729	683	허가
9	HL2AI	57. 4 1	고려대 문리대	성북구 안암동	1756	705	허가
10	HL2AK	57. 4. 1	체신학교장	용산구 원효로 3-1	1756	706	허가
11	HL2AL	57. 8.26	인하공과대학장	인천시 용동 253	1859	768	허가
12	HL2AO		공군사관학교				
13	HL2AP	59. 9. 1	이리공업고등학교장	전북 이리시 남중동 15	2393	1075	허가



이렇게 되자 당황한 체신부가 실험무선국은 어디 지나 실험을 위한것이니까 아마추어 업무는 하면 안되고, 따라서 Oversea QSO 는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고, 더구나 한참 간첩 사건이 연발 하자 각학교 실험무선국은 거의 모두가 약속이나 하듯이 폐국 상태에 들어간채로 오늘에 이르고 말았다.

그때의 연맹의 업무는 주로 두가지로, 하나는 체신부 전파관리국 아저씨들에게 아마추어무선을 계몽하면서 아마추어무선의 개방을 조르는 일과, 회원에게 아마추어무선의 지식을 불어 넣어 주기 위하여 KARL 이라는 기관지를 발행하는 일이었다.

당시 무선계를 관할하던 법률은 일제시대의 일본 법규를 그대로 번역하여 쓰던 때였으므로, “아마추어무선”이라는 문구 조차 없었고 (일제시대의 J8 국은 명칭이 “실험무선국”이었다.), 사회 자체가 무선통신이라면 금방 스파이를 연상하던 때였으므로, 체신부로서도 선불리 개인에게 무선국 허가를 했다가, 더 힘이 썩 경찰이나 보안 당국으로 부터 항의를 받을 까봐 겁이 날수 밖에 없었을게고, 더구나 625 사변이 겨우 휴전으로 들어간 직후인지라, 전국 곳곳에서 공산 간첩이나 게릴라들이 날치고 있었으므로, 체신부 공무원으로서도 쉽게 개인 무선국을 허가할수는 없는 실정이었다. 이런 상태다 보니 장사동 시장에서 BC-342 한대라도 사오려면 파출소 앞은 되도록 피해야 했고, 길으로는 잘 안보이도록 하여 뒷골목으로 마치 도둑이 훔친 장물 갖이고 가듯이 집으로 가져 갔고, 안테나는 집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도록 처마 밑으로 Long Wire 나 칠수 밖에 없었던 시절이었다. (요세 동네에서 미관 상한다고 안테나를 못치게 하는것과는 전혀 이유가 달랐다. hi hi) 실제로 무전기(?)를 가지고 가다가 경찰에 발각되어 유치장 신세를 진 OM도 적지 않았고 (아직 어린 학생들이라, 기계는 압수당하고 부모만 혼나고 풀려나오기는 했지만...) 나도 뽁뽁 하는 전신 소리가 집 밖으로 세어나가 누군가가 경찰서에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관의 방문을 받은 일이 있었다. 요사이 젊은 사람이 들으면,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과장하지 말라고 하겠지만,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옛날 얘기지만 틀림없는 사실 이야기 이고, 이런 상태에서 철부지 대학생이 하루가 멀다고 찾아와 체신부 당국자들을 졸라 댔으니. 지금 생각하면 체신부

아저씨들이 딱하기도 하였든것 같다. hi hi.

그해 12월 1일에는 배명승, 이덕빈, 이문종, 정혜선, 김동주, 조동인, 윤은상, 강기동 등을 필진으로 정혜선이 직접 손수 롤러로 등사하여, 38 페이지에 달하는 연맹의 기관지이며 한국 최초의 무선잡지 “KARL”의 창간호를 발행하게 된다.

이렇게 체신부를 졸르면서, 한편으로는 KARL 지를 발행하려니 연맹이 매월 월간지를 낼만한 돈도 없었고, 선배들의 주머니를 긁어 내는데에도 한계가 있어, 제대로 된 인쇄는 상상도 못했고, 소위 일본말로 “가리방”이라 불리우는 “등사판”으로 KARL 지를 만들수 밖에 없었다. 요새 사람들이 등사판을 본적이나 있을런지 의문이지만, 밀에 꺼칠 꺼칠한 철판을 놓고, 기름을 잔뜩 먹힌 종이를 놓고, 철판(끝이 뾰족한 쇠로된)로 끝씨를 쓴 후에, 잉크를 잔뜩 묻힌 Roller 로 한장 한장을 인쇄해 나갔으니, 다행히 회원수가 백명도 안됐으니 가능했지, 오늘 같이 수만부를 그렇게 인쇄하려면 아마 수십명의 팔이 떨어져 나갔을 것이었다.

이렇게 등사판으로 KARL 지 제 1 호가 나갔는데, 당시의 역할분담은 글씨를 잘 쓰시는 정혜선 OM 이 서울역 뒤의 집에서 원고를 정리하고, 등사판에 철판로 써서 원판을 만드는것을 도맡아 하였고, 원고는 정 OM 이 직접 쓰거나 강 OM 을 위시하여 우리 서울공대 OM 들이 스스로 쓴것도 있고, 일본 책을 무단으로 번역하여 채우기도 하였었다. 내용은 주로 아마추어무선이 무엇인가를 계몽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하여 인쇄할 단계가 되면, 이동호, 김동주 그리고 내가 추가되어 서울공대 OM 들의 근로봉사가 시작되어, 등사판을 문질러 인쇄를하고, 봉투에 넣어 포장하고, 주소를 써서 우체국에 가서 봉투마다 우표를 붙여 발송을 하였다. 언제 까지 정 OM 을 위시하여 우리가 이렇게 수고를 하였는지? 확실한 기억은 없지만, 적어도 1-2 년은 계속 되었든것 같은데, 이렇게 무료로 근로 봉사를 하면서 “누가 돈주고 하라면 못할일”이라고 농담도 했었다. 그러나 이것도 자금이 없어 여러달을 건너 뛰기도 곳잘 하였었다.



KARL지 창간호 발행



창간호 목차

KARL 12월호(月号) 목차(目次) 제1권 제1호

KARL NEWS	(1)
권두사 이사장..... 이인관(李寅觀)	(2)
〈해설〉 레디오 회로도의 도해기호의 변경	배명승(裴明承) (4)
〈연재강좌〉 수신기(제 1회).....이덕빈(李德彬)	(6)
코멧트 사전	(7)
세계 토픽스	(8)
〈기술대화〉 진공관의 전극의 작용(제 1회)	강기동(姜起東) (9)
재미나는 무선 전축 Wireless Record Player	이문종(李文鍾) (16)
시험용 케파시티 박스	정혜선(鄭慧善) (18)
레포(국내 뉴스)	(19)
아마추어 ABC	강기동(姜起東) (20)
광석검파기	(23)
아마추어생활의 가지 가지	(24)
BC DX	담당 김동주(金東柱) (25)
DX를 수신하기 위한 안테나 세우는 법	(27)
방송국 일람표(국내)	(28)
SWL QRV	담당 조동인 (29)
질의응답	(31)
배선도집	윤은상(尹殷相) (32)
편집후기	(35)

한편 KARL 에서는 처음에는 부이사장이신 김규한 OM 의 사무실이 안국동에 있었으므로 그 일부를 빌려 쓰고 있었으나, 얼마 안 있어 HL-1016 박대선 OM 의 호의로 명동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KARL 이란 모두가 본업을 갖고 밥벌이를 하면서 취미를 즐기는 사람으로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고정하여 사무실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고, 결국 사무실이란 유명무실 한것이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자연 회원과 HQ 와의 관계가 희미하게 되었으므로, 1956년 11월 26일에 서울 문리대 교양학부 강의실을 빌려 제 1차 임시총회를 개최 하였다.

1956 (KARL 30주년 기념호에서)



- 1. 15 KARL지 1월호 발행
- 1월 SWL 번호 변경
- 3. 14 실험국 동국무선고등학교(봉래동 소재) 허가, HL2AE
- 3. 30 KARL지 2·3 합병호 발행
- 4. 15 수원 송신소 견학
- 4. 21 제 1 차 정기총회
- 5. 5 KARL지 4월호 발행
- 8. 5 7·8 합병호 발행
- 9. 1 9월호 발행
- 9. 13 실험국 HL2AF 허가
- 9. 20 실험국 HL2AG 허가
- 10. 6 대한전파통신협회 창립
- 11. 16 실험국 HL2AH 허가

1956년		
직 위	호출부호	성 명
이 사장		이인관
부이사장		김규한
		한진동
감 사		한기선
		이봉우
이 사		이덕빈
	HL-1004	강기동
	HL-1005	정혜선
		김시욱
	HL-1008	김동주
	HL-1009	윤은상
	HL-1002	조동인



이때의 회원수는 총계 50 명으로, 이날의 임시총회는 총회라기 보다는 강연회 비슷해져, 미국에서 귀국하신 이사장의 “미국방송계의 전망” 이라는 강좌에 이어 강기동 OM의 “아마추어무선의 기원” 이라는 강좌, 그리고 그동안 주어 들은것들을 조합 해서 나도 한 몫 끼어 가로되 “아마추어무선 해설”, 끝으로 배명승 OM의 주도로 Ham Band의 실제 청취가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더구나 이날은 HL-1001, HL-1002, HL-1008 등 각 OM이 갖고 있는 QSL, SWL Card, Veri 등을 모조리 거두어서 벽에다 붙여놓고 전시 했으니, 정말 총회라기 보다는 아마추어무선 개몽을 위한 선전 강연회적 모임이었다. 당시에는 KARL 회원 중에도 HAM Radio를 잘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었으니 나 같은 친구가 공갈 섞어 떠들어도 OM 아닌 OM 대우를 받을 만큼 Ham계는 시발점에 있었다.

1955년 11월에 임시총회를 넘기고 이어 겨울 방학이 시작 되자, 방학만 되면 도저히 집 구석에 처박혀 있지 못하는 특성을 가진 강기동 OM이 막 공비토벌이 끝난 지리산으로 서울공대 동계 등반대의 일원으로 출발하게 되었는데, 이 때 강 OM은 학교와 체신부를 드나들면서 어떻게 하여 HLAA9이라는 무선국 허가를 얻어 냈다. 목적은 비상연락과 학술연구용. 그러나 강 OM의 진짜 목적은 판곳에 있었다. 서울의 HL2AA와 긴밀한 Schedule을 짰 강 OM은 2E24 Para Final의 TX와 BC-342 RX 그리고 14MHz 용의 2 ele Rotary Beam 등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장비를 마련하여 일로 지리산으로 향했다.

지리산에 도착한 강 OM은 그곳 지서주임의 극진한 협조하에 지리산 꼭대기의 눈 위에서 CQ DX를 불렀고, HLAA9이라는 호출부호는 쥐도 새도 모르게 HL9AA/portable이라는 아마추어용 호출부호로 변해 버리고 말았다. hi hi. 그리하여 지리산의 눈 속에서 강 OM이 QSO한 나라의 수가 무려 30 country였다. 1956년의 일이니까, 태양 흑점계수가 최고에 접근하고 있었으니 condx은 최고로 양호 할수 밖에..... HL9AA/p로 지리산을

다녀온 후에 이를 알게 된 체신부와 학교로 부터 기합을 받았지만 처벌은 없었고, 강 OM 은 QSL card 에 L9AA/portable Chi-I Mountain 서울공대 동계 등반대라고 버젓이 인쇄하여 발송해 버렸었다.

1955년 12월 겨울방학이 시작되자 서울공대 산악반에서 공비토벌이 막 끝난 지리산으로 동계등반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강기동님은 학교 및 체신부와 교섭하여 「HLAA9」이라는 비상연락과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 허가를 얻어냈다.

AREA CORD가 뒤에 표기된 것은 허가부서의 직원이 아마추어무선 지식이 부족하여 HLAA9으로 허가해 준 것으로 생각되며 운용시에는 HL9AA로 사용했다고 한다



HL9AA QSL CARD

그러나 지리산과 서울과의 연락은 여의치 않았고 일본 HAM의 중계로 지리산-일본-서울간의 연락망은 확보되어 산악반 대원들의 활동상은 시사각각으로 이 통신망을 통하여 대원들의 가정과 등산대를 후원하였던 신문사에 전달되어 신문에도 이 활동상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

이렇게 지리산을 다녀온 강 OM 의 갖가지 무용담(?)은 시온다방에 모인 OM 들의 Rag Chew 화제로 많이 등장했다. 그 이야기들을 일일이 읊길 수는 없지만, 한번은 QSO 도중에 남전이 전기공사를 하느라 정전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강 OM 이 그곳 경찰서에 가서 지금 중요한 통신을 수행중인데 정전이 되었다고 말하자, 경찰서장이 곧 남전에 전화를 걸어 30 분간 공사를 중지하게하고 송전을 하게 한 일도 있다 한다. 만일 경찰서장이 그 중요한 통신 내용이 아마추어의 Rag Chew 인줄을 알았다라면 노발대발 하지



1956. 1. 14 HL9AA 지리산 이동운용 HL9AA 베이스 캠프, 강기동



1956. 1. 14 HL9AA 지리산 이동운용.
(좌)문희성, —, 지리산 경찰대장, 김형실, 강기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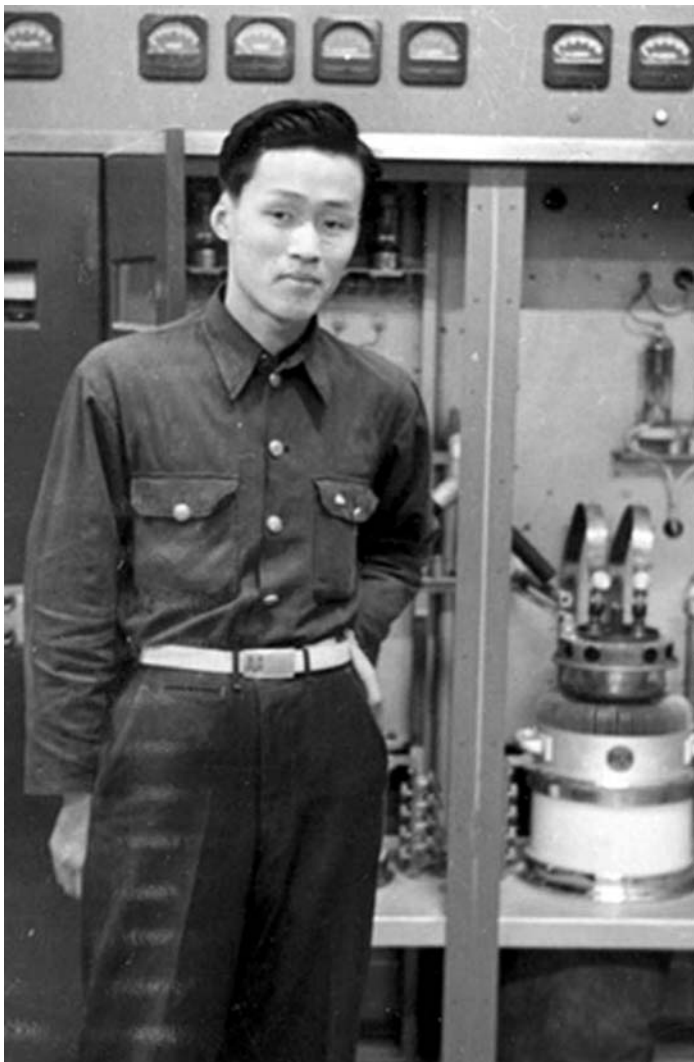


않았을런지...? 합법국을 불법운용을 하던지, 불법국(UC)을 운용하든지 하려면 이정도의
벳짱은 있어야 하는것 아닐까?

이것은 법을 어긴 불법운용으로, Call Sign 조차 HLAA9 을 HL9AA 로 바꿔서 운용한
불법행위였지만, 이 역시 아마추어무선이 개방 되기전에 용감하게 Ham Operation 을 한 것이기
때문에, Ham 들의 눈에는 개척자의 용감한 운용으로 높이 평가 되고 있다.

이런 Episode 를 수 없이 남긴 강기동의 무용담이 점점 식어갈 무렵에, KARL 창립 후 최초의
정기총회를 가졌다. 장소는 서울 대학교 문리과 대학 교양학부 강의실이었고, 일자는 4 월
20 일. 그리고 이에 앞서 4 월 15 일에는 KBS 수원 송신소의 견학이 실시 되었는데, 여기에는
의외로 많은 회원들이 모여, 아침에 열차편으로 서울역을 출발, 수원 역전에서 점심을 먹고 걸어서
수원 송신소에 도착했다. 당시 거이 완성이 되어가고 있던 수원 송신소에는 이인관 이사장님이
먼저 도착하여 미리 와 계셔서, 하루를 정말 뜻있게 보내고 왔든 기억이 아직도 새롭다.





1957 (KARL 30주년 기념호에서)

- 1. 1 KARL지 1월호 발행
- 2. 19 실험국 HL2AJ 허가
- 4. 1 실험국 HL2AI 허가, HL2AK 허가
- 8. 26 실험국 HL2AL 허가
- 10월 ITU/FCC 교신 금지국 명부에서 한국이 빠짐
- 11. 9 임시이사회 개최
- 12월 KARL지 12월호 발행



1957년		
직 위	호출부호	성 명
이 사장		이인관
부이사장		김규한
		김기선
이 사	HL-5001	조병주
	HL-1014	조찬길
	HL-1005	정혜선
	HL-1009	윤은상
	HL-1002	조동인



그 후 1956년 8 월에는 내가 군에 입대하였기 때문에 이때 부터 한동안의 일은 잘 알지 못하겠다. 단지 틈틈이 휴가차 상경하여 여러 OM 들로부터 대강 KARL 이 어떻게 돌아 가는지 이야기를 듣고 알고 지났다. 1957년 4 월경에는 그토록 말썽이 많은 사단법인체화가 드디어 실현되었고, 5 월 13 일에는 HLKA 의 전파를 통하여 아마추어무선에 대한 특집 좌담회가 열려 방송되었다. 그리하여 1957년 6 월 17 일의 제 2 차 정기총회에는 참석할수 있었는데, 이때에 참석했던 회원수는 60 명에 장소는 KBS Hall 이었다.

1957년에 있었던 또 하나의 잊지 못할 일은 체신부에서 7 월 15 일에 계획한 제 1 차 전국 전파통신 관계자회의로서, KARL 에서는 정혜선 OM 이 참석하여,

1. 전파일의 제정
2. 아마추어무선의 개방
3. 단파청취 허가제의 폐지

등을 건의 하였으나 제 3 항의 단파 청취 허가제의 폐지만이 실현되고, 제 1 항, 제 2 항은 좀더 연구 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은 채로 아직 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임에서의 건의 사항이 비록 받아 들여져서 시행될수는 없다 하더라도 당국의 과학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으로 믿으며, 앞으로도 자주 이런 행사가 있기를 바라지만, 아직 까지 두번 다시 열리지 않았으므로 알고 있다.

1958 (KARL 30주년 기념호에서)

2. 1 KARL지 신년호 발행
4. 1 2·3 합병호 발행
5. 24 이사회 소집
6. 22 <제 3 차 정기총회>
7. 15 KARL 배지 제작
- 8 월 실험무선국 QSL QSP 중지령
8. 1 KARL지 8월호 발행
10. 30 아마추어무선전신무선전화 시설 허가(단체국에 한함)
12. 1 12월호 발행



1958년		
직 위	호출부호	성 명
이 사 장		이인관
부이사장		김규한
		김기선
감 사		유병은
		이봉상
이 사		김득풍
	HL-1078	김원후
	HL-1001	이동호
		정규섭
	HL-1002	조동인
		조환길
		심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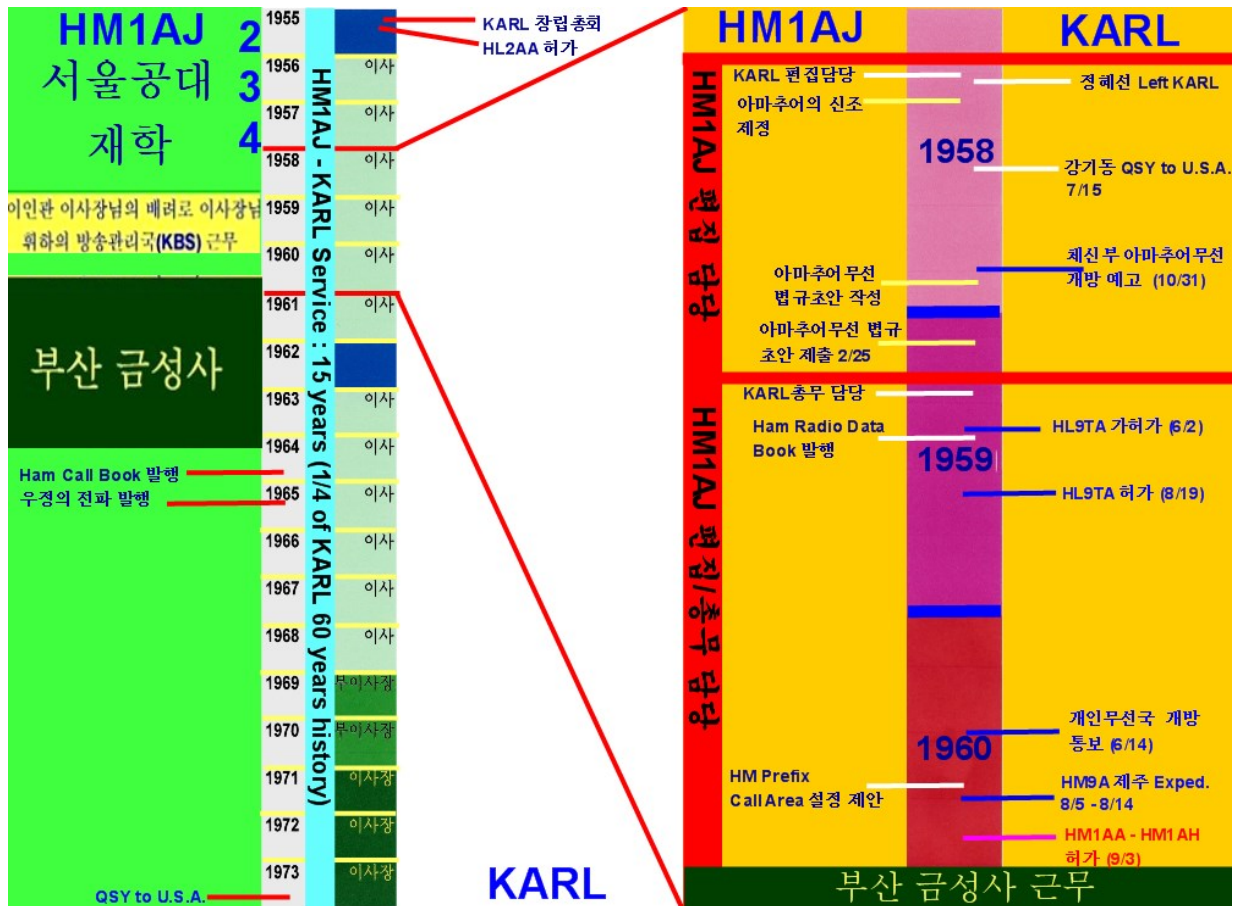


장사동이라기 보다 동대문 시장으로 더 잘 통하는 아마추어들의 천국이 있다. 이제는 청계천을 메우고 새로운 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많이 한산해 졌지만, 그러나 동대문 Junk 상점 앞에서 한시간만 서 있으면 틀림 없이 KARL 회원 하나쯤은 만날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KARL 회원의 출입이 잦으니 KARL 의 사무실을 여기로 옮기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하여 드디어 1957년 11 월 중순에는 KARL 분실이 장사동 동대문 시장 한 가운데에 생겼다. 여기에는 매일 같이 조찬길 OM 과 정혜선 OM 이 붙어 앉아 있었다. 그리하여 조찬길 OM 은 총무, 회계의 일을, 그리고 정혜선 OM 은 KARL 지의 일을 맡았었다. 그러나 언제나 KARL 의 사무에

보수가 지불 되어 본적이 없으니, 이 때도 이 두 OM의 근무(?)는 완전히 무보수의 봉사였음은 두말할 것도 없었다. 그러나 KARL 지의 제 1호, 제 2호, 제 4호, 제 5호의 4 권만이 정 OM이 직접 등사판을 굿었고, 그 후로는 정 OM의 일이 줄었지만, 예나 지금이나 KARL 지의 원고 부족은 KARL 지 편집에 가장 큰 두통거리였다. 다행이도 (본인에게는 미안 한 얘기지만) 당시의 두 OM은 특정한 직장이 없었으므로 하루도 빠짐 없이 KARL 분실에 나와 있었고, 덕분에 시장에 나왔든 회원들이 한 둘씩 수시로 이 분실을 찾을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도 얼마 되지 않아서 정 OM이 직장을 갖게 되어 정 OM이 먼저 분실에서 사라져 버렸고, 한동안 조찬길 OM이 혼자서 이 분실을 지키고 있어야 만 했다. 그때가 1958년 봄.

이런 3년을 보내고, 1958년도 제 3차 정기총회는 예정보다 2개월이나 늦어 1958년 6월 22일에 KBS Hall에서 개최 되었다. 그런데 이 정기총회가 있기 전인 1958년 4월 말경 당시 미국 유학 수속에 한참 바쁜 강기동 OM이 나를 찾아왔다. 지금까지 KARL 지 편집을 맡아 오던 정 OM은 부득이 사정상 KARL 지 편집을 계속 할수 없게 되었으나, 강 OM이나 배명승 OM이나 모두 머지 않아 미국으로 QSY 할 것이고, 조찬길 OM은 총무에 바쁘고, 그전 서울공대 멤버들은 모두 군에 복무중이고....



KARL 지를 맡을 사람이 없으니 한번 해 보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도대체 처음 부터 억지였다. 잡지 편집이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경 조차 해 본 일이 없고, 정 OM이 하는 것을 슬쩍 슬쩍 본 일은 있으나, 이럴줄 알았으면 좀 배워나 둘것을 갑자기 KARL 지 편집을 하라니 정말 난처한 일일수 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아마추어무선국의 면허도 내리지 않은 이 때에, KARL의 가장 큰 사업이 KARL 지를 통한 계몽, 선전, 보급에 있었으니 KARL 지가 안 나간다면 KARL은

그 때 부터 문을 닫아야 하는 신세였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래도 엄두가 나질 않았으나, 자꾸 권하는 강 OM 의 성의와 그때 까지 일해 온 KARL 을 버릴수는 도저히 없어서, 그야 말로 문자 그대로 만용을 발휘 하여 KARL 지의 편집을 맡았다.

그리하여 생전 처음으로 발행 한것이 KARL 11 호 1958 년 7 월호였다. 애당초 KARL 지를 인계 받으며 나는 나대로 목표가 있었다. 즉 (1) 반듯이 월간이 되도록 매월 1 회 꼭 발행 할것. (2) 그러기 위해서는 페이지 수를 줄이더라도 일정 페이지 수가 꼭 꼭 나갈것 (3) 내용은 될수 있는 한 아마추어무선에 관계 있는 기사로 할것. 그러나 실제와 이론은 너무나 차이가 컸다. KARL 지는 내손에 들어온 후에 도 우선 경험 때문에 7 월호, 8 월호를 낸 후에 12 월에 가서야 송년호를 내고, 그후는 아주 끊어지고 말았다. 나는 조찬길 OM 을 들볶았지만, 회비가 걸리지 않는데는 조 OM 도 어쩔수가 없었다.

이렇게 하다가 1959 년 초에 조찬길 OM 도 KBS 춘천 방송국으로 전근되어 내려가는 바람에 총무 일 까지 나에게 넘어왔고, 1973 년 가을에 미국으로 이주 할 때까지, 금성사 부산공장에 근무하던 3 년 반을 빼고는 연맹을 혼자서 이끌어 나갈수 밖에 없게 되고 말았다.

한편 “Ham Radio License 의 박두”라는 뉴스는 벌써 부터 KARL 지상에 발표 되었으나, 언제나 공수표로 License 는 내리자 않은 채로 1958 년 10 월 까지 끌어 왔다. 그런데 10 월 31 일자로 체신당국은 KARL HQ 에 아마추어무선국을 허가해 주겠다고 공문을 보내 왔다. 그래서 조찬길 OM 이 열심히 서류를 꾸며 갖어다 주면, “여기가 틀렸다” “이런 서류를 갖어 오라”등등, 끌고 끌어 다음 해인 1959 년 6 월 2 일 에야 결제가 났으니 만 7 개월이 걸린 셈이다.

그러나 이렇게 한국인에게는 내리지 않았든 아마추어무선국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1956 년에 오산에 있는 미 공군기지에 HL2AM 이라는 호출부호로 허가 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것은 각 학교 실험무선국과 똑 같이 HL2 의 실험무선국 형태였으나, 실험국들은 Oversea QSO 가 금지되어 있는 동안에도 HL2AM 은 예사로 UA(쏘련)와도 QSO 하고, 마치 HL 에서 허가된 단 하나의 HAM 인양 행세했었다. 이러니 우리가 격분하지 않을수가 없었다. 우리에게는 정세가 어떠한지 뭐가 어떠한 하면서 내려 주지 않는 아마추어무선국을 미국인에 먼저 내주고, 게다가 똑 같은 HL2 stn 인데 각학교 실험무선국은 해외교신을 금지 시키고..... 도대체 말이 아니었다. 구 후에 이 HL2AM 은 1957 년 12 월 31 일 부로 QRT 시키고, 다시 HL9KR 로 바뀔으로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HL9 stn 이 탄생 하였고, 뒤이어 HL9KS, HL9KT 가 생겨났으며 HL9KJ 에 이르기 까지 도합 4 개의 미국인국이 생겨 날 때 까지 한국인들에게는 하나도 허가해 주지 않았다는 것은 도대체가 언어도단이며, 사대주의도 정도문제라고 ham 들은 분개하였지만 어쩔수가 없었다. 어떤 OM 은 체신부 전파관리과 공무원은 생리가 다른 모양이라고 투덜 대기도 하였고..... hi hi.

비록 실험무선국 허가는 되어 있었으나, 실험무선국이 있는 학교 학생들 외에는 여전히 전파를 낼 기회가 없었고, 개인 아마추어무선국의 개방이 연맹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수 밖에 없었다.그러던 중 1958 년도 저물어 가던 무렵에 한국 햄들에게는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다. 전세계 어디를 가든 햄 생활을 떠날수가 없는 미군들이 체신부에 어떤 압력을 넣었는지? HL9KA - HL9KZ 의 호출부호를 할당 받아, 군 보조국 (Military Auxilary Radio Station)이라는 명칭하에 미국 군인들에게 개인적인 아마추어무선국이 허가 되었다는 소식이었고, 실제로도 HL9 국들의 전파를 매일 같이 20/15m bands 에서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들은 미국의 햄들에게 Phone Patch 를 요청하여 가족들과 나누는 대화도 수신할 수가 있었다.

이것도 지금와서 깊이 생각해 보면, 한국전쟁에서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여 이북의 침략을 막아주었고, 전쟁이 끝난지 몇년도 안된 때여서, 당시의 한국 실정으로서서는 어쩔수 없었을 것이고, 이것은 체신부 실무자의 손을 떠나 고위층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을 것이며, 미국의 점령하의 폐전국으로 있던 일본에서도 미국을 나타내는 호출부호인 KA Call 로 수많은 미군 아마추어무선국이 역시 군사보조국이라는 명칭하에 운용되고 있었지만, 젊은 혈기의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수가 없었고, “체신부는 대한민국 체신부냐? 미 합중국 체신부냐?” “한국에서 아마추어무선을 하려면 미국 시민권을 먼저 받아야 하느냐?” 등등 흥분을 감추지 못하여, 심지어는 “우리 모두 전파 데모를 하자. 체신부에 사전통고를 하고 일제히 무허가 전파를 내서 잡혀갈려면 잡혀가자!!”고 분을 참지 못하였다.

연맹도 즉시로 체신부에 정식 항의서를 작성하여 강도높게 항의 하기에 이르렀다. 일이 이렇게 전개되자, 체신부에서도 그대로 지나갈수는 없다고 느끼게 되었고, 다음 해인 1959년 봄에, 그래도 아직 개인국은 곤란하지만, 연맹 앞으로 정식 아마추어무선국을 허가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었다.

1959 (KARL 30주년 기념호에서)

- 3월 연맹 HQ STN 무선국 시설원 접수
- 4월 최초의 YL OP 탄생
- 6월 제 4 차 정기총회 개최
- 6. 15 KARL지 7월호 발행
- 6. 20 신임 이사회 개최
- 7. 13 아마추어무선 좌담회 방송 (KBS 제 2 방송)
- 7. 15 KARL지 8월호 발행
- 7. 19 HL9TA 시험전파 발사
- 7. 25 ~ 8. 20 아마추어무선통신사 자격 검정고시 강습회
- 8. 10 HAM Radio Guide book
- 8. 15 KARL지 9월호 발행
- 8. 19 HL9TA 정식 운용개시
- 9. 4 실험국 HL2AP 허가
- 9. 15 KARL지 10월호 발행
- 10. 5 HL9TA 신당동으로 이전
- 10. 15 KARL지 11월호 발행
- 10. 27 59년 제 2 회 무선통신 자격검정 실시
- 11. 5 HL9TA 소개문 20여 국가로 발송
- 11. 15 KARL지 12월호 발행
- 12. 15 KARL지 60년 1월호 발행



1959년		
직 위	호출부호	성 명
이 사 장		이인관
부이사장		김규한
		김기선
감 사		이봉상
		유병은
이 사		김득풍
	HL-1005	정혜선
		심재소
	HL-1008	김동주
	HL-1015	이여은
	HL-1002	이형재
		조동인





그러나 막상 아마추어무선국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려니, 연맹이 가난해서 송수신기를 마련할 돈도 없었고, 중앙우체국 사서함 162 호에 의해서만 운용되어온 연맹이라 무선국을 설치할 장소도 없었다. 결국 이여은 OM(지금의 HL2AK)이 자작송수신기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장소는 당시 서울시장의 아들인 임일명 OM(후일 HM1AG)이 장소를 제공하여, 연맹 이사장 명의로 무선국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고, 몇달의 시비곡절 끝에 드디어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이사장 앞으로 한국 최초의 정식 아마추어무선국 HL9TA 가 허가 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1959년 6월 2일로 한국 무선사에 영원히 남을 날이 되었는데, 체신부가 HL9TA의 호출부호를 왜 선정했는지 모르겠으나, 미군에게 이미 할당한 HL9 과 강기동 OM 이 쓰던 TA 를 합쳐서 만든 것 아닌지? 어쨌든 이래서 한국 최초의 실험무선국이 아닌 정식 "아마추어무선국 HL9TA"의 첫 전파가 유일한 여성 햄이었던 임정혁 YL 에 의하여 전세계로 발사된 것이 7월 19일로, 그때의 감격은 영원히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날의 영광의 operator 들은, 이여은(후일 HM1AK), 임일명(후일 HM1AG), 조요성(후일 HM1AA), 조요운(후일 HM1AB), 그리고 당시의 유일한 여성 햄인 임정혁(후일 HM1AM)양, 그리고 나(후일 HM1AJ)였다.



第九〇六四號

私設無線電話檢定證書

官廳用

施設者 名 私人韓國아마추어無線聯盟理事長

機器裝置場所 서울特別市中區筆洞二街三十二

呼出符號 HL九TA

通信執務時間 不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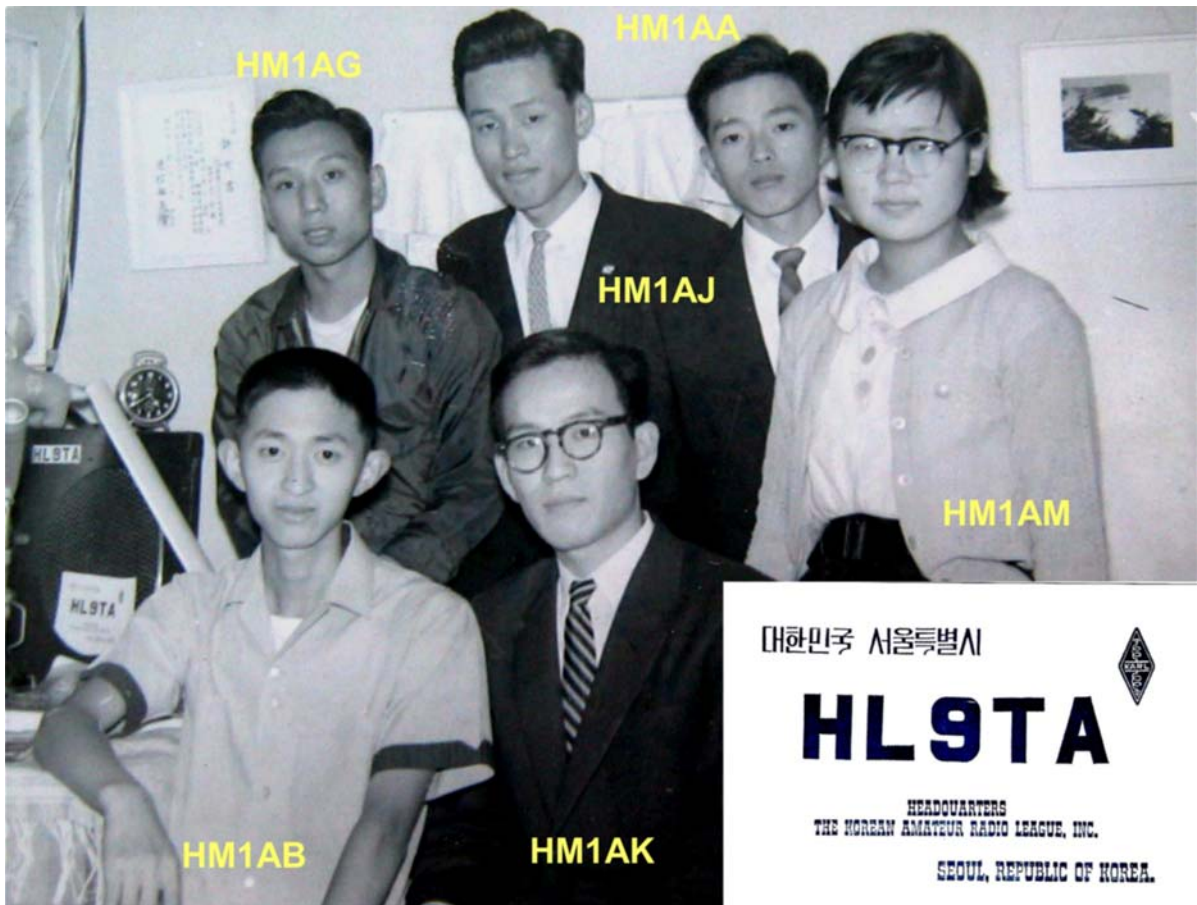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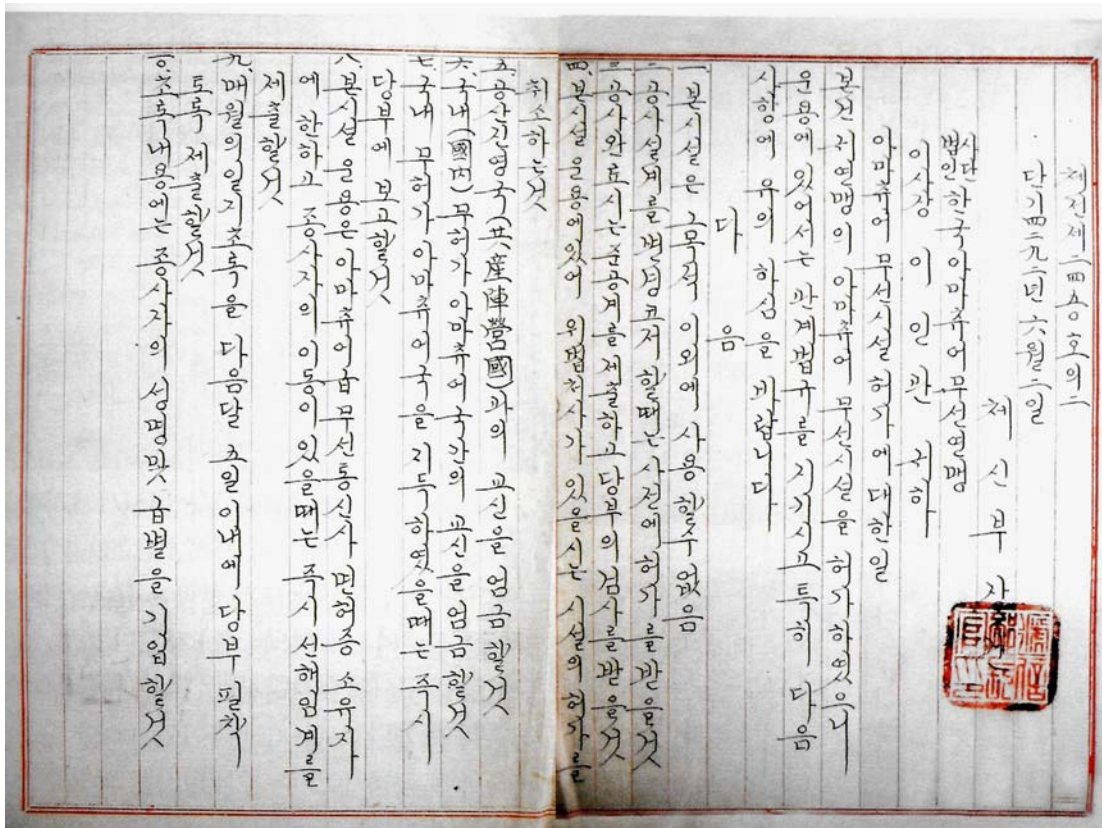
聽守時間

資格限制	線通信士數	第二級아마추어無線通信士
送信裝置方式	水晶制眞空管式	
電源設備	商用電界交流 100V 60%	
空中線電力	103.0W	
送信周波數	103.750-104.000-105.000-106.000%	
受信可能周波數	自 15% 至 18%	
送信裝置方式		
空中線電力		
書間通達距離		
送信周波數		
受信可能周波數		
無線電波位置		
受信可能周波數		
無線電波位置		
受信可能周波數		
無線電波位置		
受信可能周波數		

右私設無線電話의 機器, 그 裝置外 無線通信士의 資格 및 員數는 規定에 適合함을 認定하고, 私設無線電話規則第七十三條의 規定에 依하여 本證書를 交付함. 本證書는 無線電話의 設置 및 運用에 關하여 國際電氣通信條約 附屬 無線通信規則에 規定된 許可書에 該當함을 證明함.

檀紀四三九二年 八月十九日

大韓民國 遞信部長 官



이보다 앞서 1958년 말경부터 아마추어연맹 앞으로 단체국이 허가될거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개인국 허가를 포함한 전면 개방을 위한 정지 작업이 연맹 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우선 아마추어무선이라는 문구조차 없는 일제시대의 유물인 전파관리법에 아마추어무선 조항을 넣어야겠는데, 체신부 아저씨들은 아마추어무선에 대한것을 너무 모르니, 그들이 법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연맹내에 상의할 상대도 없었고, 할수 없이 모든것을 혼자서 만들어 낼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우선 미국, 영국, 일본등지의 전파 관련 법령들을 입수하여, 공대생이 생전에 만져 보지도 않던 법률공부를 시작하였고, 몇달이 걸려 그래도 아마추어무선 법규 초안을 만들어 냈었다. 그 내용은 : 아마추어무선사의 급은 1 급, 2 급, 3 급으로 하고, 1 급과 2 급은 일본의 제도를 모방하였고, 3 급은 미국의 Novice 급을 도입하였다. 그래서 1 급은 전 주파수대에서 전신 전화를 쓸수 있게 하였고 (최대출력 100W, 전신시험 분당 50 자), 2 급은 14MHz band 를 제외한 전밴드에서 전신/전화를 쓰게하였으며 (최대출력 50W, 전신시험 분당 35 자), 3 급은 미국의 Novice Class 를 도입하여 7MHz band 와 28MHz Band 이상으로 하되, 7MHz 는 전신에 한해서 쓸수 있도록 했다 (최대출력 10W, 전신 시험 속도 분당 25 자). 이것은 누구나 손 쉽게 아마추어가 될수는 있지만, 반듯이 전신을 강요하여, 전신을 연습하는 동안에 햄 밴드를 많이 수신하고, 햄계의 상식이나 예의를 배우게 함으로서, 무질서한 햄계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려 한것이였다. 나 자신도 전신을 늦게 배워, 후일 이 규정 때문에 고생을 하였고, 처음에는 2 급 면허를 땀다가, 후에 다시 시험을 보아 1 급 면허를 땀지만, 나는 아직도 이규정을 찬성하고 있고, 일본이 전신 없는 전화급을 만들어, 햄수는 급속도로 늘어났지만 7MHz Band 를 항상 무질서한 전화급 때문에 혼신으로 못쓰게 만들어 외국으로 부터 비난을 많이 받았었다. 요새는 전신이 점점 쇠퇴해져 미국에서도 전신시험이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UN 산하의 국제통신연합인 ITU 규정이 모든 무선통신사는 전신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HL Call 은 우리에게 앞서 미군들이 먼저 활개를 쳐서, 마치 미군이 한국을 대표하는 꼴이 되었고, 불법무선국들이 많이 썼기 때문에, 새 술은 새푸대에 담자고, 당시 한국에 활당 되어있는 HL/HM 중에서 HM Call 을 달라고 우겼고, 연맹에서 일찍 부터 만들어 쓰던 Call Area 를 그대로 써서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오늘날 같이 햄수가 급증할 것은 도저히 생각 할수가 없었기 때문에, Suffix 는 Call Area 가 변해도 (거주지 변경등으로) 변하지 않도록, 전세계에 어디에도 없는 제도를 창안하여 요청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햄수가 너무 늘어났고, 이제는 이 제도를 다시 고려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런 법규를 1958년 말에 작성하여 여러 OM 들의 검토를 거쳐, 1959년 2월 25일에 체신부에 제출하여 여러달 꾸준히 추진하였고, 국회를 통과하여야 하는 전파관리법에 포함시키는데는 1년 이상이 걸리겠기에, 우선 체신부의 시행령으로 포함시켜 대부분을 그대로 시행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었다.

이에 의거하여 1959년 부터 위의 제 1 급, 제 2 급, 제 3 급 아마추어무선 통신사의 자격시험이 실시 되었고, 이런 일을 하면서 한참 데이트를 하던 당시 이화여대 1년생이든 임정혁양을 설득하여 아마추어무선 바람을 불어넣어서 데이트로 만날 때 마다 반년이상을 아마추어무선 교육을 하여 1959년 4월 25일에 들어서 함께 제 2 급 아마추어무선 통신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이르렀었다. 비록 내가 만들어준 문제집을 달달 외워서 이론도 모르고 취득한 면허중이지만, 한국에서 프로를 포함하여 최초의 여성 무선 통신사가 탄생했다고, TV 에도 불려나가고 여러 신문의 인터뷰로 신문기사에도 나고, 일약 유명해 지면서 아마추어무선의 홍보에도 큰 역할을 했었다. hi hi (나는 반년후에 다시 응시하여 1 급 면허를 땀다. hi)



KBS-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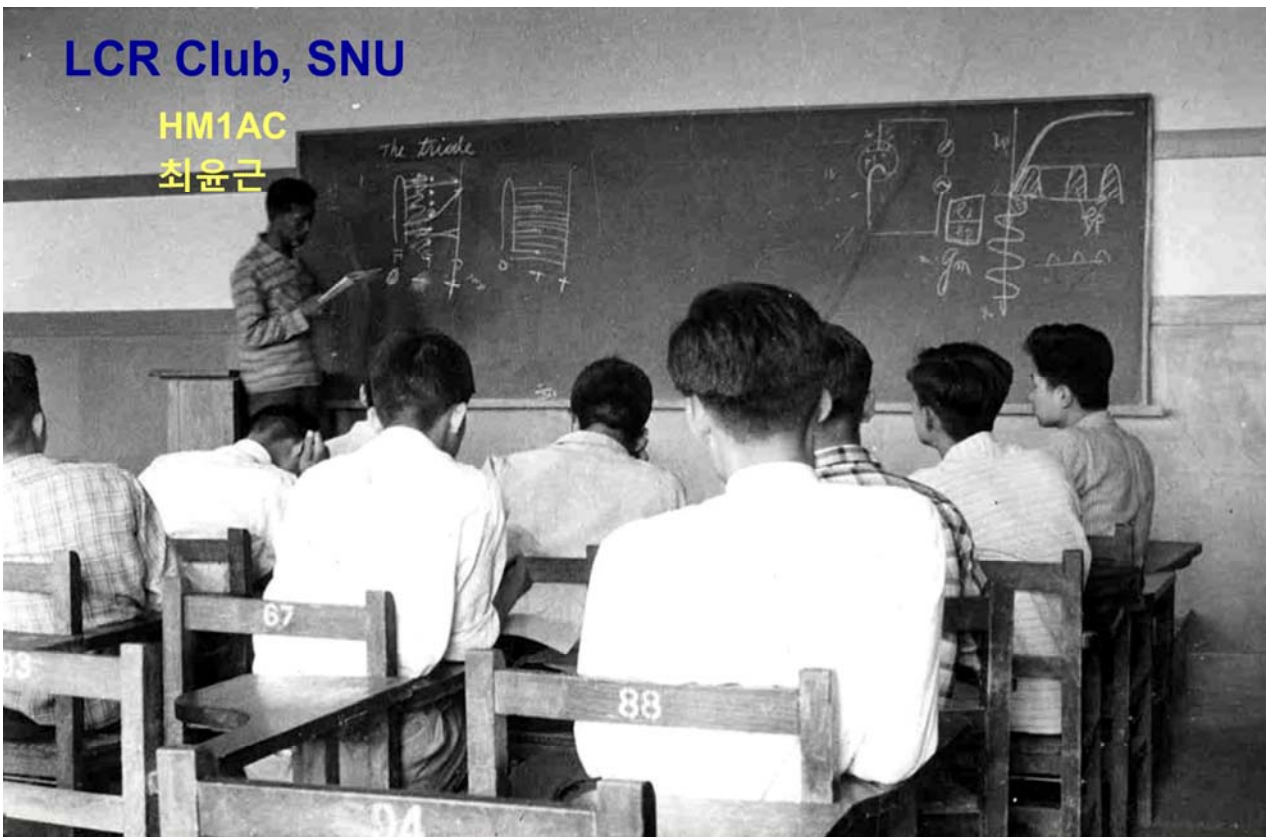
한편 내부적으로는 이것도 미국, 영국, 일본등 여러나라의 Amateur Radio code 를 많이 모아서 “아마추어의 신조”를 만들어 냈고, KARL 지에 매달 게재하여 아마추어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기도 했고, 아마추어 관련 책으로는 처음인 “Ham Radio Guide Book”을 발행 하기도 하였다.. 이런 모든것들을 신공덕동의 서울공대 바로 옆에 있었던 한평 반 정도의 하숙 집에서, 때로는 학교시험을 망쳐 가면서 작성하여, 이 OM, 저 OM 에게 보여주며 의견을 들어가면서 만들어 낸것이 어제 일 같고, 당시 서울공대 내에 제 2 세대 햄들의 모임인 LCR Club 을 만들어, 조요성(후일 HM1AA), 최윤근(후일 HM1AC), 임일명 (후일 HM1AG), 하성한 (후일 HM8CQ)등이 많이 이런 일들을 도와 주었으며, 그외에 KBS 의 윤은상 (한양공대의 HL2AG 창시자. 현재 Houston 에서 KE2X) OM 과 조찬길 OM 에게도 여러가지로 도움을 받았었다

LCR Club, SNU



LCR Club, SNU

HM1AC
최윤근



1960 (KARL 30주년 기념호에서)

1. 23 국제전파회의의 한국 대표단 歸國歡迎會
(대한전파통신협회 및 전파과학사 공동 주최)
2. 10 KARL 분실 설치
2. 15 KARL지 2·3월 합병호 발행
4. 17 중앙공보관에서 제 5 차 정기총회 개최
- 4월 60년도 1회 무선통신 자격검정에 8명 합격
5. 20 5·6 합병호 발행
6. 14 아마추어무선 전면 개방 결정 발표
6. 20 KARL지 7월호 발행
6. 26 HLKA 수원 송신소 견학
6. 27 전면 개방에 대한 건의문 당국 제출
7. 30 KARL지 8월호 발행
8. 5 아마무선 전면 개방기념 제주도 페디션 출발
8. 27 HL9TA→HMφHQ로 변경
9. 3 HM1AA~HM, 5AH 8국 드디어 탄생
9. 20 9·10 합병호 발행
- 9월 60년도 제 2회 무선통신 자격검정 50명 합격
10. 1 HAC 및 WAC AWARD 제정
10. 25 KARL지 11월호 발행
- 10월 pro 통신사 면허증 소지자에게 일부 혹은 전과목 면제 실시
11. 10 1급 : 4, 2급 : 2 합격(아마추어)
11. 11 HM9A를 제 5회 과학전람회에서 이동 운용
11. 25 KARL지 12월호 발행
11. 30 HM9A 과학전 운용에 대한 체신부장관 감사장 받음
11. 30 HMφHQ, HM9A 운용 중지



1960년 5,6		
직 위	호출부호	성 명
이 사장		이인관
부이사장		김규한
		김기선
감 사		이은상
		유병은
이 사	HL-1005	정혜선
	HM1AJ	조동인
		김득풍
	HM1AF	김동주
	HL-1014	조찬길
	HL-1009	윤은상
	HM1AA	조요성
		김동하
		박성조



KARL HQ 에 처음으로 정식 아마추어무선국 HL9TA 가 허가되었던 1959 년도 저물고 1960 년도가 되었다. HL9TA 가 허가된 후에도 일주일도 멀다고 체신부 전파관리국을 찾아가 개인국 허가를 줄랐고, 체신부도 결국 개인국 허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여, 6 월달이 들어서면서 드디어 개인국의 허가신청서를 접수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의 무선국 허가 절차는, 무선국 신청서에 송신기와 수신기의 Block Diagram 과 안테나의 도면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우선 신원조사에 몇 달이 걸린 후에 가허가가 나왔고, 준공신고서를 제출하면 체신부 직원이 실제로 집을 찾아와서 준공검사를 한 후에 허가서가 교부되었었다.

한편 6 월에 접수된 개인국의 허가 신청서는, 경찰의 신원 조사에 여러달이 걸렸고, 9 월이 가까워지면서 곧 허가가 나오게 되었고, HM1AA 의 첫번째 호출부호가 누구에게로 가느냐?가 여러 OM 들의 관심거리였었다. 이것도 결국은 내가 추천하는대로 체신부가 내줄것이기 때문에, 공평성을 기하느라 많은 고민을 하였고, 결국, 한국에서 유일한 무선서적 “전파과학”을 발간하였고, 해방 후에 첫 불법전파를 냈다가 MP 에게 붙들려 갔었던 조요한 OM 을 만형으로 삼형제가 햄이면서, 제일 처음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조요성/조요윤 형제에게 HM1AA/HM1AB 를 주기로 하였고, 형에게 HM1AA 를, 아우에게 HM1AB 를 결정하였으며, 그후 부터는 선착순으로 HM1AC 부터 HM1AH 까지를 지정하여 체신부에 요청하여 그대로 지정을 받고, 9 월 3 일부터 드디어 개인 아마추어무선국이 허가되기 시작하였다. 이날을 기다리기 5 년 남짓!! 한국아마추어무선의 정식 스타트는 이렇게 개인국이 허가된 1960 년 9 월 3 일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아직도 서운한것은, 경제가 허락지 않아, 첫번째 아마추어무선국 신청에 끼지를 못하여 HM1AA call 을 놓친것이 지금도 서운하기 그지없다. hi hi.) 더구나 막상 HM1AA call 을 주었더니 HM1AA 는 Active 하게 On Air 도 안하여, 형보다 훨씬 Active 하게 운용하는 아우에게 HM1AA 를 줄것을 잘못 했나 보다. hi hi

〈표 5〉 연도별 OP고시 합격자 현황

30주년

년 도 별	합 격 자 수	년 도 별	합 격 자 수
1953	2 급 : 1 (강기동)	1968 (1 회)	1 급 : 1, 2 급 : 5, 3 급 : 3
1954	2 급 : 2 (배명승, 김세대)	1968 (2 회)	1 급 : 2, 3 급 : 5
1955	2 급 : 2 (박경중, 이동호)	1969 (1 회)	1 급 : 1, 2 급 : 3, 3 급 : 5
1956	2 급 : 4 (임일명, 이여은, 정동학, 조장희)	1969 (2 회)	2 급 : 4, 3 급 : 16
1958	2 급 : 1 (조요윤)	1970 (1 회)	1 급 : 5, 2 급 : 1, 3 급 : 4
1959 (1 회)	2 급 : 4 (조요성, 조찬길, 조동인, 임정혁)	1971 (1 회)	1 급 : 1, 2 급 : 3, 3 급 : 2
1959 (2 회)	1 급 : 1 (오남제), 2 급 : 5	1972	기록 없음
1960 (2 회)	1 급 : 4, 2 급 : 2	1973 (1 회)	1 급 : 4, 2 급 : 3, 3 급 : 18
1961	1 급 : 4, 2 급 : 7	1973 (2 회)	1 급 : 3, 2 급 : 7, 3 급 : 28
1962 (1 회)	2 급 : 5, 3 급 : 4	1974 (1 회)	1 급 : 6, 2 급 : 10, 3 급 : 34
1963	9 (구 2 급)	1975	기록 없음
1963	1 급 : 6, 2 급 : 8, 3 급 : 3	1976	1 급 : 10, 2 급 : 23, 3 급 : 117
1964	1 급 : 5, 2 급 : 9, 3 급 : 8	1977	1 급 : 20, 2 급 : 70, 3 급 : 314
1965 (1 회)	1 급 : 5, 2 급 : 5, 3 급 : 1	1978	1 급 : 3, 2 급 : 16, 3 급 : 전신 105 전화 635
1965 (2 회)	1 급 : 4, 2 급 : 5, 3 급 : 5	1979	1 급 : 9, 2 급 : 39, 3 급 : 전신 139 전화 699
1966	1 급 : 4, 2 급 : 5, 3 급 : 5		
1967	1 급 : 2, 2 급 : 6		(이후 생략)

이렇게 개인국 허가가 가시화 되면서, 한편으로는 아마추어무선국을 공개 운용하면서 일반 시민에게 아마추어무선을 홍보하기 위하여, KARL HQ 에 이동국 허가를 추진하여 8 월 1 일자로 이동국 HM9A 가 허가 되었는데, 이것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HM prefix 가 허가 된 경우였고, 이와 함께 HL9TA 도 HM0HQ 로 변경 지정 되었다. (이것도 오늘 같이 많은 이동국이 생겨 날 것은 생각도 못하고, 이동국은 색다르게 한자로 하자고 체신부에 제안하여 HM9A 를 지정 받았고, HM0HQ 도 나의 요청을 체신부가 받아들여 지정한 Call Sign 이었다.)

이렇게 HM9A 가 허가 되자마자, 8 월 5 일 부터 8 월 14 일 까지 10 일간, 나와 (후일 HM1AJ), 조요성(후일 HM1AA), 오남제(후일 HM1AD), 임일명(후일 HM1AG)의 네명이 제주도로 원정 운용을 떠나, 한국 최초의 원정 이동 운용을 실시 하였으며, 김영걸 (후일 HM1BB) OM 도 비공식 멤버로 일부만 참가하였었다. (비행기는 비싸서 생각도 못하고, 기차로 목포까지 가서 밤세워 배를

타고 제주에 갔고, 거기서 다시 밤새워 배를 타고 부산으로 와서 기차편으로 서울로 돌아왔다.) 이 기간중, 제주시, 서귀포시, 부산시, 대구시에서 현지 KBS 방송국들의 도움을 받으며 운용하여 (이 때에는 전력 사정이 형편 없어, 100W 국을 운용하는데도 전등불이 깜박일 정도로 전압이 변하여, 방송국의 비상발전기를 빌려서 별도로 발전하면서 운용을 해야 했었다.), 약 30 개 country 와 교신하면서, 개인국 허가가 임박하였고, Call Sign 이 HL 에서 HM 으로 바뀌었음을 전세계에 널리 홍보하고 돌아왔다.

(다음은 KARL 지 1960 년 9/10 월 합병호에 게재된것 중 일부를 생략 했음)

HM9A 제주도 원정기

HM1AA/HM9A 조요성



<p>8 THIRD CLASS (NOVICE) 9 PORTABLE • CLUB</p>	<p>대한민국, 서울특별시</p> <p>HMØHQ</p> <p>HEADQUARTERS THE KOREAN AMATEUR RADIO LEAGUE, INC. SEOUL, REPUBLIC OF KOREA</p>	<p>8 THIRD CLASS (NOVICE) 9 PORTABLE • CLUB</p> <p>OPERATING QTH WAS</p>	<p>EXPEDITION EXHIBITION EMERGENCY</p> <p>HM9A/P</p> <p>OPERATED BY THE KOREAN AMATEUR RADIO LEAGUE, INC. SEOUL, REPUBLIC OF KOREA</p>
---	---	--	---

처음에는 장소로 제주도, 울릉도, 독도등의 안이 나왔으나, 장비등의 관계로 제주도로 가기로 거이 확정이었다. 원래 우리의 계획은 ham 국 허가 문제가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전제하에 HL9TA 를 이동 시키려 했었으나, 조동인 OM 의 대 체신부 외교의 성공으로 또 하나의 이동무선국인 KARL 소속의 HM9A 를 얻게 되었다.

7 월 20 일의 방학으로 준비는 시작 되었다. 참가 대원의 문제는 여러 사람의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였으나, 조동인 OM, 임일명 OM, 오남제 OM 그리고 나의 네명으로 결국 결정이 났고. QSO 는 안하겠지만 김영걸 OM 이 부분적으로 참가하여 도움을 주기로 하였다. 최초의 계획으로 갖고갈 기계로써, TX 엔 20W 짜리, RX 로는 BC-342 및 대원간의 연락용으로 PRC-10 네대, ANT 로는 30m Long Wire 및 5m Vertical 이외에 500W 정도의 발전기를 갖어 가려 하였다. 이 때쯤 원정 일자도 모두 정해져 있었고, 기계준비 및 장비 준비도 만전을 기하려고 동분서주 하였다. 그런데 조요윤 OM 에게 FB 한 TX, 즉 Elmac 의 45W input All Bands Portable TX 를 구할수 있었고, RX 는 본 연맹 회원인 최명덕 OM 의 소유물인 Hallicrafters 의 SX-96 을 최 OM 의 호의로 갖고갈수 있게 되어, 불야 불야 체신부에 기기사용 변경신청서를 8/3 에나 제출하게 되었다.

우리의 본래의 예정은 :

8 월 5 일 : 태극호편으로 서울을 출발 하여 오후 5 시 30 분에 목포에 도착 하는 즉시로 목포에서 운용을 개시하고,

6 일 오전 : 선편으로 제주도로 출발하여, 배에서 on the air 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제주시에 도착 즉시로 on the air

7 일 : 모슬포에서 운용

8 일 : 서귀포에서 운용.

9 일 : 성산포에서 운용

10 일 : 다시 제주시로 와서 운용

11 일 : 선편으로 부산으로 향발. 선상에서 운용이 가능하면 선상 운용.

12 일 : 오전중 부산에서 운용. 오후에 통일호 편으로 귀경.

이러한 스케줄을 3 일에 각 신문사에 배포 완료하였다.

4 일에 모든 기계를 충무로에 있는 전파과학사로 옮기고, 최후의 기계 점검을 했다. 사정상 발전기는 구입하지 못했고, 초단파 송수신기인 PRC-10 도 3 대 밖에는 모이지 않았다. 최후로 모든 장비를 정비하고 나니 대원들 각자의 침구, 의류, 텐트, 고무침대, 판초, 식기, 식량등에 장비와 더불어 짐짝이 12 개가 넘었다. 따라서 ANT 는 30m Long Wire 만 갖고가기로 하고, 일단 짐을 다시 싸서 우리 집으로 옮겨 놓고, 다음날 아침 6 시 30 분까지 오남제 OM 이 오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불과 수일간에 이 모든 설비를 준비 하고 보니 어설픈 점이 많아, 내일 과연 떠날수 있을런지 의심 스러웠으나, 어쨌든 목포까지의 기차표를 사 놓고 보았다.

5 일 아침에 오남제 OM 과 함께 모든 짐을 Taxi 에 싣고 잠깐 동안 군 수사기관과 말썽이 있었으나 곧 해결 되어, 서울역으로 가 보니 벌써 조동인 OM 과 임일명 OM 은 와 있었고, Extra 로 경기고등학교 1 학년생인 김영걸이 와 있었다. 모든 짐을 싣고, 8 시 40 분 기까지에 기차가 떠나는 것을 보고야 이제는 정말 글로나 보고 꿈에나 그려 보고 바다 건너 사람들이나 하는것으로 알았던 것을, 실제로 우리들도 하게 되는가 보다 생각 하니 속으로 부터 안도의 한숨이 각 대원들에게 생기는데 했다. 우리 ham 들만의 전용어를 써 가며 시간 가는줄도 모르게 Rag Chew 에 정신이 팔려, 기차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잠깐 정신을 차려보니 벌써 대전역이란다. 다들 내려서 기념 사진을 몇장 찍고 다시 탔더니 어느 틈에 이리역을 눈 앞에 두고 기차는 달렸다.

꼬맹이 김영걸은 기쁜듯 이리 저리 돌아 다닌다. 이리역이 가까워 옴에 따라 점점 배가 고파진다. 시간도 시간이려니와, 이리공고의 박성근 OM 이 도시락을 싸들고 마중 나왔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리라. 이리역에서 박성근 OM 과 또 기념사진을 찍고 다시 남으로 남으로 내려가니 시계는 어느덧 5시 20분을 가리키고 기차는 목포역에 도착 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갈곳은 단지 KBS 의 HLKN 목포방송국 뿐이다. 목포방송국에 드리 닥치니 아담한 방송국엔 50m 의 Vertical Antenna 가 있음을 감지케 한다. 미리 KBS 의 최고 기술직에 계시는 이인관 이사장님의 지시로 우리를 기다리든 기술과 직원의 안내로 국내로 들어가니, 시간이 넘어서인지 국장, 과장 모두 안계신데, HLKN 국장님은 당시 병환이신데 임일명 OM 을 잘 아는 사이라 조동인 OM 과 함께 국장택으로 가서 인사를 하고 우리의 취지를 설명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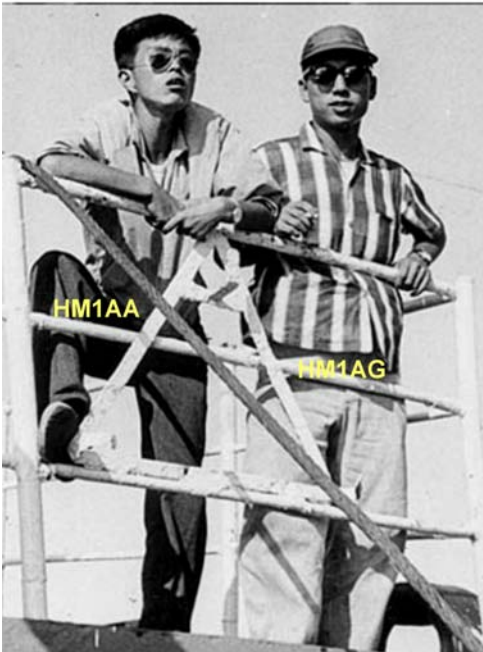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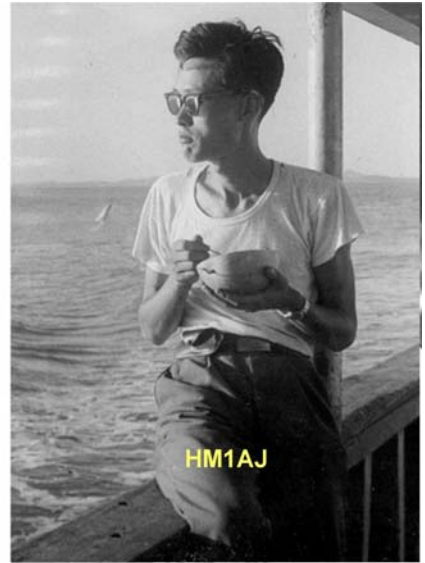
이로서 우리는 콘셋트를 빌릴수 있었고, 텐트는 청사 바로 위에 쳤다. 내가 28m Tower 에 올라가 30m Long Wire 를 즉각 설치하고, 전원을 끌어 오고, TX, RX 들을 풀어 준비를 완료하니 오후 8 시가 되었다. 엄숙한 마음으로 아까 이리를 지나 올 때에 박 OM 의 HL2AP 와 schedule 관계로 RX 를 뒤지니 감도 00. 14MHz 의 상태를 틀어 보니 Good. 조동인 OM 에 의해 8 시 10 분에 CQ 를 내니까 곧 대만에서 BV1USE 가 응답 해 온다. HM9A 를 소개한 뒤에, 내가 마이크를 잡아 BV1USE 와의 교신을 끝내니 40 분이 된다. Sign off 하니 즉각 HM9A 를 불러 오는 강력한 Sig 에 귀를 기울이니 그는 다름 아닌 Top DXer PY2CK 였다.

다음은 임일명 OM 이 마이크를 잡고, 다음은 오남제 OM 이 CW 를 치니 어느듯 자정이 가까워지며 HLKN 의 기술과장이 들어 오신다. 다시 HL9TA 와 HL2AP 와의 schedule 관계로 7MHz 로 내려와 보니 HL2AP 의 신호가 들려 한참 불러 봤으나 응답이 없다. 이에 우리는 전파가 발사 되지도 않는것 아니냐고 이를 측정 하려고 해도 측정기가 없고..... 전전공공하는데 오남제 OM 이 큰 마음먹고 TX ANT 를 부쩍 잡으니 그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전파는 틀림 없이 발사 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날은 우리의 Hope 인 오남제 OM 이 CW 로 교신 한 결과, 총 31 국에 17 countries 의 기록을 갖고 왔다. 의외의 큰 수확이었다. 금년도의 태양흑점계수는 100 을 오르락 내리락할 지경이니 년전의 150 에 비하면 형편 없다는 증거다. 서울을 떠나기 전에 SWLing 을 해보니 Condx 이 형편 없음은 실증이 되었든 터라 큰 기대는 걸지 못했을 망정 실패나 하지 말았으면 하는 정도 였는데, 17 countries 는 정확히 큰 수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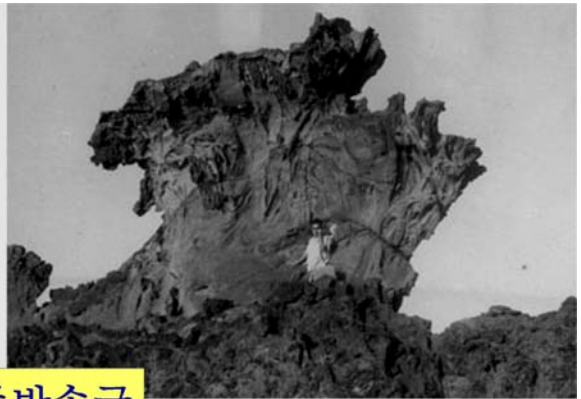
6 일의 먼 동이 밝아 옴에 기상을 하니, 그 때가 아침 6 시경인데도 오남제 OM 의 QSO 는 계속되고 있었다. 전 날의 기차여행에서 지친 여독을 푼 자가 아무도 없었지만, 오남제 OM 의 활약이 너무 심해 그에게 QRT 를 부탁했다. 지난 밤의 수면시간은 대원 평균 3-4 시간 정도이리라. 어쨌든 아침을 먹고 각기 각처로 목포 구경을 나서 1 시경 집합을 했다. 목포는 전형적인 항구 도시로서, 순박한 사람이 이곳에 왔다가 괜히 좋은 인상은 갖지 못할것 같았다.

제주도의 선편은 오후 6 시에 있단다. 본시 듣기로는 오전에 있다고 하여 계획도 그렇게 짰었으나 둘째 날 부터 계획이 틀려지는 셈이다. 1 시에 모두 짐을 싸니 HLKN 에서 우리 HM9A 를 위하여 우리 5 인에게 점심 대접을 한다. 송구 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지만 우리의 빛 날 미래의 목적을 위하여 이정도의 신세는 지기로 했다. hi h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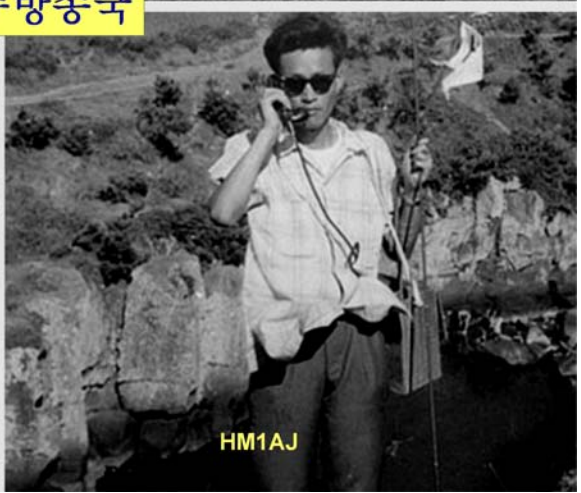
목포와의, 목포의 아름다운 뉴달산과의, 목포방송국 HLKN 직원들과의 석별의 정을 못내 그리워 하며 350 톤급의 정기 운항 여객선 “경주호”는 일로 남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우리의 거실은 선박회사의 편의로 좀처럼 빌릴수 없는 가족실을 우리의 전용 거실로 했다. 이 배에선 on air 를 하자니 AC 가 없고, DC 24V 로 운행을 하니 이곳에서의 기대는 사라졌다. 파도는 예상외로 잔잔하여, 10 시간 정도의 여행은 자못 즐거웠다. 구태여 배에서니 on air 를 주장하자면, PRC-10 에 의한 선창과 선미 사이의 50MHz QSO 일 것이다.



7일 : 오전 3시 40분. 드디어 경주호는 고동을 울리며 제주항에 입항하였다. 즉시 하선하여 그 근처의 하숙집에 들어가 앉으니 모두들 피로의 기색이 역력하고 다들 쓸어진다. 하침 9시경 탐라국에서 이색적인 아침을 마치고 오늘의 계획을 세웠다. 임일명 OM 과 오남제 OM 은 제주도 유일의 회원인 김희주 OM 을 찾아 나섰다. 우리는 제주시 거리를 잘 모르니 그의 안내를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KBS 제주방송국



HM1AJ HM1AA HM1AD HM1AG

HM1AJ



HM1AA

HM1AA



HM1AJ

11 시경, 조동인 OM 과 김희주 OM 그리고 나, 셋은 거처할 장소로서 오현중학교를 찾았으나 모든 시설이 부적당함을 알고, 다시 셋은 HLKS 제주방송국을 찾아갔다. 찾아간즉, 방송국장님은 출장 중이었고, 또 그날이 일요일이었던 관계로 오직 기술과원 권중훈씨가 반겨 맞아 준다. 우리의 목적과 이를 수행 하기 위한 제반 사실을 설명 하자, 방송국 측에서는 모든 편의 제공을 약속했다. 빨리 우리의 짐을 방송국으로 갖어 오라 하신다. 잠시 후, 모든 장비와 대원이 방송국에 도착 하자 방송과장님도 와 계시고, 방송국 측에서는 우리를 환영하는 의미로서 제주시 최대의 음식점에서 점심을 사주셨다. 황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 어찌 할바를 몰랐으나 참았다. 점심후 곧 제주시를 구경하고 방송국에 돌아가니 우리를 위해 콘셋트 하나도 빌려 주었고, 저녁도 준비 되어 있음을 알았다. 어디가서 또 이런 대우를 받으리오.

Ant 는 지상고 38m 의 타워가 있음을 알았고, 곧 임일명 OM 의 노력으로 FB 한 Long Wire 가 깨끗이 쳐졌다. 이곳에서의 QSO 는 오후 8 시 5 분 오남제 OM 에 의하여 W3GHD 와로 시작 되었다. 지상고 38m 에 Noise 가 zero 인 이곳에다 FB 한 RX 인 SX-96 을 연결해 놓고 보니 안들리던 것이 막 들린다. 45W 의 TX 도 정말 K6JD 가 얘기 하듯이 FB 하게 동작을 한다. 500W 의 TX 로도 제주도 전체가 cover 가 안되서 걱정하는 HLKS 의 기술과 직원이 단지 30 x 25 x 25cm 의 작은 45W Input (Output 은 기껏해야 30W?) 로 세계 각국과 전화 이상으로 QSO 가 되는 것을 보고 놀라도 당연 하리라.

8 일 : 2 시 까진 14MHz band 가 좋았으나 시간이 감에 따라 21MHz 가 좋아지며 Europe Stn 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All band 는 HM9A 의 Cheju Island 소식으로 가득 차고 만다. 생애 최초로 맞는 ham 의 희열이 가슴에 벅차니, 이 기쁨을 대원들은 오직 “야!!”라는 감탄사로 표시할 뿐이었다. 우린 중에도 우리 가슴 한구석을 굽는것이 있으니 그것은 아직도 서울과의 교신을 못했다는 점이었다. 서울과 제주는 skip zone 에 있음이 확실한 것이었다.

8 일이 밝는다. 어제 밤 부터의 QSO 는 오남제 OM 의 활약이 아침 8 시가 넘기 까지 계속 되었다. 확실히 올빼미 생활이다. 이제 부터는 잠을 자야 한다. 그러나 모두 기운을 내어, 하침을 방송국 식당에서 먹고 나니 조름이 오는 모양이었다. 낮 12 시쯤 일어나 RX 를 동작 시켜 보니 All band CONDX 이 형편 없다. 이때 쯤엔 서울과의 QSO 를 생각했으나 성과는 없었다. 암만해도 7MHz 가 발사 되지 않는것 같아 (우리가 갖고고 간 TX 는 Elmac Model A-54 로 원래 7MHz 가 없어 우리가 임시로 final coil 을 7MHz 가 되도록 만들어 갖고고 갔음), TX 를 뜯어 방송국에서 coil 을 좀 얻어 더 부가시켜 갖고고 동작시켜, Neon Lamp 를 대보니 멋지게 들어와 안심하고 7MHz JA 국이나 QSO 하자고 자칭 7MHz 전용이라는 임일명 OM 이 열심히 CQ 를 냈으나 응답은 zero. 20W 짜리 Lamp 가 들어올 정도면 틀림 없을텐데 그야말로 이상했다. Dip Meter 도 없어 결국 임 OM 은 서러워 했지만 7MHz 에서의 QSO 는 포기하기로 하였다. (서울에 와서 알았지만 이것은 14MHz 에 동조되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원래의 계획은 금일 오전중으로 모슬포로 떠나 그곳에서 on air 할 예정이었으나, 방송국 사람들의 권유와 그 곳에서는 장소 찾기도 힘들것이고 전원문제도 곤란하다 하여 결국 모슬포 및 성산포에서의 on air 는 포기하기로 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에서 각각 이를 썩 on air 하기로 정했다.

CONDX 이 나쁜 오후는 바닷가에 가서 해수욕으로 지내고 저녁에 다시 와서 6 시부터 on air 를 시작했다. 한 편으로는 연락차 서울을 찾으면서 한편으로는 DX 를 찾으며 2 중성 QSO 를 하는 도중에 저녁 7 시 30 분에 QSO 한 BV1US 가 8 시 20 분에 다시 나와 HL9TA 가 HM9A 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QSP 했다. 즉시 Dial 을 돌렸으나 서울 하고는 skip zone 이라 QSO 가 안되어 결국

BVIUS 의 QSP 로 가까스로 우리의 의사를 HL9TA 에 전할수 있었다. 오늘도 QSO 를 하다 보니 자정이 넘어 9 일이 왔다. QSO 는 계속 되어 아침 6 시에 임 OM 의 LU9DAH 를 끝으로 제주에서의 QSO 는 끝을 맺었다. 결과는 55 국, 21 Countries.

9 일 아침 조반을 방송국 식당에서 먹고 서귀포로 떠날 준비를 했다. 방송국의 호의로 서귀포의 전기 사정이 나쁘다는 이유로 1.5KW 짜리 발전기를 빌릴수 있었으며, 기술과장님은 직접 서귀포행 배스를 방송국 까지 끌어와 우리에게 대단히 편리하게 해주었다. 3 일후에 다시 만나기로 HLKS 직원들과 약속하고 10 시에 출발하여 일로 서귀포로 향했다. 우리가 탄 것이 서쪽으로 가는 서행이라 서귀포를 지나간단다. 지나 가면서 한라산을 보니 참으로 민밀한게 경사각 20 도도 안되어 전파복사에 아무런 지장을 줄것 같지는 않았다. 다만 개미봉의 험준한 바위만이 눈에 거슬렸다. 석다, 여다, 풍다의 제주도를 한눈으로 구경하며 꿈과 같이 아련한 천지연. 우뚝 솟은 절벽은 바다를 위용하는듯, 노래 가락의 소음 서귀포에 도착한것은 오후 4 시가 가까워서였다.



HLKS 기술과장의 말씀대로 우선 HLKS 특파원을 만나 이곳의 이야기를 대체로 들었다. 우선 장소의 사용처로 조 OM 과 내가 서귀포국민학교를 찾아가서 그곳 교장 선생님에게 우리의 목적 및 우리가 하고자 하는것을 말씀 드리고, 교실 사용 허가를 원한즉 거절이었다. 이유는 이곳으로 온 무전여행 학생들의 횡포가 어쩌나 심했든지 일체의 교실 사용은 금지 하는것 같았으나, 간곡한 말로서 겨우 허가를 얻었다. 우리가 원정 나와서 처음 당하는 시련이라 생각 됐다. 그러나 밖을 나와 보니 서귀포 사람들의 우리에게 대한 태도가 어쩌나 쌀쌀하든지 인식을 새로 해야할 지경이었다. 년전에 이곳을 와 봤을 대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사실로 냉정히

생각해 볼 때에 무전여행 학생들이 얼마나 사납게 행동을 했으면 순박한 이곳 사람들의 인심을 이렇게도 무참히 짓밟아 놓았는지? 하는 느낌이 가슴 언저리를 차갑게 하였다.

소마차로 모든 짐을 교실 한구석에다 옮겨 놓고, 높이 20m 정도의 ANT 를 가설했다. RX, TX 의 준비도 마치고 학교의 전원저압을 측정하니 70V. 따라서 변압기로 110V 로 올려 TX 를 동작 시키니 70V 정도로 떨어진다. 이대로 100V 로 변압기로 올려 TX 를 off 하니 RX 에 걸리는 전압이 130V 가 된다. 전원 치고는 최하에 속하므로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on air 를 할수가 없어 발전기를 돌리니 그 때 시간이 6시 20 분이고, 오남제 OM 에 의해 ZL1LM 과의 QSO 성립으로 20 국에 9 countries 인 서귀포에서의 QSO 가 시작 됐다.

제주에 비해 ANT 도 볼품 없고 Power 도 형편 없어 QSO 에 많은 곤란을 받았다. 이럴줄 알았으면, 제주에 그냥 머물러 있을거라고 회한의 소리가 대원들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것도 당연 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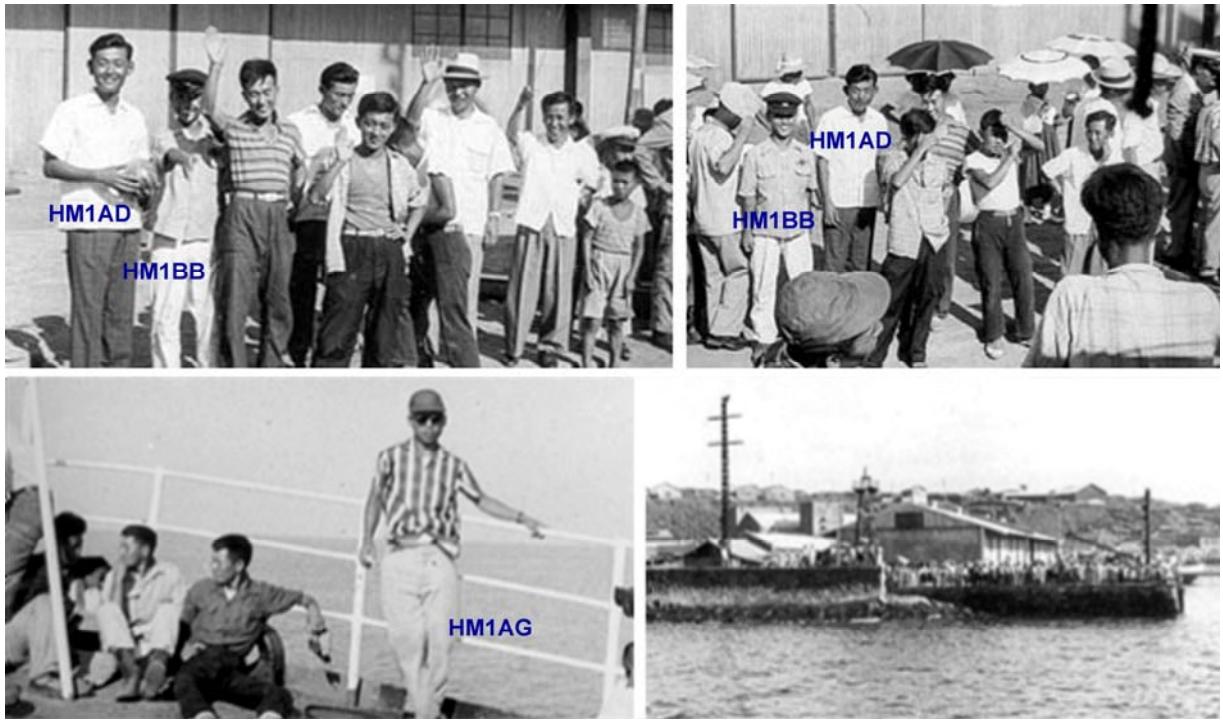


10 일이 되었다, 다들 오래만에 수면 시간을 충분히 취했고 조반을 마쳤다. 이제 부터의 밥은 임일명 OM 의 친구가 이곳에 있어서 거기서 해 왔다. 임 OM 은 취사부장으로 임명 되어 서투른 솜씨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대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RX 를 틀어 보나 RS00. 이에 계획을 변경 하여서귀포 구경을 하기로 하고, 천지연 폭포를 시작으로 웅장 할 때에는 비교가 안되는 정방폭포를 두루 관광 한 후에 해수욕으로 오늘 하루를 즐겼다.

저녁 9 시부터 Rig 에 붙어 앉아 on air 를 하는데, TX 만 on 하면 main power 는 전압이 똑똑 떨어져, 장기를 두고 있던 선생들이 야단이다. 하는 수 없이 다시 발전기를 돌렸으나, 어제 많이 동작 시켰든 관계로 휘발유가 얼마 없다. 제주도는 당시 휘발유의 기근으로 어디서 구할수도 없었다.

오늘 특기할 점은 최초로 본거지 사람과 연락이 되었다는 점이였다. HL9TA 의 OP 는 이어은 OM 이였는데, 최초로 JA6AV 의 중계로 의사소통을 할수 있었으나 나중에는 직접 통신이 가능해 졌다. HL9TA 와의 교신은 30 분 이상을 소비했다. 서로들 기쁨에 넘치는 30 분간이였다. 여기서 우리들의 확실한 일정을 연락 하여 두었다. 즉 14 일에 서울에 도착한다는 것이였다.

11 일 아침이 밝아 온다. 어제 저녁에, 이곳에서 오늘 다시 HM9A 를 운용 할것인가를 의론할 때에 전원 일치의 의견은 오늘 까지의 서귀포 운용은 포기 하기로 하였다. 예상 외로 성과가 부진 했기 때문이리라. 따라서 모두 짐을 싸고 일찍암치 제주행 뱃스에 실어 두었다.



아침 9 시에 일로 제주를 향해 뱃스는 떠났다. 이번은 동행이라 성산포를 지나가게 되는 것이였다 초연한 제주도를 일주하여 제주시에 도착 한것은 오후 2 시경이였고 오는 즉시로 배편을 알아 보니 예상 외로 오늘 5 시에 “이리호”가 부산으로 출항한다. 본시 우리 계획은 “이리호”가 그날 떠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오늘은 제주에서 on air 하고 내일 부산으로 갈 예정이였다. 우선 HLKS 방송국에 우리의 도착을 알려주고, 일단 짐을 부두로 신고 갔다. 김희주 OM 의 점심 대접을 받고 나니 4 시가 넘었고, 모든 승선 준비를 끝내니 4 시 30 분이 되었고, HLKS 의 직원 여러분이 우리를 환송 하러 부두로 나오셨다. 5 시에 닷세나마 정든 탐나를 뒤로 하고 여러분의 환송을 받으며 항구를 떠났다. 부산행인 것이다.

이배에는 조동인, 임일명, 조요성의 셋만 타고, 오남제와 김영걸은 6 시 목포행을 타기로 했으므로 이곳서 우리는 대원도 둘로 나뉘었다

12 일 눈을 떠보니 지평선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선창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만이 들린다. 해맞이를 배에서 하고 오류도가 보이고 왼손쪽으로 부산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8 시에 부산 부두에 도착하니 임일명 OM 의 친구가 우리를 맞아주었다. 우선 짐을 전부 그 앞의 “한국 스퀘트 부산 출장소’ (임 OM 네 회사)로 옮겨다 놓고, 그곳 사원의 호의로 오랫동안 구미 댕기는 아침을 먹었다.

오늘 우리의 숙소는 조동인 OM 의 친척집인 초량동 수원지 부근으로 정했고, 모든 짐을 다시 그리로 옮겼다. Rig 를 설치하고 ANT 는 궁한 길에 전주에서 부터 끌어 왔는데 태반이 양철 채양 밀을 통과 한지라 지상고 6m 에 길이는 20m 가 된다 하더라도 전파가 복사 될런지 의문스러운 ANT 를 설치했다. 아무리 궁리해도 이것이 최적의 ANT 인데는 할수가 없었다. 오후에는 시내 구경을 하고 저녁에 들어가 RX 를 틀어보니 CONDX 은 형편 없다 겨우 임일명 OM 의 KG6AIG 와 조동인 OM 의 KR6AF 가 고작이었다. ANT 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다.

13 일에 일찍 일어나 짐을 쌌다. 오늘 우리의 계획은 우리의 회원이 많은 대구에서 하루를 머물면서 on air 를 하기로 했었다. 본시 이 계획은 서울을 떠날 때엔 생각 지도 않아든 것이었다. 도중에 이왕이면 Demonstration 을 여러 회원 앞에서 해 보자는 의도가 있었다. 오전 10 시에 한국스퀘트 직원의 환송을 받으며 제 8 급행열차로 부산을 떠나 학술 도시 대구에 도착한 것이 12 시가 약간 넘어서였다. 어제 부산서 전보를 친 일도 있고하여 우리 회원인 이동호 OM 을 찾아 남선전기주식회사로 가서 그의 집을 찾아 갔으나 그는 없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의 성품으로 보아 역전에 나왔을 텐데 역에도 만나왔고 집에도 없어 의아스럽게 생각했으나, 우선 우리 회원들을 만나기 위해 회원 명부를 들고 차저다녔으나 대구길이란 이상 하여 몇십집이 한번지 수라서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리 저리 약 3 시간을 집찾는데 조동인 OM, 임일명 OM 그리고 나까지 소비하고서 찾은 회원은 단 하나였다. 그도 없어 그의 형에게 우리의 신분을 밝히고 나중에 다른 회원과 함께 우리의 거처지로 오라고 연락 해 놓고 이동호 OM 집으로 갔드니, 이 OM 이 있었다. 이때에 알게 된것은 우편국 사람의 실수로 13 일 오전 12 시 도착이 14 일 오전 12 시로 되어 전보가 배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곧 Rig 를 차리고 Zig Zag 형 NAT 를 가설 했다. ANT 칠 장소가 마땅치 않아 ANT 는 완전히 꾸불 꾸불 Zig Zag 형이 된것이다. RX Dial 을 돌려 봤으나 CONDX 이 형편 없다. 아마도 ANT 가 형편 없나 보다.

이동호 OM 의 호의로 Beer 와 중국요리로 저녁을 마치니 시원 한 저녁 바람은 우리를 밖으로 유인하여 어쩔수 없이 대구 시내를 돌아 다녔다. 어찌된 일인지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게 한사람의 회원도 나타나질 않았다. 실망은 하였지만 하는수 없이 우리 넷만의 Rag chew 를 갖인후에 잠자리에 들었다.

14 일. 오늘은 우리 Expedition 의 종말을 고하는 날이다. 이동호 OM 은 우리의 FB 한 QSO 를 기대 했는데 실망 해 버리고 말았다. 단지 내가 JA8AQ 와 QSO 한것으로 모든 Operationd 은 끝나고 말았다. 다시 12 개의 보통이를 싸들고 대구역으로 가서 서울행 8 열차를 기다렸다. 이것으로 우리의 Expedition 이 끝난다고 생각하니 서운하기 그지 없다. 이동호 OM 의 환송을 받으며 서울을 향했다. 그간 8 월 5 일에 조동인 OM 으로 시작하여, 8 월 14 에 나로 끝난 QSO 는 21MHz 에서 41 국, 14MHz 에서 67 국, 도합 108 국으로 28countires 와 교신을 했다.

=====

HM9A QSO 기

HL9TA 최윤근 (후일의 HM1AC)

HM9A 와의 QSO 에 관하여 쓰려고 한다면 하나도 쓸것이 없다. 왜냐하면 HM9A 와의 QSO 는 완전히 실패였기 때문에.... 사실은 HM9A 가 서울을 출발 하기 전 날 굉장한 규모로 된 빈틈 없는 Schedule 을 짰다. 배에서 AC 를 얻을수 있으면 배에서도 on the air 하겠으니 그 때도 서로 QSO 하도록 하자는 등.... 오전에는 주로 QTH 를 QSY 할 예정이니, 오후 2 시 이후 오후 6 시까지는 주로 14Mc Band 에서, 오후 6 시 이후는 주로 7Mc Band 에서 매 30 분 마다 5 분씩 서로 Calling 하고 Watch 하여 보자는 등, 주파수 까지 정해 놓았든 것이다.

이 쪽에 남있는 OP 는 Domi(이창화), Kim(김기홍) 그리고 Bob(최윤근). 우리는 워낙이 제주도로 떠난 OM 들에 비해서 YB 들이라서, 혹시나 기술 부족이라 HM9A 에 대해서 충분한 HQ 노릇을 못할까 염려하여, 셋이서 열심히 시간 담당 Schedule 을 짜 놓았다. 이 같이 약속과 계획은 빈틈 없이 짜여져 있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HM9A 와의 QSO 는 꿈에 본 떡 마냥, 어떤 날 12 시경 14Mc Band 에서 번개 같이 만났다가는 Fade Out. 이야기 몇마디 못하고 말았다. 그후에 BV1US 의 QSP 에 의하여 간신히 대원들의 안부정도만 알수 있었을 뿐, 전혀 소식이 깜깜. 이렇게 싱겁게도 HM9A 와의 QSO 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Portable Xmitter 가 7Mc 전파를 내지 못한 줄은 모르고.... 하여튼 간에 뭐니 뭐니 해도 HM9A 와의 QSO 는 실패 했지만, 여기 서울에 남아서 HM9A 를 찾기 위해 고생한 고생담을 해야겠다.

우선 먼저 지금 HL9TA 가 설치 되어있는 방의 구조부터 얘기 해야겠다. 방의 면적은 서울 시내 간수로 꼭 한칸. 이 좁은 방안에 창문이라고는 약 0.5m 평방 정도의 유리 창문 하나 밖에는 없는데, 그나마 밖에서 옆집 담장에 의하여 가로 막혀있어, 하늘이 한점 보일락 말락. 바람이 한점 들어 올락 말락. 게다가 ANT Feeder 도 유리창의 한 모퉁이를 깨트려, 그사이로 나가고, 안에는 책상이 하나 있고, 그옆에 TX, TX 위에 RX 가 놓여있다. 그리고는 사방이 딱딱 막힌 어두운 더운 방이다. 물론 출입하는 문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바람을 기대할수는 없는 것이었다. 이토록 완전하게 Shielding 된 방이다. 이런 방에서 거진 일두일 동안 829B 두개로 된 난로를 앞에 놓고 지냈으니, 여름에 좋은 보신운동(?)을 했다고 생각해 두는것이 마음이 편하겠다. 이방에서 이루어진것은 HL2AP, HL2AH, HL2AI 들 실험무선국들과의 Rag chew 밖에 없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HL9A 의 신호를 잡으려 7, 14 Mc Band 를 이잡듯이 샷샷히 뒤져도 안들리드라. hi hi.

"오늘은 어떻게 만나게 되겠지" 하고 나가서는 HL2 station 들과 Rag Chew 만 하다가는 걸상에서 물은 안나오리오 만은 엉덩이가 바지 까지 축축하게 젖어 갓이고는 투덜거리면서 밖으로 나온다. 행여나 형의 소식을 들으려나 조요성 OM 의 동생 조요운 OM 도 집에서 밥을 먹다 말고 HL9TA 의 Signal 을 잡고는 밥을 입에 문채 HL9TA 로 달음질 쳐 왔으나, HL9TA RX 에는 감이 도무지 없었다. 수신기 얘기 좀 해야겠는데, 이름만 BC-1004 이지, 내용은 0V1?(hi SRI). 게다가 stand-by 에서 ON 하면 의례히 입을 다문다. 이런 때는 옆구리를 주먹으로 한대 쥐어 박으면 그때야 썩-- 하고 입을 여는 것이다. 아마 수신기도 밀의 TX 가 뜨거워 줄았음인지? 이쯤 되면 자연히 OP 는 줄음이 오고 배가 고파 밖으로 나오면 밤 9 시를 훨씬 지나 10 시에 육박하고 있다. 그리고는 뺨스를 타고 일약 집으로....

그후 제주도 갔다온 OM 들 만나서는 내가 제주도에 갔었던것 처럼 신이 나서 더들기는 했지만 말이다. 여러분 안녕.

지금의 OP들이 옛날의 언젠가 이런 악조건 속에서 고생한 일이 있었다는것을 상상이나 할수 있을런지? 그러나 그때는 어떤 고생을 해도 그저 자유롭게 ON AIR 를 할수 있다는것 만이 신이 나서 이것을 고생으로 느끼지는 않았고, 오히려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다.


이렇게 하여 한국의 아마추어무선이 1960년 9월 3일을 기하여 전면 개방되면서, 한국 아마추어들의 본격적인 활약이 개시되었고, 세계적으로 HM Call 은 많은 인기를 끌게 되었다. (HM 의 Call 만으로도 최소한 10db 의 Gain 은 있다고 했었다. hi) 특히 HM call 중에서도 DX QSO 를 하는 국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인기는 대단하였고, 초기에 Dxr 로 활약한 OM 들로는 HM1AB, HM1AD, HM1AJ, HM1AP, HM4AQ (전북 이리시), HM1BB 가 대표적이었고, HM1AD, HM1AP 는 주로 CW 로, HM1AB, HM4AQ, HM1BB 는 Phone/CW 양쪽으로 active 하였으며, CW 에 익숙지 못한 나는 Phone Only Station 으로 DX 와 함께 JA service 를 많이 했었다.

REPUBLIC OF KOREA

HM1AA

P. O. BOX 1288, SEOUL. OP. JOE


8: THIRD CLASS (NOVICE)
9: PORTABLE
0: CLUB



REPUBLIC OF KOREA

HM1AE

RADIO HM1AJ 1 HRD-UR-SIG CONFIRMING OUR QSO
ON 14 MC AT 33 KST GMT ON 25 Mar 19 61
CLG/WKG UR CW FONE SIG WAS R 5 59 T
CONDX TX 829B 80 W
RX 80779 ANT 9 P
RMKS QSL for FB QSO C. U. Agn.
QTH _____
OP Cara VY 7308 FB DX 2 UI CU AGN




HM1AB

YO YOON CHO
P. O. BOX 1288
SEOUL, KOREA

TAEGU KOREA 53

RADIO HM1AM
CONFIRMING OUR QSO ON 14 MC
AT 645 KST GMT
ON 12 May 19 61
UR CW FONE SIG R 5 59 T



T X 807 single W
R X Hollington 5-76
ANT Y. 2. Doublet
RMKS MNI T. N. B. First QSO

HM5AH

OPR: DONG HO LEE PSE TNX QSL 73
OTH: BOX 15, TAEGU, KOREA



KARL
FOR AMATEUR RADIO

56
1962

第8卷 第4號

通卷43號

KARL
FOR AMATEUR RADIO

10
1962

第8卷 第6號

通卷45號



HM1AJ



社団法人 韓國 아마추어 無線聯盟 發行



HM1AM



社団法人 韓國 아마추어 無線聯盟 發行

RADIO _____ NO _____ THX QSO ON _____ MC _____
 DATE _____ 19 _____
 TIME _____ KST
 AM / CW / SSB _____
 R _____ 5 _____
 T _____ 73 _____

HMIAJ

TX: _____
 W _____
 ANT: GP / FD _____
 RX: _____
 PSE / MNI THX. QSL 趙東滿 CHO DONG-IN
 DIRECT OR VIA KARL 大韓民國斗壹轉別市 MIADONG 559-
 CENTRAL BOX 162, SEOUL, KOREA 城北區德阿洞 559-8 SEOUL, KOREA

— SEOUL — KOREA —

KARL **HM1AM** YLRL

IM JUNG-HYUK
 BOOKAHYUNDONG 1-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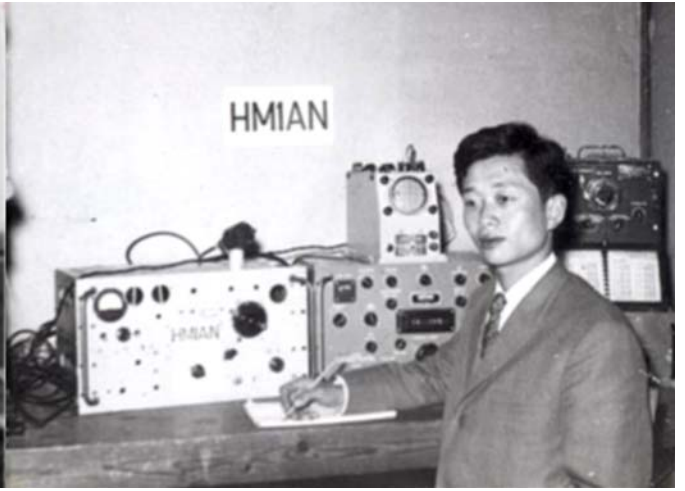
RADIO HM1AJ CONFIRMING OUR QSO ON 14 MC AT 22:17 KST (GMT+8H30M)
 ON 7th May 1961 UR FONE CW WND SIG R 5 S 6 T CONDX FB
 TX 2E20 W RX BC-348 ANT FD
 MOD 6A95 PP PSE THX QSL DIRECT OR VIA KARL YY 73 AS FB DX! CU AGN DE Jm



HM1AJ
 SEOUL OM: CHO DONG-IN
HM1AM KOREA
 XYL: IM JUNG-HY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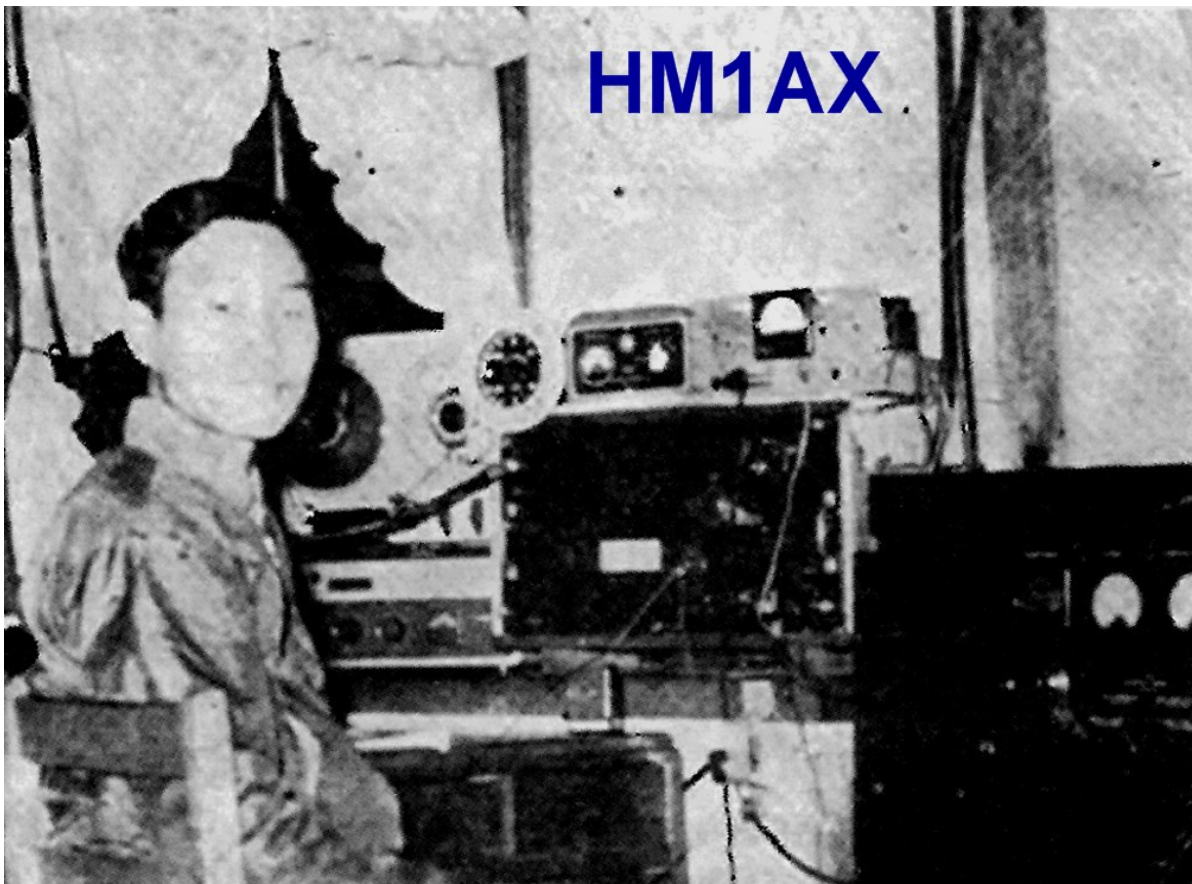
HM1AJ
 SEOUL OM: CHO DONG-IN
HM1AM KOREA
 XYL: IM JUNG-HYUK



HM1AT



HM1AX





KARL

FOR AMATEUR RADIO

3
1964

第10卷 第2號

通卷53號



HM1CC & HM1CA



社団法人 韓國 아마추어 無線 聯盟 發行

Korea's First Woman Radio Ham Has Worldwide Circle of Friends

By DAE-KI MIN

Mrs. Jung-hyuk Cho is a 28-year-old ordinary housewife in Seoul, usually busy keeping house, but she is not so housebound as many other housewives, to say the least.

In the early morning and late evening, when she has leisure time, Mrs. Cho can afford to follow her "own" schedule, that is to exchange greetings and chat with her friends.

All this takes place within her own home, however.

She enjoys an unusually wide-range circle of friendship, with most of her friends living in foreign lands. In fact, it matters little to her how far away they are for she is connected to a grapevine around the globe.

All this is intriguing but is easily explained. Mrs. Cho has an unusual hobby.—She is an amateur radio operator with a 50-watt short-wave sending-receiving set in her home.

Mrs. Cho is better known to the short-wave fraternity as HM1AM, these being her call letters. Moreover, she is the first woman to become a ham in Korea.

She and her husband, who is also a ham (HM1AJ), have so far made contact with about 1,000 amateur operators in 64 countries. She took up the hobby in 1957.

"It was when I was a sophomore in college," recalled Mrs. Cho, "that, for the first time, I sent to my future husband the code message '73' which means 'My Love to You.' She was then living in Ahyon-dong and Dong-in Cho was living in Mia-dong, two places several kilometers apart.

She picked up the hobby, with which "I am now charmed as much as with my husband," at the persuasion of Mr. Cho said she.

"It was foolish of me to set the date for our marriage over the radio," she remin-



Korea Herald Photo

HAM ON THE AIR — Mrs. Jung-hyuk Cho is an ordinary busy housewife in Seoul, but her unusual hobby enables her to have friends around the globe. With the call letters HM 1 AM, she is the first woman to become an amateur radio operator in Korea.

isced, saying that they were overheard by fellow hams. "But it was a pleasant experience," she went on.

Mr. Cho had a memorable experience of his own. It happened that during a trip to Japan in 1963, he found himself without money in the heart of Tokyo.

However, he was able to get out of his difficulty by telephoning one of his Japanese ham friends. "He responded promptly although we had never met," Cho said.

HM9AZ is Cho's call sign which he uses while traveling with portable radio equipment.

"If you contact a ham in Brazil in the evening, you have to make sure that you greet him with 'Good Morning,'" Mrs. Cho said.

It is also important to realize that people in the southern hemisphere are having winter while we are in the height of summer here, they said.

Currently there are about 90 licensed amateur radio

operators in Korea, affiliated with the Korean Amateur Radio League. Most of these, including Minister Kyong-won Park of the Communications Ministry (HM1EP), live in Seoul.

A prospective candidate for the radio operator's license is required to pass the amateur class radio test, given biannually by the Communications Ministry. He is then given a call sign, plus a station designation.

One can get a start in this hobby with about 30,000 won, the amount necessary to buy a wireless set composed of a receiver transmitter and antenna.

Throughout the world, there are about 400,000 hams, including 40,000 in Japan and 250,000 in the United States. They range in age from seven to 65.

Korean hams, when communicating internationally, use primarily English and the International Morse Code, but here at home they use Koreans.

한편 HM9A/p 를 통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힘을 들여, 1960 년 11 월에는 경북궁에서 열렸던 과학전람회에 HM9A/p 가 이동 전시 운용됨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아마추어무선이 일반 국민들 앞에 선을 보였고, 과학전람회를 보러온 수많은 관람객들로부터 대단한 인기를 끌었고,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OP 들이 마음대로 외국과 교신하며 잡담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였었다. 이 전시회에는 HM1AB, HM1AC, HM1AF, HM1AJ, HM1AK, HM1AP, HM1AY, HM1BB, HM8CQ 등 제 OM 들이 수시로 교대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았었다.

1961 (KARL 30주년 기념호에서)

1. 5 KARL 지 1월호 발행
- 1월 KARL 배지 제작 판매
3. 1 2·3 합병호 발행
- 3월 IARU 가입 수속 개시
3. 27 KARL 지 4월호 발행
4. 9 제 6 차 정기총회 개최
5. 6 KARL 지 5월호 발행
6. 5 KARL 지 6월호 발행
6. 19 IARU 가입 신청
7. 5 KARL 지 7월호 발행
8. 18 HM1AV 까지 무선국 허가
9. 25 8·9 합병호 발행
9. 27 ~ 30 61년도 검정시험 1급 : 4, 2급 : 7 합격
10. 20 KARL 지 10월호 발행
10. 25 KARL 분실, 무교동 중앙상역내 설치
11. 1 ~ 30 무선통신사 등록
11. 15 KARL HQ 에 도서실 마련
12. 9 IARU 가입
11. 27 ~ 12. 10 경북궁내의 과학전람회에 HM9A 운용
12. 25 KARL 지 12월호 발행
12. 30 전파관리법 시행령 공포

1961년 5월		
직 위	호출부호	성 명
이 사장		이인관
부이사장		김규한
		김기선
이 사	HM1AJ	조동인
	HM1AH	이동호
		윤은상
	HM1AA	조요성
	HM1AP	조병주
		김동하
		이형재
		김현옥
	HM1AF/2	김동주
	HM4AQ	박성근
	HL-1014	조찬길



1962 (KARL 30주년 기념호에서)

- 1. ~ 5
~ 13 한미고등기술학교에서 OP 강습회
- 1. ~ 31
2. ~ 17 독도 - pedition
- 1. 15 KARL지 1월호 발행
- 3. 10 전파관리 시행령 공포
- 3. 30 KARL지 2·3월호 발행
- 4. 22 KBS Hall에서 제 7 차 정기총회
- 4. 25 KARL지 4월호 발행
- 5. 27 임시 뉴스 발행
- 9. 25 9월호 발행
- 10. 25 10월호 발행
- 12. 26 TV에서 Ham 선전
- 12. 31 KARL지 12월호 발행

1962년		
직 위	호출부호	성 명
이 사 장		이인관
부이사장		김규한
		김기선
감 사		이봉익
		유병은
이 사	HM1AH	이동호
	HM1AS	이광수
	HM1AP	조병주
	HM1AA	조요성
	HM1AL	김세대
	HM1AN	김태욱
	HM1AU	정정덕
	HM1AW	전하국
	HM1AB	조요윤
		지재소
	유춘빈	



HM9A/p는 그후에도 아마추어무선의 홍보활동에 큰 역할을 하였고, 1962년 2월에는 HM1AA 조요성(당시 서울공대 4학년), HM1AS 이광수(당시 한양공대 2학년), HM1BK 박종웅(당시 휘문고교 2학년), HM1AU 정정덕(당시 서울 사대 2학년)군 그리고 HM1AW 전희국이 해군의 지원을 받아 독도로 이동운용을 하여, JA 들이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 독도가 우리 땅임을 과시하여 매스컴에 크게 보도되었었다.

이 Expedition 에 사용된 Rig 는

송신기 : Johnson Viking II (3.5 - 28MHz, 출력 CW-150W, AM-120W)

자작 VHF 송신기 : CW-30W, AM-20W)

수신기 : Hammerland SP-600

Transceiver : PRC-6 - 2 대

안테나 : 14MHz 전용 Ground Plane, Long Wire - 3.5, 7, 21, 28 MHz

발전기 : 2.5K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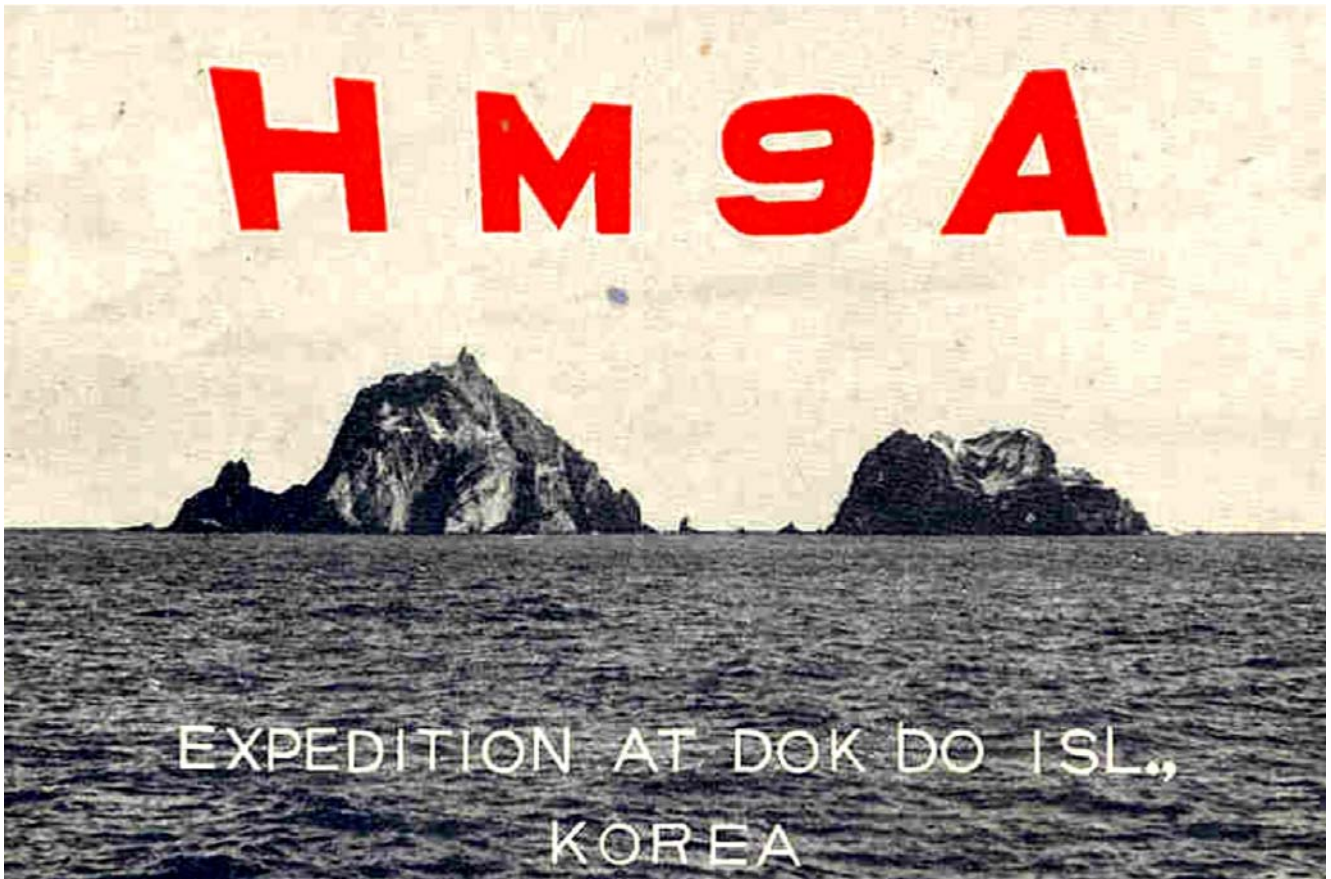
이 Expedition 의 대장이었던 HM1AS 는 수기에 이렇게 적었다.

“2 월 1 일 16:30 우리 일행이 승선한 65 함은 시속 18 노트의 속도로 독도를 향하여 진해항을 출발 하였다. 여기서 특기할 사실은 HM9A 가 한국에서 최초로 함상에서 Maritime Mobile 을 운용했다는 사실이다.

“CQ CQ CQ Here is — Maritime Mobile HM9A Korea calling...”

CQ 가 끝나기가 무섭게 불러오는 무선국은 Norway 의 LA5VB 였으며 HM9A/mm 의 신호는 R-5 S-9 이라고 전해왔다. 한국 최초의 mm 운용에 최초의 교신국이 DX stn 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기는 왕성했고 LA5VB 에게 우리의 원정계획을 알리고.....”

2/1 - 2/19 의 19 일간의 Expedition 에서 교신한 기록은 36 Country 에 569 Stations. 그들은 :
JA 254 VK 98 W/K 12 KR6 28 ZL 20 DU 14 9M2 12 등등..



1963 (KARL 30주년 기념호에서)



- 4. 14 KARL NEWS 발행
- 5. 5 제 8 차 정기총회 개최
- 5. 25 5 월호 발행
- 6. 26 6 월호 발행
- 7. 25 7 월호 발행
- 8. 5 ~ 20 한국TV 학원에서 강습회
- 8. 11 ~ 15 HM9A/P 대천에서 운용
- 8. 19 3.5MC대 개방
- 8. 25 8 월호 발행
- 9. 11 ~ 30 제 9 회 과학전람회 운용 (경북궁) - HM9A
- 12. 20 12월호 발행
- 12. 27 아마추어무선기사<구 2급> 임시고시시행 - 9명 합격

1963년		
직 위	호출부호	성 명
이 사 장		이인관
부이사장		김규한
		김기선
감 사		이종익
		유병은
이 사	HM1AH	이동호
	HM1AS	이광수
	HM1AP	조병주
	HM1AL	김세대
	HM1BX	서정욱
	HM1AN	김태욱
	HM1AW	전하국
	HM1AB	조요운
	HM1AY	황동일
HM1BI	최강림	
특별회원		조창길
지방이사		
부산	HM5AJ	조동인
이리	HM4AQ	박성근
인천	HM2BD	이상희
영월	HM1AF	김동주



1964 (KARL 30주년 기념호에서)

- 1. 20 1월호 발행
- 1. 25 HM&HL9 천목 헬스티발
- 2. 5 IARU 신규 가입 국가
- 4. 25 신문회관에서 제9차 정기총회 개최
- 5. 12 신임 이사회 개최
- 5. 15 KARL NEWS 발행 (8면)
- 5. 30 HM-HL9 천선 파티(Korea House)
- 6. 8 계엄령으로 이동국 허가 업무 중지
- 6. 20 KARL 지 7월호 발행(통권54)
- 7. ~ 27 전파과학사에서 3급 OP고시를 위한 강습회
- 8. ~ 8
- 8. 1 독섬에서 HM9A/P 운용
- 8. ~ 2 HM9A 제주도 현라산 이동 운용
- 8. ~ 12
- 8. 5 전파과학사에서 AAA상 제정
- 8. 15 KARL NEWS 발행 (4면)
- 9. 1 KARL 55권 9월호 발행
- 9. 11 HM9A 과학전람회에서 공개 운용
~30 (On-Air는 17일까지)
- 9. 14 체신부에 건의문 제출
① 미국과의 상호운용조약 체결 ② 법 개정
- 9. 15 8월 시행 OP고시에 1급: 5, 2급: 9, 3급: 8
모두 22명 합격
- 10. 1 KARL NEWS 발행 (4면)
- 10. 3 사무실 이전 (세종로 77번지로)
- 10. 15 HL9KC 명예회원 추천
- 11. 10 KARL 11월호 (56권) 발행
- 12. 5 KARL NEWS 발행 (4면)
- 12. 26 HMφHQ 재개국

1964년		
직 위	호출부호	성 명
이 사장		이인관
부이사장		김규한
	HM1AQ	박성근
감 사		김기선
		유병은
이 사	HM1AJ	조동인
	HM1AH	이동호
	HM1AP	조병주
	HM1AS	이광수
		조하윤
	HM1AN	김태욱
	HM1AL	김세대
	HM1BA	박정양
	HM1CI	계수성
		한기영
	HM1AF	김동주
	HM2AO	서상무
HM5BF	김동호	



1965 (KARL 30주년 기념호에서)

1. 10 실무자 미팅 부활
1. 19 전파관리법 시행령 개정 공고
1. 30 KARL (57권) 1월호 발행
2. 25 전파과학사에서 HM9A 및 HM ϕ HQ QSL 증정
3. 15 KARL (58권) 3월호 발행
3. 27 이사회 개최
4. 2 KARL NEWS 발행 (4면)
4. 11 제 1 차 AAA 상 심사
4. 17 중앙공보관에서 10차 정기총회
5. 1 KARL NEWS 시험 발행호 41페이지 발행
6. 1 KARL NEWS (11권 4호 통권 60호) 16페이지 (인쇄로는 첫번째의 KARL 뉴스)
6. 23 EX-HL9KA CONWAY 증장으로부터 HM ϕ HQ Rig 인수식
7. 1 7월호 발행 (11권 5호 통권 61호)
7. 10 OP 자격고시 본고시 합격자 발표 (1급: 5명, 2급: 5명, 3급: 1명)
7. 12 HMA, ASA 발행 개시
8. 1 8월호 발행 (11권 6호 통권 62)
8. 10 KARL 배지 판매 개시
8. 25 이동아마추어국 허가 재개 공문 접수
8. 26 우정의 전파 발행 (전자기술사 발행)
9. 1 9월호 (11권 7호 통권 63)
9. 20 OP 자격 예비고시 합격자 발표 1급: 2, 2급: 5
9. 28 HM ϕ HQ ITU 100주년 기념식장에서 공개 운용
10. 31 (25Country 400 교신)
10. 1 10월호 발행 (11권 8호 통권 64)
11. 1 11월호 발행 (11권 9호 통권 65)
11. 5 이동국 허가 재개후 최초의 개인 이동국 HM9AB 및 HM9AJ 허가
12. 1 12월호 발행 (11권 10호 통권 66)
12. 20 체신부장관 KARL에 감사장 (공개이동으로)

1965년		
직 위	호출부호	성 명
이 사장		이인관
부이사장		김규한
	HM1AQ	박성근
감 사		김기선
		유병은
이 사	HM1AJ	조동인
	HM1AH	이동호
	HM1AF	김동주
	HM1AP	조병주
	HM1AB	조요윤
	HM1AN	김태욱
	HM1AS	이광수
	HM2AO	서상무
	HM1BA	박정양
	HM5BF	김동호
	HM2BD	이상희
	HM1CR	강창균
특별회원		이인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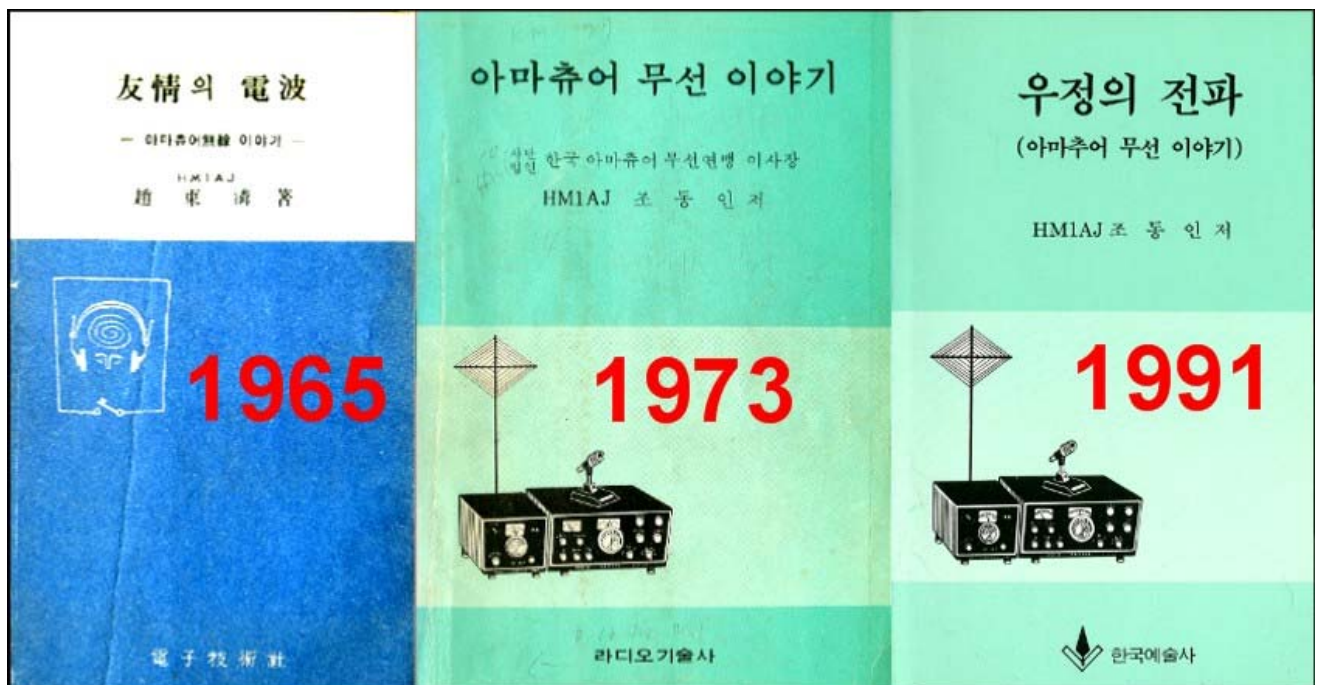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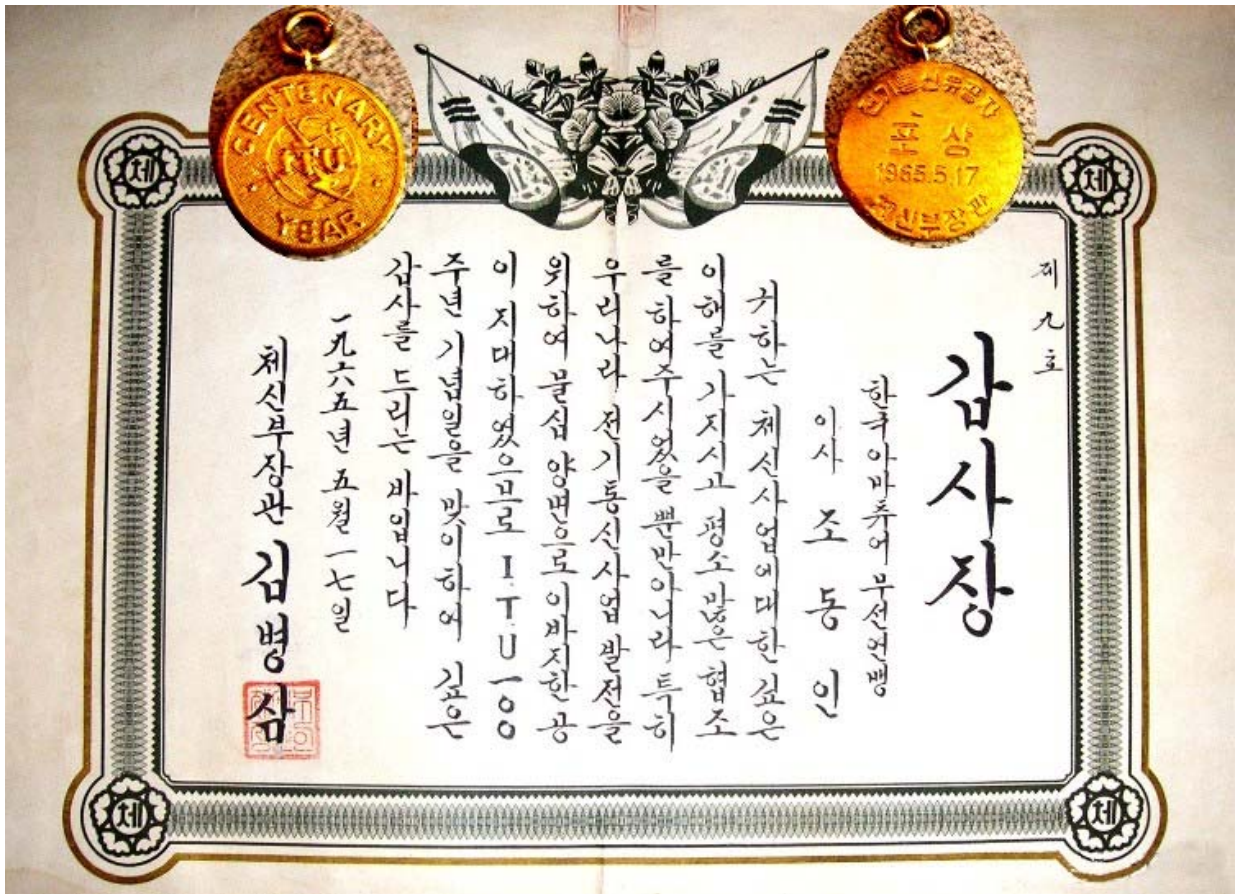
이렇게 연맹일을 60년 10월까지 하다가, 금성사부산공장에 취직하여 내려가면서 3년반을 연맹일에서 멀어졌으나, 1964년 봄에 금성사를 사직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연맹일에 복귀하였고, 그동안은 HM1AN 김태욱, HM1AS 이광수, HM1AY 황등일, HM1BA 박정양,

HM8CQ 하성한 OM 들이 돌아가며 연맹일 해주었다.

1964년에 부산에서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아마추어무선계도 차츰 자리를 잡고 있었고, 남은것은 개인국의 이동운용허가 정도였다. 이때부터는 이인관 이사장님의 노력으로 체신부 청사의 일부를 무료로 얻어 쓸수 있었다, 몇몇이 임대료를 내고 쓰는 사무실은 아니었으나 사무실도 생겼고, 어차피 넉넉한 월급을 주지는 못했지만, 마침 대학을 나와 놓고있던 HM1AM의 동생인 처제를 싼값이나마 월급을 주고 앉혀 놓았는데, KARL News도 전파과학사의 손영수 사장님의 호의로 전파과학의 일부 페이지를 할애 받아 등사판 신세를 면하고 인쇄형태로 매월 발행할 수가 있었다.

아마추어무선이 1960년도에 전면 개방되어 아마추어무선국의 수도 늘고, 전파과학(발행인 손영수 사장)과 전자기술(발행인 차서욱 사장)등 무선통신 전문잡지도 발행 될만큼 한국의 무선통신계가 발전 하면서, 이들 출판사의 도움도 많이 받았으며 (특히 KARL 지의 무료인쇄, 아마추어무선 관련 책자 발행등), 1965년에는 원고를 쓰느라 반년이 걸렸지만 “우정의 전파, 아마추어무선 이야기”라는 한국에서는 최초의 아마추어무선 관련 책을 발행한것도, 전자기술사의 차서욱사장이 결손을 감수하며 발행해주었는데, 이책은 아마추어무선에 관한 책이라고는 전무하던 당시 뿐 아니라, 근래에도 역사적인 책으로 찾는 사람이 많아, 1973년에 재판출, 1991년에는 제3판을 발행할 정도였다. 1965년에는 또한 이런 아마추어무선계에 대한 공로를 인정 받아 5월 17일에는 ITU 창설 100주년 기념식장에서 체신부장관의 공로 감사장을 받기도 하였고, 한국 최초의 Call Book 인 “Ham Radio Pocket Data”가 발행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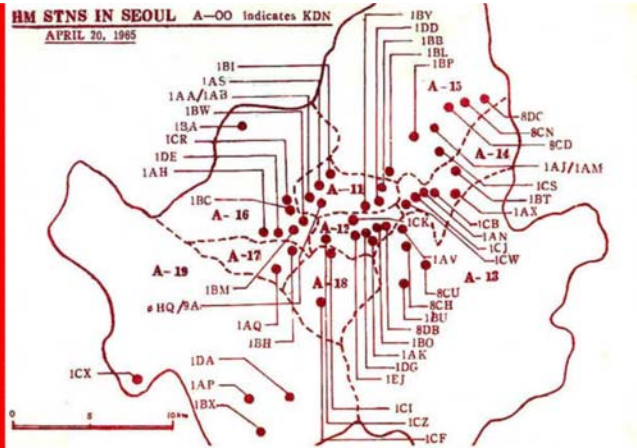




이 포터 대사 (HL9AA)의 Ham Par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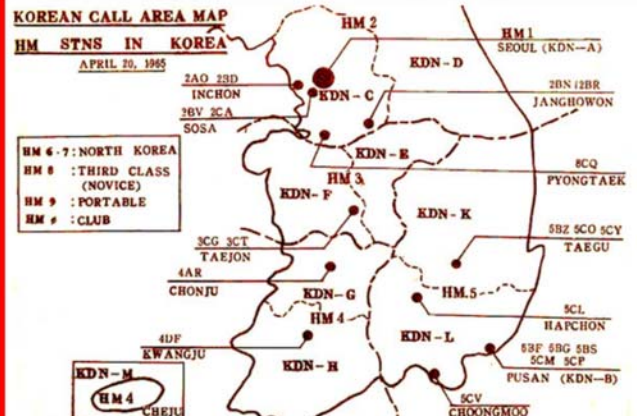


미 8 군 사령관 HL9KA General Conway 가 HM0HQ 에 Rig 를 기증하였다.
김규한 부이사장님으로 부터 답례품을 받고 있다.



目 次

宮混入, 아마추어無線局名錄	아마추어가 될 때까지	30
AA~AG	아마추어용 周波數帶表	31
AJ~AM	아마추어無線技士의 級	32
AN~AT	R S T M呼號表	33
AU~AZ	交信禁止圖	33
BA~BG	Q呼號表	34
BH~BM	電信用語譯表	36
BN~BT	交信禁止圖	38
BU~BZ	郵票料金表	39
CA~CG	KDN List	40
CH~CM	AAA規定	42
CN~CT	HMA, ASA規定	43
CU~CZ	Z-25, WAK, KIMCHI AWARD	44
DA~DG	Country List	45
HM9 HMs	KARL 加入案內	63
	後 記	64
	HM에 對하여	13
	F#와 FI	15
	A3나 A3나	27



아마추어無線局名錄

CALL (handle)	姓名 生年月日	許可內容	無線局住所 (郵便住所)	職 務	QSO	QSL sent	QSL rcvd
HM1AA (JOE)	曹 堯 聖 1940. 6. 9	7~28 A1, A3, A3J 100W	서울特別市東大門區清洲2洞 205-73 (Warren Road, Harvard, Mass. U.S.A.)	漢美留學生			
HM1AB (JOHN)	曹 堯 光 1943. 2. 10	7~28 A1, A3, A3J 100W	서울特別市鍾路區 樓下洞224 (서울國營海運局私設前1288號)	駐軍少尉			
HM1AC (BOB)	崔 允 根						
HM1AD (OH)	吳 雨 濟						
HM1AE (CAS)	金 榮 弘						
HM1AF (KIM)	金 東 柱						
HM1AG (YIM)	任 一 明						

CALL (handle)	姓名 生年月日	許可內容	無線局住所 (郵便住所)	職 務	QSO	QSL sent	QSL rcvd
HM1AH (LEE)	李 東 英 1934. 5. 7	3.5, 7, 21~50 A1, A3, A3J 50W	서울特別市西大門區大觀洞56 (75-1101)	韓國電力 電氣試驗所 (52-4570) (52-8006)			
HM1AI (SEO)	徐 準 英			廣 局			
HM1AJ (CHO)	趙 東 澤 1934. 10. 17	3.5, 7, 21 A1, A3, A3J 49W	서울特別市城北區羅洞559-8 (上 同)	RSB 送信所 (6-3536)			
HM1AK (RHEE)	李 汝 殷 1936. 12. 6	3.5, 7, 21, 28 A1, A3, A3J 45W	서울特別市中區雙林洞29-3(52-8972)	京 南 電 기프라이스 (82-8278)			
HM1AL	金 登 大			廣 局			
HM1AM (IM)	任 靜 赫 1940. 1. 24	3.5, 7, 21 A1, A3, A3J 49W	서울特別市城北區羅洞559-8 (上 同)	HM1AJ의 XYL			



美國에서 學業을 계속중인 HM1AA의 QSL



구분하기도 유명한 HM1AB의 QSL을 구경(?)하는 유럽의 QSL



1.5km QRT였지만 7Mc에서 active했던 HM1AF의 QSL(일일발신소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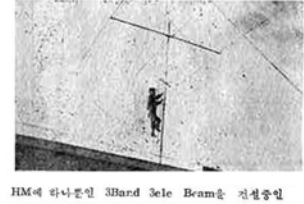
PP Ham No.1인 HM1AJ/HM1AM의 Couple QSL



HM1AH의 Rig도 운영중인 HM1AJ



1963. 3. 7 KISS-TV에 나가 Ham PR중인 HM1AM



HM에 라이선스인 3Band 3ele Beam을 건설중인 HM1AH, TX는 DX-100, RX S-76



Active하지는 않으나 끊이지 않고 나오는 HM1AK의 QSL. 필적 SSB수업중

CALL (handle)	姓名 生年月日	許可內容	無線局住所 (郵便住所)	職場	QSO	QSL sent	QSL rcvd
HM1AN (TONY)	金泰旭 1937. 4. 22	7.21.28 A1, A3 20W	서울특별시東大門區新洞588-2 (52-2987) (上 同)	KBS-TV 接納所 (8-4785)			
HM2AO (SANG)	徐相武 1929.	3.5, 7.21~144 A1, A3, A3J 47W	京畿道仁川市松林洞70-57 京畿道素砂私面4號	仁川無線 (仁川-2313) 0459			
HM1AP (CHO)	曹炳柱 1930. 9. 5	3.5~28 A1, A3 100W	서울특별시永登浦區新文洞103-12 (上 同)	KAL通信室 (3-2493)			
HM1AQ (SUNG)	朴成根 1927. 2. 19	3.5~144 A1, A3, A3J F3 40W	서울특별시麻浦區老勉山洞109-14 (上 同)	首都工務部 (74-2615)			
HM4AR	在突錫 1944. 2. 4	7~21 A1, A3 45W	全羅北道全州市中老松洞494 (上 同)	仁荷工大 在學中			
HM1AS (LEE)	李光燾 1936. 10. 23	7~28 A1, A3 40W	서울특별시稱路區客洞49 (釜山府中區大橋洞2街68 最近TV技術課)	DTV-釜山 (1-5408) (2-0299)			
HM5AT (KIM)	金世祖						

CALL (handle)	姓名 生年月日	許可內容	無線局住所 (郵便住所)	職場	QSO	QSL sent	QSL rcvd
HM1AU	鄭正德			廣 局			
HM1AV (LEE)	李明宜 1932. 10. 17	3.5, 7.21~50 A1, A3 20W	서울특별시城東區新堂洞244-4 (서울특별시城東區新堂洞247-17)				
HM1AW	全熙福			廣 局			
HM1AX (KIM)	金亨實 1942. 8. 9	3.5~50 A1, A3, A3J 100W	서울특별시東大門區路十里2號 12號12號 (서울특별시中區乙支路6街17-5)				
HM1AY (HILL)	黃登一			廣 局			
HM1AZ	金昌民			廣 局			

6



HM에서 처음으로 Ham TV를 실험한 HM1AN의 QSL



요새는 駭嚇마라 釜山에 가 있으나 CW로 꾸준히 나오는 HM1AS.



CW man이 HM에서 최초로 DXCC를 실험한 Award Hunter인 HM1AP.



仁川에서 7Mc SSB로 자주 나오는 HM2AO의 QSL

8



3.5, 7.21Mc로 오드네이머 active한 HM1AV의 QSL



14Mc SSB를 주요하여 第1次 AAA에서 Top Score를 낸 HM1AX가 AAA cup을 들고 있다.



HM에서 最初로 SSB電波를 내어 DX에 이룩한 첫인 HM4AQ의 HM1AQ의 QS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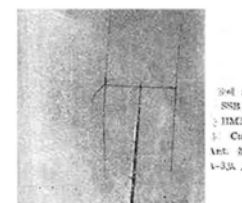


있는데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미량미량 나오는 HM1BA의 QSL.

CALL (handle)	姓名 生年月日	許可內容	無線局住所 (郵便住所)	職場	QSO	QSL sent	QSL rcvd
HM1BA (PARK)	朴正陽 1940. 10. 1	7.21.28 A3 20W	서울특별시西大門區韓芝洞159號 國民住宅159號 (上 同)	서울無線 (3-3589) (2-4804)			
HM1BB (YOUNG)	金永杰 1945. 9. 16	7~50 A1, A3 40W	서울특별시道廳區中區新洞110 (72-1584) (上 同)	서울大學校 工務大學 在學中			
HM1BC (KIM)	金壽男 1944. 6. 21	3.5~28 A1, A3 30W	서울특별시市川區京井洞 民房住宅B-7 (上 同)	朝鮮大學校 理工大學 在學中			
HM23D (SANG)	李官聲 1924. 5. 25	3.5~50 A1, A3, A3J 100W	京畿道仁川市九山洞30 (京畿道素砂私面8號)	國立釜山監獄 監獄管理課 (演習-78)			
HM1BE	金昌成						
HM53F (KIM)	金京新 1930. 4. 17	3.5~50 A1, A3, A3J 45W	釜山市釜山區中區今洞99-2 (北釜山府道廳私面4號)	AFKN-釜山			
HM5BG (LEE)	李康宇 1933. 12. 14	3.5, 7.21~50 A1, A3, A3J 45W	HM5BF와 同一	HM5BF의 XYL			



7P Ham HM1BF/HM53G의 FB인 Shack의 Cubical Quad Ant. 第1次 AAA에서 5BP는 A-2에, 5BG는 B-3에 추가하여 入賞한 Daeer 矣



9에 카카은 仁川에 SSB DX로 Active 한 HM1BI의 Shack의 Cubical Quad Ant. 第1次 AAA에 入賞

CALL (handle)	姓名 生年月日	許可內容	無線局住所 (郵便住所)	職場	QSO	QSL sent	QSL rcvd
HM1BH (KIO)	朴基信 7.21~28 A1, A3 10W	서울특별시麻浦區阿剌洞149-63 (上 同)		軍醫務中			
HM1BI (CHOI)	崔剛林 1943. 5. 20	7~28 A1, A3 45W	서울특별시鍾路區三清洞35-58 (72-6343) (上 同)	軍醫務中			
HM1BJ	丁奎敏 1943. 7. 16	3.5~28 A1, A3J 48W	서울특별시中區仁院洞1街1 (上 同)	空軍少尉			
HM1BK (PARKER)	朴維維						
HM1BL (KIM)	金寬吉 1943. 1. 7	7.21.28 A1, A3 15W	서울특별시城北區敦岩洞山48-22 (上 同)	陸軍少尉			
HM1BM (KIM)	金洪鍾 1931. 8. 23	7~21 A1, A3 100W	서울특별시西大門區新門路2街1-12 (上 同)	韓一社印刷 工業株式會社 (自3-2111) 至3-2116			

12



9년 QRT했다가 다시 2년간을 방과하여 부에 入賞한 HM1BI의 QSL.



韓一社印刷에 勤勞하는 Pro OP HM1BM의 QSL.

CALL (handle)	姓名 生年月日	許可內容	無線局住所 (郵便住所)	職場	QSO	QSL sent	QSL rcvd
HM2BN	金成敏 1940. 7. 3	7.21-50 A1, A3 50W	京畿道長湖院邑長湖院里72 (上 同)				
HM1BO (REE)	李時求 1937. 12. 22	3.5, 7, 21, 28 A1, A3, A3J 45W	서울特別市巾區乙支路7街132 (上 同)	花仁製作所 (2-4789)			
HM1BP	崔석복 1946. 3. 15	7, 21, 28 A1, A3 15W	서울特別市城北區貞陵洞397-23 (上 同)				
HM8BQ	김복환		廢局				
HM2BR	金在鉉 1933. 9. 25	7-50 A1, A3, F3 45W	京畿道長湖院邑長湖院里72 (上 同)				
HM5BS (KIM)	金仁甲 1933. 12. 16	3.5, 7, 21-50 A1, A3 50W	釜山市東萊區溫泉洞1285 (上 同)	金星社電子課			
HM1BT	延大欽 1941. 3. 11	7, 21 A1, A3 50W	서울特別市東大門區峽基1街5 (上 同)				

14



兄弟는 Ham였다! 長湖院의 兄弟 Ham HM2BN/HM2BR의 QSL.



釜山에서 시작하여釜山으로 QSY는 HM5BS의 貴한 自作 QSL.

CALL (handle)	姓名 生年月日	許可內容	無線局住所 (郵便住所)	職場	QSO	QSL sent	QSL rcvd
HM1BU (LEE)	李在完 1945. .	7, 21, 28 A1, A3 35W	서울特別市城東區金禮洞2街228 (上 同)	仁南工大 在學中			
HM2BV (KI)	鄭德基 1942. 9. 15	3.5, 7, 21-50 A1, A3 50W	京畿道宜川郡雲砂邑龍村2里14 (上 同)	中央大學校 在學中			
HM1BW (YOUNG)	李永吉 1943. 2. 26	7, 21-50 A1, A3 30W	서울特別市東大門區忠正路2街69-17 (2-4745) (上 同)	軍醫署中			
HM1BX (SEO)	徐延祖 1934. 11. 14	3.5, 7, 21-50 A1, A3, A3J 45W	서울特別市永登浦區新林洞85-29 (空軍士官學校教授部) (上 同)	空軍大隊			
HM1BY	崔聖均 1944. 6. 19	7 A1, A3 10W	서울特別市鐘路區長沙洞87 (上 同)				
HM5BZ (KANG)	康吉永 1942. 10. 18	3.5, 7, 21, 28 A1, A3 45W	慶尙北道大邱市서성로1街69 (上 同)				

16



지난 4월에 HM2로 QSY한 HM1BV의 QSL. 2Mc 에서 4000 옴의 4000 21Mc에 on Air



후크아에天子特任 崔聖均 兄이 7Mc 3500 Hz Chew를 最후에 듣기는 HM1BX의 一宗款.



AAA에서 871까지 QSL을 1950에 고이 記錄한 崔吉永 B-1에 入賞기 HM5BZ의 Shack의 QSL.



CALL (handle)	姓名 生年月日	許可內容	無線局住所 (郵便住所)	職場	QSO	QSL sent	QSL rcvd
HM2CA	朴光子 1943. 2. 27	7, 21, 28 A1, A3 45W	京畿道宜川郡雲砂邑龍村리86-8 (上 同)	(YL)에리알-연리生化學家			
HM1CB (OH)	吳國煥 1945. 12. 1	3.5, 7, 21, 50 A1, A3 45W	서울特別市東大門區盤龍洞130-17 (上 同)	新設大學校 理工大學 在學中			
HM1CC (SOO)	趙秀子 1942. 2. 12	7, 21, 28 A1, A3 45W	서울特別市城東區新堂洞333-20 (401 North Case Hall, Michigan State University, East Lansing, Mich., U.S.A.) (上 同)	(YL)演說 留學中			
HM8CD	楊炳男 1946. 4. 2	7 A1 15W	서울特別市城北區松泉洞524-65 (上 同)				
HM2CE (JYO)	吳俊德 1944. 6. 8	3.5, 7, 21-50 A1, A3 50W	京畿道仁川市北城洞12 崇一演說 (上 同)				
HM1CF (KO)	孔忠吉 1943. 12. 24	3.5, 7, 21-50 A1, A3, F3 30W	서울特別市龍山區漢江路1街199 (서울特別市龍山區漢江路2街53-5) (上 同)				
HM3CG (SONG)	宋善錫 1938. 8. 4	7, 14 A1, A3 75W	大邱市東萊區信電子學校內 (大邱市東萊洞490 金東海氏方) (上 同)	空軍中尉			

18



HM에서 처음으로 50Mc를 運用한 HM CB의 HM 3CB의 珍貴한 QSL. 第1次 AAA에서 C-1으로 入賞한 後 HM3CB 運轉 4년간에 HM3CB가 왔다.



ASA를 취하여 貴堂한 龍山區의 唯一한 on Air 局인 HM CF



大邱飛行場에서 on Air중인 空軍中尉 HM3CG

아마추어의 信條

1. 아마추어는 電波의 公共性을 尊重한다.
1. 아마추어는 友誼의이다.
1. 아마추어는 國家의 社會를 爲하여 奉仕한다.
1. 아마추어는 無常 研究心을 發起한다.
1. 아마추어는 電氣의 危險을 잊지 않는다.

CALL (Handle)	姓名 生年月日	許可內容	無線局住所 (郵便住所)	職場	QSO	QSL sent	QSL rcvd
HM8CH	方國煥 1943. 8. 5	7 A1 50 A1, A3 10W	서울特別市城東區新堂洞52-4 (上 同)				
HM1CI	桂受慶 3.5-28 A1, A3 100W	서울特別市龍山區龍山洞1 (서울特別市中區盤龍洞102) (2-6882)		KBS-TV 演說 演說 (6-4126)			
HM1CJ	吳圭勳 1944. 10. 14	3.5-50 A1, A3, A3J 100W	서울特別市東大門區新設洞205-57 (上 同)				
HM1CK (KAY)	桂仁昌 1944. 1. 7	3.5, 7, 21-50 A1, A3 50W	서울特別市中區盤龍洞102 (2-6882) (上 同)	Catholic 聖大在學中			
HM5CL (SHIN)	慎錫正 1942. 10. 24	3.5, 7, 21-50 A1, A3 50W	慶尙南道陞川邑陞川洞117 (陞川132) (上 同)				
HM5CM (KIM)	金正根 1942. 5. 5	3.5, 7, 21, 28 A1, A3 45W	釜山山莊區龍凡洞2街1279 (上 同)	陸軍少尉			

20



父子Ham의 兄 Case인 HM1CK.



서울에서 HM1CL로 on Air하다가 陞川으로 QSY. 7Mc에서 Active한 HM1CL.



父子Ham HM1CI(OM)와 HM1CK(Harmonics)의 同一面款의 QSL. HM1CI의 STN. QTH는 龍山頂山이다 이 HM1CI의 QSL을 받은 STN은 龍山頂山이다



父子Ham HM1CI(OM)와 HM1CK(Harmonics)의 同一面款의 QSL. HM1CI의 STN. QTH는 龍山頂山이다 이 HM1CI의 QSL을 받은 STN은 龍山頂山이다

CALL (handle)	姓名 (生年月日)	許可內容	無線局住所 (郵便住所)	職場	QSO	QSL sent	QSL rcvd
HM8CN	金桓容 (1943. 1.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동4가486호 (上 同)				
HM8CO (JOSEPH)	李正燁 (1929. 8. 12)		慶尙北道大邱市大邱洞1街22-27 (上 同)				
HM8CP (KIM)	金維福 (1937. 2. 1)	3.5~28 A1, A3 50W	釜山광역시영도구영도1동125 (上 同)	陸軍通信班 班長兼參謀			
HM8CQ	河想雨 (1940. 4. 21)	7 A1 50, 144, A1, A3 10W	京畿道平澤邑松片里656(이승달氏方) (上 同)	空軍中尉			
HMICR (KANG)	康昌均 (1937. 2. 26)	3.5~28 A1, A3 40W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동101-52 (72-9274) (上 同)	國際通信工務社 (8-2778)			
HMICS (AL)	李東一 (1945. 3. 2)	7, 21, 28 A1, A3 48W	서울특별시북대문로안양동1가41-1 (上 同)	漢陽大學理工學院 在學中			
HM3CT	姜錫謙 (1945. 7. 21~50 A1, A3 49W)		忠清南道大田市中洞65 (上 同)				

CALL (handle)	姓名 (生年月日)	許可內容	無線局住所 (郵便住所)	職場	QSO	QSL sent	QSL rcvd
HM8CU (PORT)	朴根九 (1946. 8. 5)	7 A1 10W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51-2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113-8) (52-3138)				
HM8CV	朴濟秀 (1945. 5. 14)	3.5, 7, 21 A1, A3 10W	慶尙南道忠武市道善洞33-7 (上 同)				
HMICW (PAFK)	朴弘權 (1942. 5. 22)	14 A1, A3J 45W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동216 (52-2539) (上 同)				
HMICX (OOK)	金英熙 (1943. 2. 19)	3.5, 7, 21~50 A1, A3, A3J, F3 45W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동11街27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동11街276) DBS送信所 (6-3214) (8-337)				
HMICY (JOUN)	全滿壽 (1945. 3. 15)	3.5, 7, 21, 28 A1, A3 48W	慶尙北道大邱市南區南洞1街93-7 (上 同)				
HMICZ (PARK)	朴熙俊 (1945. 5. 12)	3.5, 7, 21~50 A1, A3 36W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216-5 (上 同)	漢陽大學理工學院 在學中			

22



FM CW로 Local은 AM으로 QSL은 100% 나오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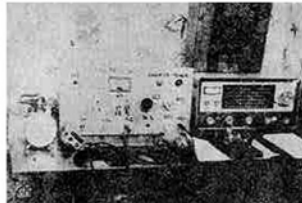


Tape Recorder까지 完備한 HMICS.



釜山에서 나오는 CW man HM8CP의 Shack과 QSL. QSL은 自作 print한 것.

24



SIG는 거의 필드나 그레드 인을 나오는 HM8CU.



忠武市の Ham界를 주가 지키는 HM8CV.



東亞放送送信所에서 On Air하다가 New QTH를特色인 HMICX의 Shack Home QTH는 서울電波 監視局과 同一番地內. h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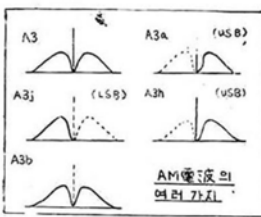
開局한지 얼마안되어 Active한 HMICZ.



26



漢陽大學에서 UC전공으로 시그리피커 제제로 on Air로 뛰는 HM8DB.



AM電波의 여러가지

이 局名錄은 1985年4月20日 現在로 KARL HQ에서 수정한 Data에 依한것입니다. 잘못된點이 있거나 빠진點이 있는 STN은 곧 KARL HQ로 連絡하여 수정시요.

64

CALL (handle)	姓名 (生年月日)	許可內容	無線局住所 (郵便住所)	職場	QSO	QSL sent	QSL rcvd
HM1DA	具振甫 (1946. 1. 6)	3.5, 7, 21, 28 A1, A3 40W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동222-22 (上 同) (8-0575)				
HM8DB (KUN)	李維根 (1945. 7. 18)	3.5, 7, 50 A1, A3 10W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동7동3 (上 同)	光云電子大學 在學中			
HM8DC	李維福 (1947. 4. 6)	3.5, 7, 50 A1, A3 10W	서울특별시북대문로안양동1가103-3 (서울특별시북대문로안양동1가103-2) (上 同)	光云電子大學 在學中			
HM1DD	朴容熙 (1945. 5. 25)	3.5, 7, 21~50 A1, A3, A3J, F3 40W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동73-4102 (上 同)				
HM1DE (LEE)	李維根 (1943. 5. 15)	3.5, 7, 21~50 A1, A3 45W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동33-11 (10號8區) (上 同)	서울대학교 文學院 在學中			
HM4DF	張基男 (1941. 6. 21)	7 A1, A3 20W	全羅南道光州府善洞8 (全羅南道光州府善洞8-42 李永昌氏方)	全南大學校 醫科大學 院 在學中			
HM1DG	金正範 (1947. 8. 2)	3.5, 7 A1, A3 20W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135 (52-4760) (上 同)	(Y.L) 漢陽大學校 在學中			

CALL	姓名	許可內容	參考事項	QSO	QSL sent	QSL rcvd
HM8HQ	KARL	3.5~28 A1, A3J, A3H 100W	社團法人 韓國아마추어無線聯盟中央局			
HM9A	KARL	3.5~28 A1, A3J, A3H 50W	社團法人 韓國아마추어無線聯盟忠武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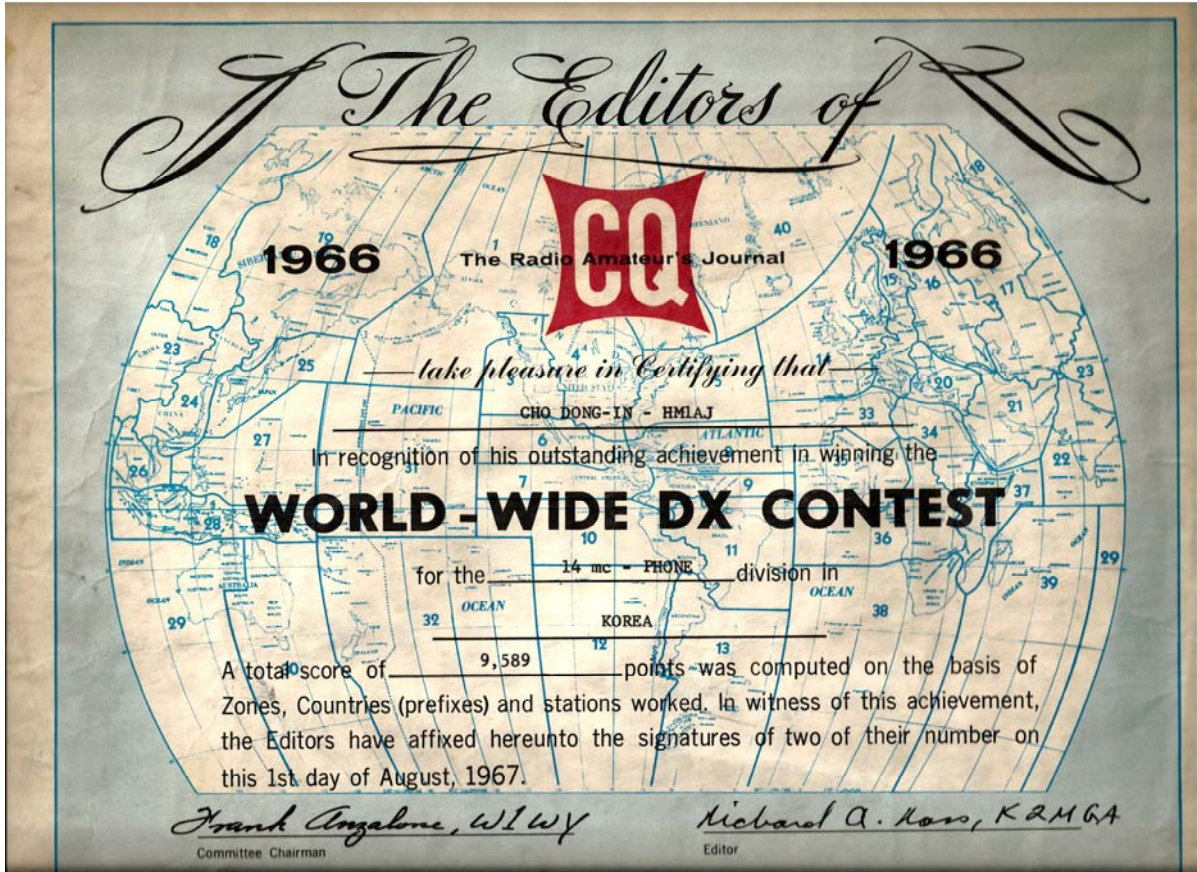
後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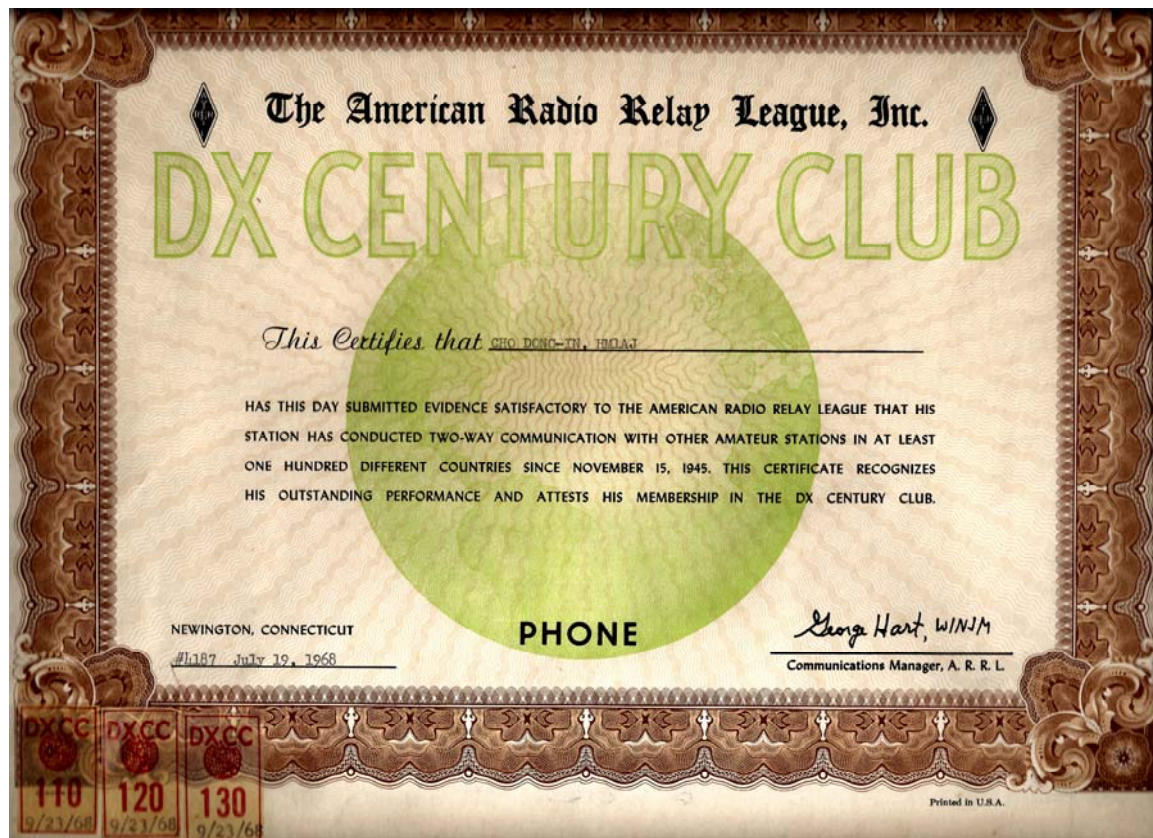
KARL創立 10周年 紀念으로 寫眞을 넣은 局名錄을 만들려고 企圖한것은 今年 初부터였습니다. 그래서 HM局들의 Shack寫眞을 모으는 일에 着手하였지만 如許에 達하지 못한 寫眞을 넣지 못하였음을 遺憾으로 생각됩니다. 此外에도 局名錄 Data와 2~3篇의 回信이 없지 않았었습니다. 此點을 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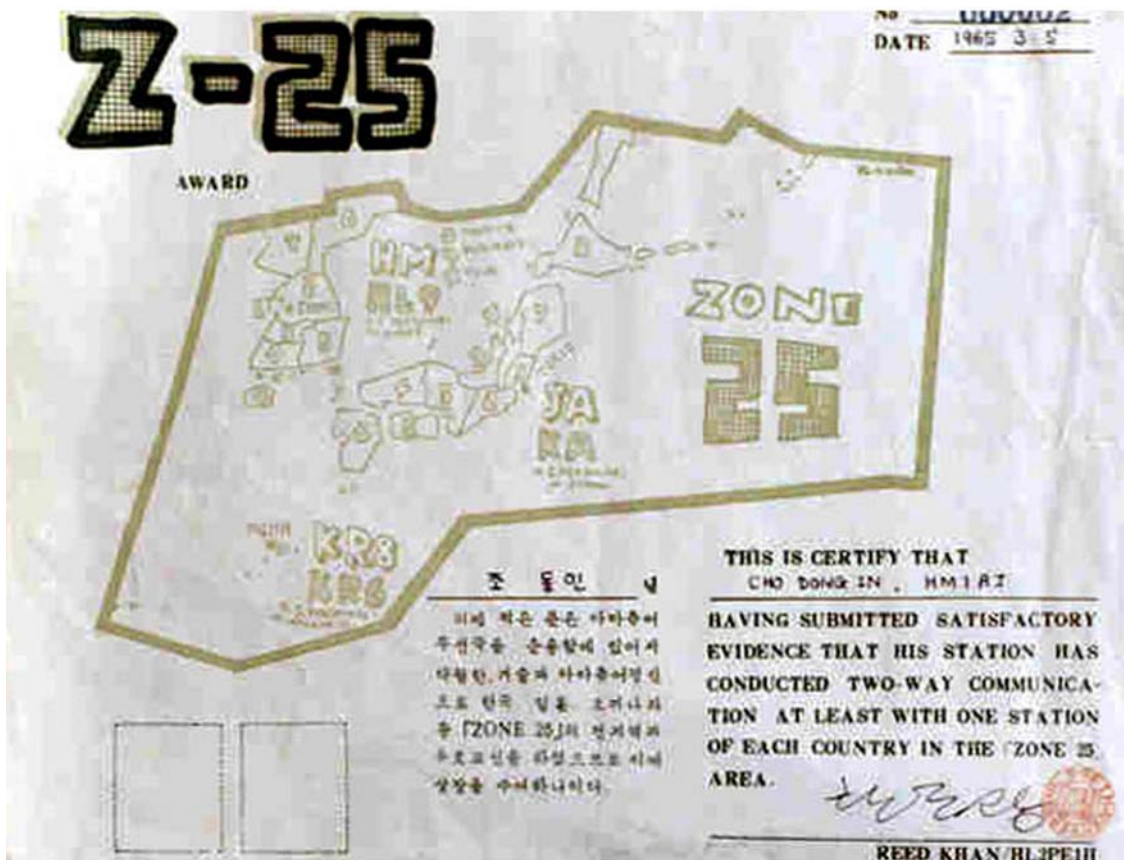
電波科學社의 至大한 支援으로 이 Pocket Data가 나가기 되었습니다만 처음에는 16頁 程度의 小規模의 것을 計劃했다가 結果 4倍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收錄하고 싶은것이 많으니 懇心은 限り 없는 간섭입니다. "기왕에 내는 김에....."하고 編者도 電波科學社도 奮發하고 말았습니다.

Ham도 SWL도 그리고 이제부터 Ham이 되는 사람들 모두 Shack에 항상 놀아 두고 參考로 할수 있는 Data集을 만들려고 努力하였습니다. 그래서 책의 크기도 일부러 조그만하게 꾸렸습니다. 이제이 연례나 여러분의 Ham生活의 친구가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의 Ham Life를 보다 즐겁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感謝하겠습니다.

연례나 外聲적으로 KARL과 아마추어無線界의 發展을 위하여 協助을 아끼지 않아 주시는 電波科學社에 全Ham들과 함께 深遠한 感謝를 드리는 바입니다. <編者>









이후에는 더 이상 체신부에 때를 쓸 이유도 없었고, 따라서 연맹과 체신부는 협조가 잘 되어 나갔고, 연맹의 업무는 더 많은 사람에게 아마추어무선을 알리고, 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들의 뒷바라지를 해주는 단체로서, 모든 업무가 Routine 업무로 변하여 갔기 때문에 이후는 연맹 창립 30주년 기념호에 실린 연간 업무일지로 대신하기로 한다.

1966 (KARL 30주년 기념호에서)

- 1. 1 1월호 발행 (12권 1호 통권 67)
- 1. 2 최초의HM Contest “제 1회 신년 QSO party” 개최
27국 참가
- 1. 20 OP 본고시 합격자- 1급 : 4, 2급 : 5,
3급 : 5
- 2. 1 2월호 발행 (12권 2호 통권 68)
- 3. 1 3월호 발행 (12권 3호 통권 69)
- 3. 20 OP 자격고시 예비고시 합격자 발표
- 4월 KARL 4월호 발행
- 5월 KARL 5월호 발행
- 5. 7 제11차 정기총회 개최
- 5. 21 제 1회 이사회 개최
- 6월 KARL 6월호 발행
- 6. 20 이사 명단 법원 등록
- 7월 KARL 7월호 발행
- 7. 20 이사회 개최
- 8. 27 사무실 임시 이전
- 9월 KARL 8·9 합병호 발행
- 9. 8 매월 첫 금요일-정기 이사회로 결정
- 9. 28 사무실 이전-광화문전화국 5층 507호
- 10. 7 이사회 개최
- 10월 KARL 10월호 발행
- 11월 KARL 11월호 발행
- 12. 2 정기 이사회
- 12월 KARL 12월호 발행



1966년		
직 위	호출부호	성 명
이 사장		이인관
부이사장		김규한
	HM1AQ	박성근
감 사		유병은
	특별회원	이인영
이 사	HM1AB	조요윤
	HM1AH	이동호
	HM1AJ	조동인
	HM1AN	김태욱
	HM2AO	서상무
	HM1AP	조병주
	HM1BB	김영걸
	HM2BD	이상희
	HM3CG	송형석
	HM1CI	계수경
HM1CR	강창균	



1967 (KARL 30주년 기념호에서)

- 1 2 제 2 회 신년 QSO 파티 - 32국 참가
- 1 월 KARL 1 월호 발행
 - 1 QSO 파티 심사
- 1. 20 이사회 { 임시 고시 실시건
 - HAM HAND 북 제작의 건
 - 1 학교 클럽국 허가 요건 심사
- 2 월 KARL 2 월호 발행
- 3 월 전과관리법 개정 통과
- 3 월 KARL 3 월호 발행
- 5. 7 12차 정기총회
- 5 월 KARL 임시 뉴스
- 8. 10 태능 화랑대에서 제 3 회 한국잡보리 야영대회
- ~16 이동국 HM9A 운용
- 7 월 KARL 7 월호 발행
- 8 월 KARL 8 월호 발행
- 9 월 이동국 운용 제한 공문 접수
- 9 월 KARL 9 월호 발행
- 10월 KARL 10월호 발행
- 11월 KARL 11월호 발행
- 12월 KARL 12월호 발행

1967년		
직 위	호출부호	성 명
이 사장		이인관
부이사장		김규한
	HM1AQ	박성근
감 사		유병은
	특별회원	이인영
이 사	HM1AB	조요윤
	HM1AH	이동호
	HM1AJ	조동인
	HM1AN	김태욱
	HM1BB	김영길
	HM3CG	송형석
	HM5CM	김정기
	HM1CR	강창균
	HM5DC	이건호
		김기호





제 12 차 정기총회

1968 30주년



- 1월 KARL 1월호 발행
- 1월 HL9KC Rig 기증
- 1월 제 2회 본고사 합격자 발표
- 2. 17 전파관리법 개정 시행령 공포
- 2월 KARL 2월호 발행
- 3월 KARL 3월호 발행
- 4월 KARL 4월호 발행
- 5. 12 제13차 정기총회
- 6월 5·6 합병호 발행
- 6. 18 HMØB 탄생
- 7월 KARL 7월호 발행
- 9월 최초의 개인 AWARD AOCA 발행
(HL2AO 서상무)
- 9월 KARL 9월호 발행
- 11월 10·11 합병호 발행
- 12월 송년호 발행

1968년		
직 위	호출부호	성 명
이 사장		이인관
부이사장		김규한
	HM1AQ	박성근
감 사		유병은
	특별회원	이인영
이 사	HM1AH	이동호
	HM1AJ	조동인
	HM1AN	김태욱
	HM2AO	서상무
	HM1AS	이광수
	HM1BI	최강림
	HM1CR	강창균
	HM5DC	이건호



1969 30주년



- 1월 KARL 1월호 발행
- 1. 2 신년 QSO 파티
- 2월 KARL 2월호 발행
- 3. 8 HMφC 허가
- 4. 10 KARL 4월호 (임시 뉴스) 발행
- 4. 13 제14차 정기총회 개최
- 5. 2 첫 사무국장 임명 및 첫 이사회
- 6. 13 정기 이사회 개최
- 6. 14 한국 대학 아마추어무선연합 창립총회
- 7. 11 정기 이사회 개최
- 7. 24 KARL NEWS 7월호 발행
- 8. 8 정기 이사회 개최
- 8. 8 HUARC (한대 Club)에서 HM9A 부산, 마산, ~15 포항에서 운용
- 9. 10 KARL 9월호 (100호) 발행
- 10. 10 임시 뉴스 10월호 발행
- 11. 5 과학전람회 PR 운용 참가
- 11. 24
- 11. 10 KARL 안내서 발행
- 11. 14 정기 이사회 개최
- 12. 10 KARL NEWS 11·12 합병호 발행

1969년		
직 위	호출부호	성 명
이 사 장	특별회원	유상근
부이사장	HM1AQ	박성근
	HM1AJ	조동인
감 사	특별회원	이인영
	HM1CI	계수경
이 사	HM1EA	황종수
	HM1DV	김범룡
	HM1DQ	이기창
	HM1DN	현일영
	HM1BK	박종웅
	HM1BI	최강립
	HM1BB	김영걸
	HM1AS	이광수
	HM1AN	김태욱
	HM1AH	이동호



1970 30주년

- 1. 2 제 5 회 신년 QSO PARTY
- 1. 16 체신부 감사
- 2 월 KARL
- 1·2 합병호 발행
- 4. 28 주한 美대사 파티 개최
- 5. 8 정기 이사회 개최
- 5. 25 KARL 5 월호 발행
- 5. 30 제15차 정기총회 개최
- 6. 14 HQ 사무실 명지대학에서
종로 극동전파학원으로 이전
- 6 월 정기 이사회 개최
- 6. 25 KARL 6 월호 발행
- 7. 1 전파 법령 개정 시행령
- 7. 6 정기 이사회 개최
- 7. 15 KARL 7 월호 발행
- 8. 3 정기 이사회 개최
- 8. 15 제 1 차 광복절 컨테스트 개최 (HM CONTEST)
- 8. 20 KARL 8 월호 발행
- 9. 7 정기 이사회 개최
- 9. 20 KARL 9 월호 발행
- 10. 28 HQ 사무실 극동전파학원에서 중구 인현동 2 가 183
HM1AQ 사무실로 이전
- 11. 19 KARL 11월호 발행
- 12. 23 KARL 12월호 발행

1970년		
직·위	호출부호	성명
이사장	특별회원	유상근
부이사장	HM1AQ	박성근
	HM1AJ	조동인
감사	특별회원	이인영
	특별회원	왕지균
이사	HM1AH	이동호
	HM1BB	김영길
	HM1BI	최강림
	HM1CM	김정기
	HM1CR	강창균
	HM1DQ	이기창
	HM1EA	황종수
	HM1EJ	박흥교
	HM1EX	박연태
	HM1EY	홍승영



1971 30주년



- 1. 2 제 6 차 신년 QSO 파티 개최
- 1. 13 전파관리법 개정 시행령
- 2. 23 KARL 1·2 합병호 발행
- 2. 13 전파관리법 개정 시행령 공포
- 4. 26 KARL 3·4 합병호 발행
- 5. 30 KARL 5 월호 발행
- 6. 9 정기 이사회 개최
- 6. 20 KARL 6 월호 발행
- 7. 20 KARL 7 월호 발행
- 8. 20 KARL 8 월호 발행
- 6 월 71년도 본고시 합격자 발표
1 급 : 1, 2 급 : 3, 3 급 : 2 합격
- 6. 13 제 16 차 정기총회 개최 KBS 제 1 스튜디오
- 8. 15 8. 15 CONTEST (HM CONTEST) 개최

1971년		
직 위	호출부호	성 명
이 사장	HM1AJ	조동인
부이사장	HM1AQ	박성근
	HM2AO	서상무
감 사	특별회원	이인영
	특별회원	왕지균
이 사	HM1CR	강창균
	HM1EJ	박흥교
	HM1EA	황종수
	HM5BF	최강립



1972 30주년

- 1월 KARL 1월호 발행
- 3월 KARL 2·3 합병호 발행
- 5. 5 정기 이사회 개최
- 5. 10 KARL 4·5 합병호 발행
- 5. 21 제17차 정기총회 한국TV학원에서 개최
- 6월 HMφC 6개월 운용 정지 처분
① 규정 주파수 벗어난 운용 ② 불법 통신
- 6. 9 정기 이사회 개최
- 6. 20 KARL 6월호 발행
- 7. 6 정기 이사회 개최
- 7. 20 KARL 7월호 발행
- 8. 31 KARL 8월호 발행
- 9. 8 정기 이사회 개최
- 9. 20 KARL 9월호 발행
- 9. 30 10·11 합병호 발행
- 10월 HMφHQ를 I.D.C 전자학원(성모병원 뒤)으로 이동
설치
- 10월 HMφC 운용 개시
- 10. 5 정기 이사회 개최
- 11. 10 정기 이사회 개최



1972년		
직 위	호출부호	성 명
이 사장	HM1AJ	조동인
부이사장	HM1AQ	박성근
	HM2AO	서상무
감 사	특별회원	이인영
	특별회원	왕지균
이 사	HM1CR	강창균
	HM1EJ	박흥교
	HM1EA	황종수
	HM5BF	최강림



1973 30주년



1. 20 KARL 12·1 합병호 발행
2. 9 정기 이사회 개최
2. 27 KARL 사무실 장사동으로 이전
3. 7 정기 이사회 개최
3. 13 MBC TV에서 HAM PR
3. 24 중앙高에서 HAM PR
3. 27 KARL 2·3 합병호 발행
3. 29 대한'적십자와 유대 실무회의
3. 21 경북高에서 Ham PR
4. 1 KBS 제2스튜디오에서 Ham PR
4. 6 정기 이사회 개최
4. 6 서울高에서 Ham PR
4. 25 KARL 4월호 발행
5. 4 정기 이사회 개최
5. 13 제18차 정기총회 (L.D.C 전자학원) 개최
5. 25 KARL 5월호 발행
6. 1 정기 이사회 개최
6. 7 적십자사와 비상통신에 관한 회의
6. 20 KARL 6월호 발행
7. 6 정기 이사회 개최
7. 7 市로 새로이 승격된 곳, KDN 제정서울의 신설 區
2곳(부천, 성남, 안양/관악, 도봉구)
7. 10 KARL 배지 제작
7. 25 KARL 7월호 발행
7. 29 제1회 비상통신훈련 실시(적십자사와)

1973년		
직 위	호출부호	성 명
이사장	HM1AJ	조동인
부이사장	HM1AQ	박성근
	HM2AO	서상무
감 사	특별회원	이인영
	특별회원	왕지균
이 사	HM1CR	강창균
	HM1EJ	박흥교
	HM1BO	이해수
	HM5BF	최강림

8. 3 정기 이사회 개최
8. 5 아마추어무선 소개 책자 발행
8. 15 광복절 CONTEST 개최(제 4 회)
8. 25 KARL 8월호 발행
8. 28 TBC에서 HamPR
9. 7 정기 이사회 개최
9. 21 HM♂C, HM♂E 폐국
9. 25 KARL 9월호 발행
10. 5 정기 이사회 개최
10. 29 CBS에서 Ham PR
11. 3 체신부 법무감실 특별 감사 실시
11. 9 정기 이사회 개최
11. 25 KARL 11월호 발행
12. 9 정기 이사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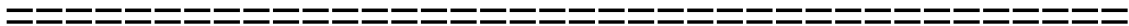


이렇게 지나다가 이인관 이사장님께서 너무 장기간 이사장 직에 계셨다면 이제 후배에게 자리를 넘기겠다고 극구 고사하시어, 1969년에 당시 명지대학 학장이시던 유상근 OM을 2대 이사장으로 모셨으나, 유 이사장님도 1년후에는 더 젊은 사람에게 이사장 자리를 주어야 한다고 강력히 사의를 표명하시어, 1970년의 정기총회에서 순서가 나에게 넘어와 3대 이사장으로 1973년 9월에 온식구가 미국으로 올 때까지 2년반 동안 이사장 직에 있다가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상 60년 연맹 역사중 15년간 연맹일을 했으나, 실제로 힘들면서도 재미있고 보람이 있었던 것은 KARL이 태동되던 1955년 초부터 아마추어무선이 전면 개방되던 1960년 말까지의 처음 약 6년간이었는데, 이 기간중에 일어난 일들을 내가 아는대로 적어서, 훗날 KARL의 역사를 기록하는데에 도움이 될것을 기원하며, 이글 중에서 내가 쓴 부분은 가능한 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사실만 기록하려 전력을 다하였음을 밝히고자 하며, 한동안 대학을 갓나온 나를 자기와 함께 연맹일을 쉽게 할수 있도록 공보부 방송관리국에 취직도 시켜주셨고, 이사장직을 물러난 후에도 계속 연맹일을 끊임 없이 도와주신 초대 이사장 이인관 OM의 공적이 지대하였음을 이자리를 빌려 밝히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이상으로 “한국 초기 아마추어무선의 역사” 끝)



이번에 이 글을 쓰면서 KARL 창립 60 주년 기념 특집호도 다시 드려다 봤고, K9SUL/ex-HL1SUL OM 이 보내준 KARL 창립 30 주년 기념호와 그무렵에 발행된 4 권의 KARL 지를 받아 자세히 읽어 보았는데, 한가지 미처 몰랐든것을 발견하였다.

KARL 초기에 KARL 을 함께 만들어서 그 누구보다도 그때 사정이나 그후의 KARL 초기의 일에 밝을 초창기 Old Timer 들이, 연맹 초창기는 정혜선/강기동 OM 이 연맹을 이끌어 갔고, 이들 초창기 멤버들이 전부 미국으로, 군으로, 지방으로 내려간 후인 1958 연 이후부터는, 조동인이 10 여년을 혼자서 연맹을 이끌어 갔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텐데, 회고록을

통하여, 인터뷰를 통하여, 좌담회를 통하여 그당시의 얘기를 하면서, 단 한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한결 같이, 초기의 연맹이 누구의 노력으로 돌아 갔는지? HM1AJ 조동인이 연맹을 위하여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하여는 단 한마디도 안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HM1AJ 가 “연맹일 하느라고 수고했다”, “고생 했다”는 말들은 아예 기대도 못하겠고, 기껏 한말은 “조동인을 만났다” 정도가 고작이고, “조동인이 연맹 일을 했다”는 사실조차 거론하지를 않고 있다. OT 들이 이러니, 우리가 미국으로 온지 여러해 후에 아마추어무선을 알게 되었을 DS/6K call 의 후배들이 HM1AJ 가 연맹 일을 했다는 사실조차 알 리도 없고, KARL 창립 60 주년 기념 특집호에서 DS10LH 유부원 OM 이 HM1AJ 가 연맹일을 전혀 안한것 같이 만들었어도 이상할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조차 들었다.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지는 아무리 생각 해 보아도 이해 할수가 없고, 모든 OT 들이 조동인이 일한것은 절대로 거론도 하지말자고 비밀리에 결의 대회라도 했는지? 연맹은 아무의 노력도 없이 저절로 굴러갔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연맹의 1958 년-1960 년의 성과는 모두 초기의 자기들 노력으로 때가 되어 저절로 발생한 결과라고 착각하고 있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나는 그래도 연맹일에 수고한 사람은 모두 수고했다고 기록을 남겼고, 내가 한 일은 누가 알아 달라고 한것은 아니었고, 단지 학교공부 마저 뒷전으로 연맹일에 전념한것이, 순전히 나 개인적으로 아마추어무선에 미쳐서 개인 무선국을 개방하겠다는 신념과, 연맹 일이 재미 있어서 또하나의 취미로 한것일 뿐이지만 , 잘했든 잘못했든 **최소한의 예의로라도** “조동인이 연맹 일을 했다”는 사실 정도는 표현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나도 연맹 초기에 함께 일한 모든 OMs 를 만났다는 말 이외는 그들이 연맹일을 했다는 말은 모두 싹 빼버려야 하나? hi hi.

=====

미국으로 온지 6년 반 후인 2001년 4월에 한국을 방문하였고, 이 때에 연맹 사무실을 방문하여 당시 이사장이든 HL1AUG 정국현 OM 을 만났다 (HL1AQ, HL1CG, AB6XI from L.A. 및 KARL 지 편집 담당 HL1MEZ 동석).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 무선통신사 ex-HM1AJ 조동인OT, ex-HM1AM 임정혁YL 부부를 만나 뵙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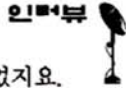
지난 4월 23일 12시 미국에서 잠시 귀국한 KARL 창립Member이며 우리 연맹의 이사장을 역임했고 KARL지 편집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ex-HM1AJ 조동인 OT님, 또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 무선통신사'인 ex-HM1AM 임정혁 YL 부부께서 연맹을 방문했다. 또 미국에 거주하는 AB6XI 서보석 OT, HL1AQ 박성근, HL1CG 송형석 고문께서 자리를 같이 하였고 HL1AUG 정국현 현 이사장은 이 분들을 정중하게 맞이하였다. 모두들 만나자 마자 반갑게 악수를 나누며 그 동안의 서로의 안부와 역대 이사장님들 사진을 보시며 누가 먼저라고 하기 전에 그 옛날의 어려웠던 일들을 회상하며 이야기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또 연맹의 이모저모를 카메라에 담기가 바쁘셨고, 연맹사옥의 안내를 받으며 전파기술연구소와 강의실, 회의실 및 서울지부에 들러 리그 앞에 앉아서 마이크를 잡고 교신을 하시는 모습은 역시 '마음은 연맹에 와서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지부 직원에게 수고가 많다고 격려를 해주시며 조동인 OT께서는 "참 내가 평생회원엔 등록되어 있나요? 아니면 오늘 등록해야지, 아하 이런 실수가!" (마침 주머니엔 외화만 있었답니다.) 그래서 모두를 한바탕 웃기는 유머 감각이 뛰어난 것은 햄들만이 누리는 행복이 아닐까요? 정국현 이사장으로부터 현재 연맹의 조직과 활동의 설명을 들을 때 고개를 끄덕이시며 초창기에는 회원이 몇 명되지 않아서 가족 같은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우리 연맹이 이렇게 거대하게 발전한 모습을 보니 참으로 대견하고 기쁘다며 만면에 웃음이 가득했다. 그리고 매월 보내주는 KARL지가 무척 반가우셨답니다.

점심 식사 후 연맹에서 차를 나누며 동행하신 분들에게 양해를 얻은 후 인터뷰를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인터뷰 때 ex-HM1AB부부를 통하여 OT님과 YL님의 근황과 사모님(임정혁)께서는 임영혁 YL과 자매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 동안 초대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OT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었습니다만 두 분께서는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찾아뵙었습니다. 특히 KARL지 발간에는 OT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데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OT님 : 우리 처제가 연맹 덕택에 결혼을 했거든요 연맹 창립당시 돈이 없으니까 우리 처제를 얹혀 놓고 일을 시켰거든요. 거기에 요운(ex-HM1AB)이가 들락날락 하다가 눈이 맞았어요 하하하. 그리고 많이 발전한 연맹의 모습과 이렇게 후배들을 만나게 되어 무척 기쁘답니다. 그러니까 1955년 4월20일 동국무선고등학교(지금의 광운전자공고) 창립총회에 모인 회원 수는 40~50명에 불과한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학생들이었고, 초대이사장인 이인관님께서 학생들 지도에 발벗고 나서 주셨죠. 그리고 KARL의 1차적 임무는 아마추어 무선의 개방이었으며 국민들에게 뿌리 박혀있는 「무선 공포증」을 치료해 주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회원 대부분이 학생이었기에 KARL의 재정은 말이 아니었기에 우선 이사(理事)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기관지 「KARL」을 발행했어요..

그럼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 어떻게 극복해 나가셨는지요?



OT님 : 그때 어려움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제일 돈을 많이 쓰신 분은 이인관님 이었고, 기독교 방송국 1층 다방에서 항상 모였는데 이덕빈씨는 커피 값 담당이었으며 정혜선씨와 강기동씨가 KARL의 Start member가 되어 고생을 제일 많이 했지요. 이 두 사람이 리더가 되어 연맹이 창립이 된 거예요. (서보석 OT께서는 "정혜선씨 강기동씨 call sign 없잖아요" 하고 농담을 하시니 모두들 웃음을 자아냈다. 정혜선님께서는 근래에 콜사인을 받으셨다.) 그래도 active하게 on-air를 했었거든 앙카바콜(Under Cover call)로, 하하하, 그 당시 배명승, 이동호(AH), 김동규(AF),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뛰어다녔죠. 그러다가 약 1년동안 서울역 뒤 정혜선씨 집에서 가리방(등사용지) 굵고, 등사기 밀고, 스테플 눌러 발송하고 하는 일은 정혜선씨와 강기동씨 그리고 나와 주로 했었지요. (그 당시의 karl지를 보시며) 정혜선씨가 글씨를 참 잘 썼어요. 그 다음 내가 karl지를 인수받아서 나 혼자서 가명으로 원고를 쓰고 발행하고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했지요. 내가 하는 일의 80%는 체신부에 쫓아다니면서 싸우는 것이고 나머지 20%는 KARL지 만드는데 사용했지요. 하 하 하..... 그때 당시 체신부가 아마추어 무선이 무인지도 몰라요, 전파법규가 일제법을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실험무선국이란 말만 있고 아마추어란 말은 전혀 없었어요. 그때부터 가총무를 하기시작해서 한 20년 했나봐요. 그리고 「전파 과학사」의 손 사장이 인쇄비 없이 KARL지를 제작 해 주셨어요. 참 고마운 분이지요. 그때는 또 사람수도 적고 무선국도 적었었지요.

그러면 한국의 아마추어 무선에 대하여 연도별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OT님 : 한국에서의 아마추어 무선은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되었으나 HL이니 HM이니 하는 한국을 나타내는 전치부호는 없었어요. 일본을 표시하는 J라는 호출부호로 J8AA에서 J8OZ까지 조선을 나타냈었는데 이것도 대부분 일본 사람이었고, 불과 수명이 「조선사람」이 아마추어무선국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1945년 해방이 되어 미군들이 HL이라는 콜사인을 우리가 써보기도 전에 쓰기 시작했고, 몰래 HL이라는 콜 사인으로 무허가 전파를 냈다가 MP의 포위를 받기도 했답니다. 그러다가 625 사변이 일어났고 휴전이 성립되고 얼마후 아마추어 무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지요. 아마추어 무선의 선구자들이 개인적으로 정부와 교섭을 시작하여 아마추어무선국 허가를 요구했었구. 그 동안 무허가로 몰래 전 세계로 전파를 내보내

다 「스파이」로 오인되어 많은 어려움 겪었으며 1954년 여름, 드디어 단체의 힘이 필요함을 느끼고 서울대 공과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햄들의 연합체를 만들어 1955년 4월 20일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창립총회를 열었었죠. 그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답니다. 그러던중 1958년도 저물 무렵 우리에게는 허가해 주지 않는 아마추어무선국이 미국인에게는 세국이나 허가해 주어서 모두들 흥분하여 체신부에 항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KARL은 끊임없이 당국과의 질책을 계속해서 1959년 6월2일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이사장 앞으로 한국 최초의 아마추어 무선국 HL9TA가 허가되었죠. 그리고 1959년 7월 19일 최초의 전파가 맑게 개인하늘을 퍼져 나갔죠. 「CQ, CQ,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의 HL9TA...」 국제무대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햄들의 감격은 말 할 수 없었고 1960년 6월 드디어 개인에게도 아마추어무선국 허가를 접수하기 시작했어요. 하하하, 또 KARL은 8월1일 자로 HM9A이라는 이동용 콜 사인이 허가되어 HL 대신에 HM이라는 호출부호를 쓰게 되었고 HL9TA는 HM0HQ로 콜 사인을 바꾸었죠. 6월에 접수했던 개인국의 허가가 9월에 하나하나 나왔을 땐 감회가 깊었어요. 1960년 11월 경복궁 미술관의 제6회 과학전람회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아마추어무선국을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했을 때 관람자들의 인기를 독차지했었지요. 지난번에 이광수씨가 소개한 1962년 2월에 실시된 HM9A의 독도 원정 등이 생각나지만 자세한 것은 「우정의 전파(아마추어 무선 이야기) 조동인 저」란 책을 참고로 하세요.

KARL 창립 당시 송수신기는 어떻게 마련했나요?

OT님 : KARL의 본부 무선국 HM0HQ와 HM9A가 송수신기가 없이 수년간 회원들의 송수신기를 빌려다 썼지요. 그러다가 미국인 햄 HL9KC 「홈스」씨가 새 송수신기를 사고, 쓰던 것을 기증해 주었고, 또 전미 8군 부사령관이었던 「칸웨이」 중장이 본국으로 전입되어 귀국 할 때 송수신기를 기증해 주어서 어느 정도 만족할만한 시설을 갖추게 되어서 다행이었죠. 이런 이야기는 인터뷰때 마다 나와서 다 아실 텐데... 하 하 하

그럼 화제를 바꿀까요? 졸생지가 중복 옥전군 청산면 이시터군요, 제 고향이 중복 보은이랍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햄이 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OT님 : 우선 고향이 같은 충북이라반갑군요. 하 하 하..... 이 사람은 나 때문에 햄이 되었지요. 연애 시절에



내가 문제집을 구해 다 주었더니 모두 외워서 「우리 나라 최초의 여류 무선 통신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는 1954년(대학 1학년 때) 여름 일본의 월간무선잡지 '무선과 실험'이라는 책을 사서 읽어보다가 JA1AA나 W6ABC나 하는 이상한 호출부호를 보았어요. 그것이 방송국의 호출부호인 HLKA나 JOAK와는 그 구성이 다른 것이 이상하여, 용감하게 JA1BU라는 호출부호 밑에 적힌 일본인 앞으로 편지를 냈지요, JA1BU는 JABU라는 방송국 호출부호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더니, 약 두달이 지난 후, 알지도 못하는 한국사람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일본의 JA1BU가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방송국 사람을 만나 보라니...? 어쨌든 생면부지의 그 사람을 간첩 접선하는 식으로 만난 것이 내가 이 아마추어무선을 알게된 계1보 였어요, 그분은 이미 아마추어무선을 알고 있었고, 햄의 전파로 외국과 교신하고 있었으며, 내 이름과 주소도 일본의 JA1BU라는 햄과 교신 중에 통고 받은 것이었어요. 그로부터 지금까지 몇 번인가는 중단되기도 하였지만, 아마추어무선의 이 취미만은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교신하기 위하여 집을 한 채 더 마련하셨더군요. 요즘에는OT님 신호가 안 들린다고 궁금해하시던데 혹시? 만약에 중단하셨다면 다시 시작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OT님 : 햄을 즐기기 위하여 집을 한 채 더 마련했지만 안테나를 이웃에서 못 세우게 하여 여건이 잘 맞지가 않더군요. 작년까지는 열심히 교실했는데 요즘은 운동하며 여행하느라 좀 쉬고 있어요. 때가 되면 다시 시작해야지요.

하루 빨리 시작하셔서 on air에서 OT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OT님께서 100점 만점에 97점의 높은 점수로 합격하셨다고 은근히 자랑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무선통신사가 되신 사모님께서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YL님 : 글썄요, 에피소드라고나 할까? 데이트 시절에 이분은 미아리에 살고 나는 북아현동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나는 학교를 이대 약학과에 다니는데 시아버님께서 인후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결혼 못한다고 금방 하라고 서둘렀어요. 약혼식을 하기 위하여 아침7시에 주파수를 맞추어 놓고 아무도 모르게 한다고 날짜를 정하고 교신을 마치려했더니 Congratulation! 하고 옆에서 다 나오는 것이예요. 그리고 또 KBS방송국에 '누구일까요?' 프로에 여류 아마추

어무선통신사로 출연한 장본인이 바로 나예요. 그리고 김형곤 사회의 '요리는 즐거워'란 프로에 출연하여 아마추어무선사로서 요리를 했던 일등 생각나는군요. 그때는 여성 무선사가 참 드물었어요.

YL님 같은 분은 한국여성아마추어무선사의 귀감으로서 본 받아야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언제 미국으로 이주하셨는지요? 또 미국에선 옛 OM들을 전파로 만나는지요?

OT : 1973년에 9월에 미국으로 이주했다가 1986년에 귀국했었다가 다시 미국으로 이주해 살고 있으며 ex-HM1AB(ex는 "예전에" 라는뜻) 조요운 OM, HM1BB 김영길 OM등 약 10여명의 옛 OM들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심심찮게 서로 전파로 만나 향수를 달래곤 한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 드리며 후배 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지요?

OT님 : 글썄 뭐 특별히 할 말은 없지만 "에티켓을 지키는 햄"이 되기를 바라며 아마추어무선신조 "제1항의 전파는 공공성을 존중한다."를 늘 마음에 새기며 전파는 여러 사람이 함께 공유하기에 정치, 종교, 인종에 대하여 논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국가시면 여러분들께 고국 소식 전해주시기 바라며 가끔 'web site :www.thechofamily.com'을 방문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KE2AJ(조동인) KE6AM(임정혁)님 두분을 on air 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해 봅니다. OT님 YL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OT님 : 감사합니다. 오늘 연맹을 돌아보니 마음이 아주 푸근하군요. 우리 연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홈 페이지에 눌러 오세요.

연맹을 찾아주신 KE2AJ(조동인), KE2AM(임정혁), AB6XI(서영복)님께 감사드립니다.

KE2AJ, KE2AM : e-mail : HM1AJ@aol.com

web site : www.thechofamily.com

AB6XI 서영복 : e-mail : AB6XI@DXNET.COM

(인터뷰 및 자료정리 : HL1MEZ 이영선)



許第九三七四號

許可書

趙東濟

서울特別市 城業區 彌阿洞 五五九의 八號 의
 이마치이 無線 施設의 件 呼出符
 號 및 周波數를 如左 指定 하여 이를 許可 함
 呼出符號 H M 1 A J
 周 波 數 3700, 3900, 4100, 4300, 4500, 4700, 4900, 5100, 5300, 5500 H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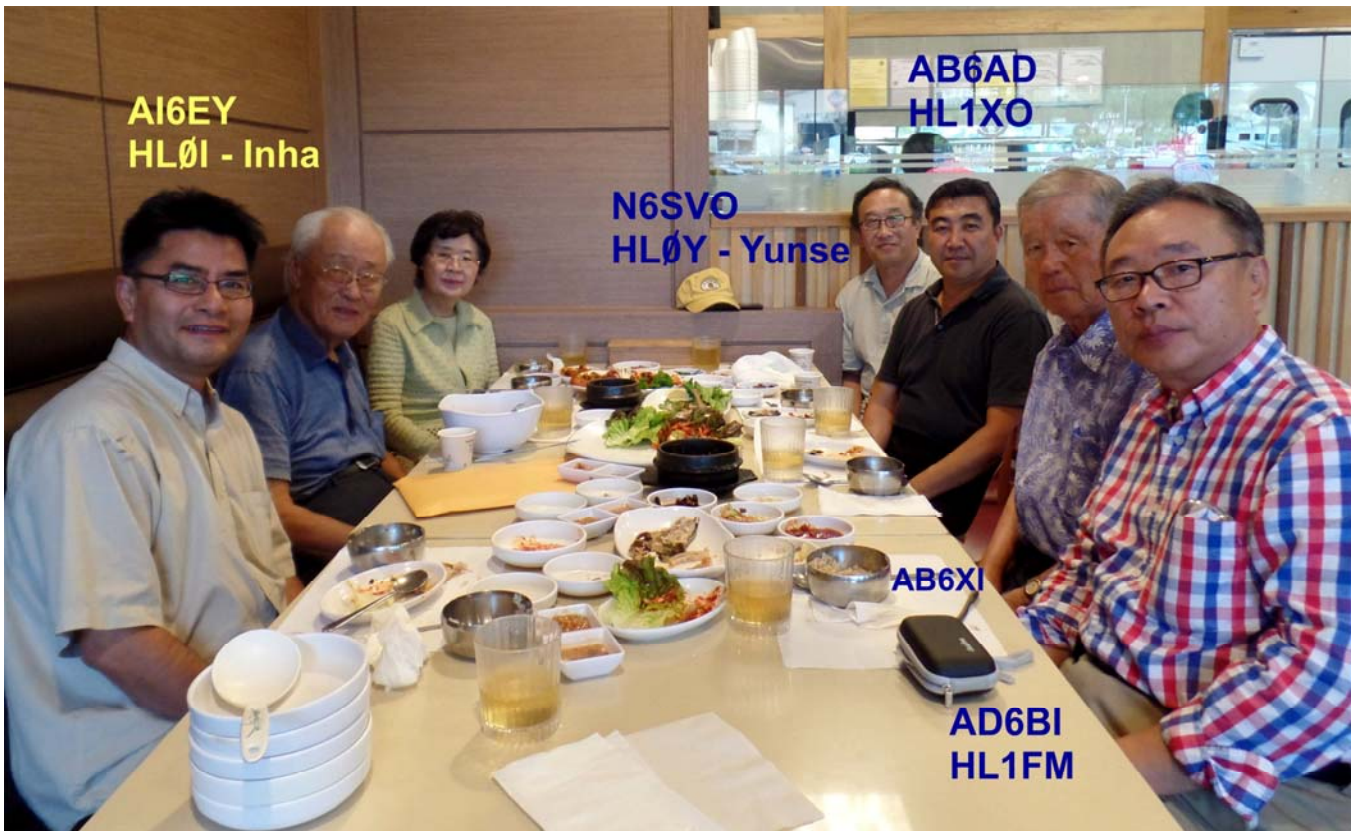
檀紀四二九三年十一月十八日

遞信部長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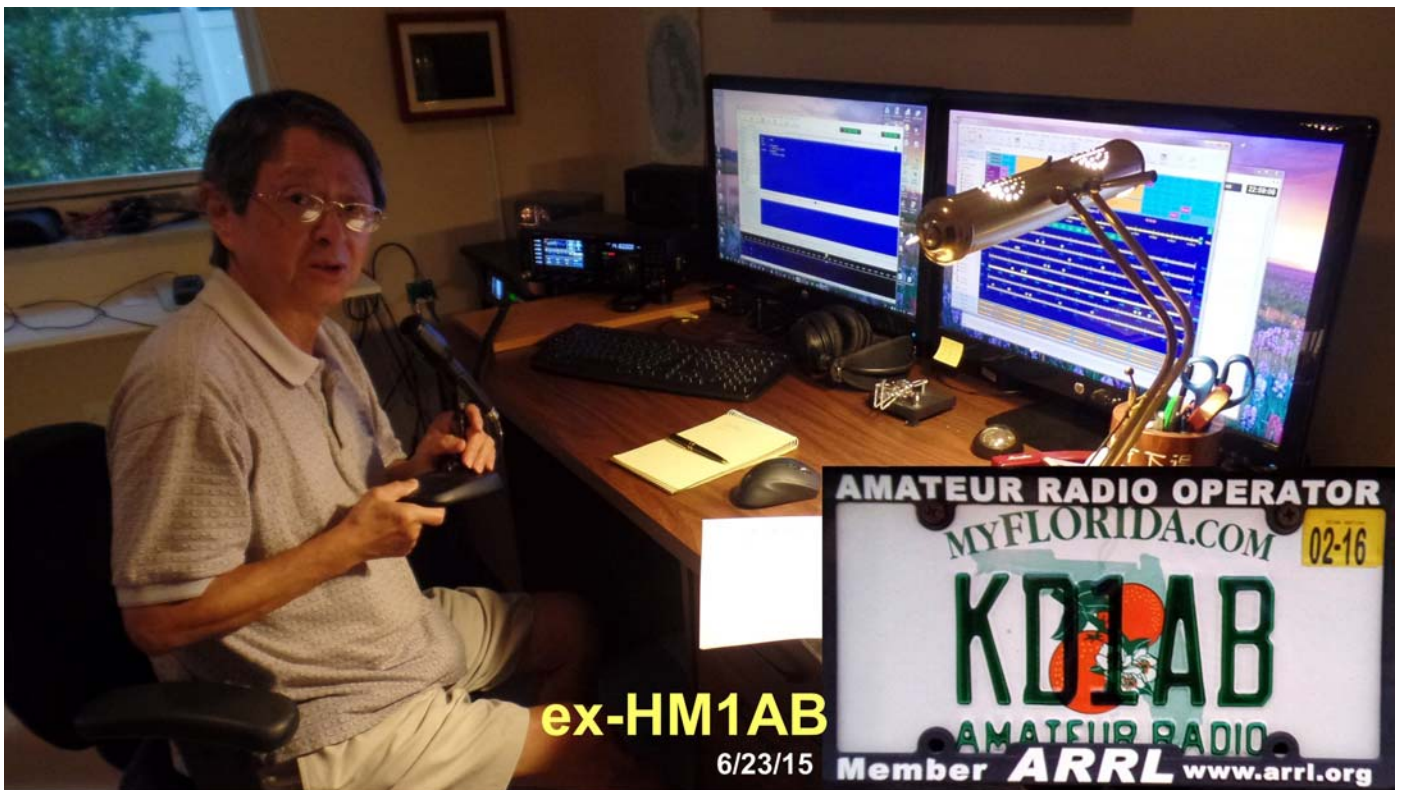
New Jersey - 6/19/15



Los Angeles - 6/30/15



Los Angeles - 1/3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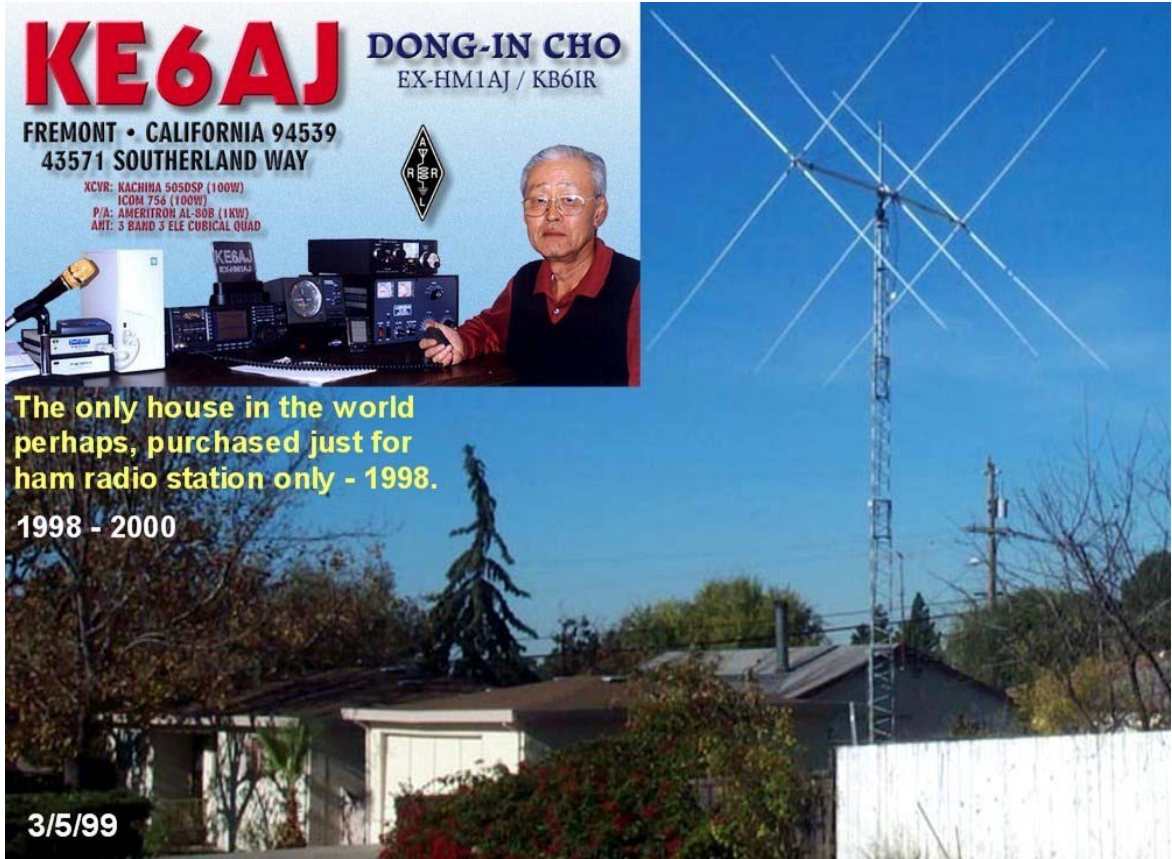
KE6AJ **DONG-IN CHO**
EX-HM1AJ / KB6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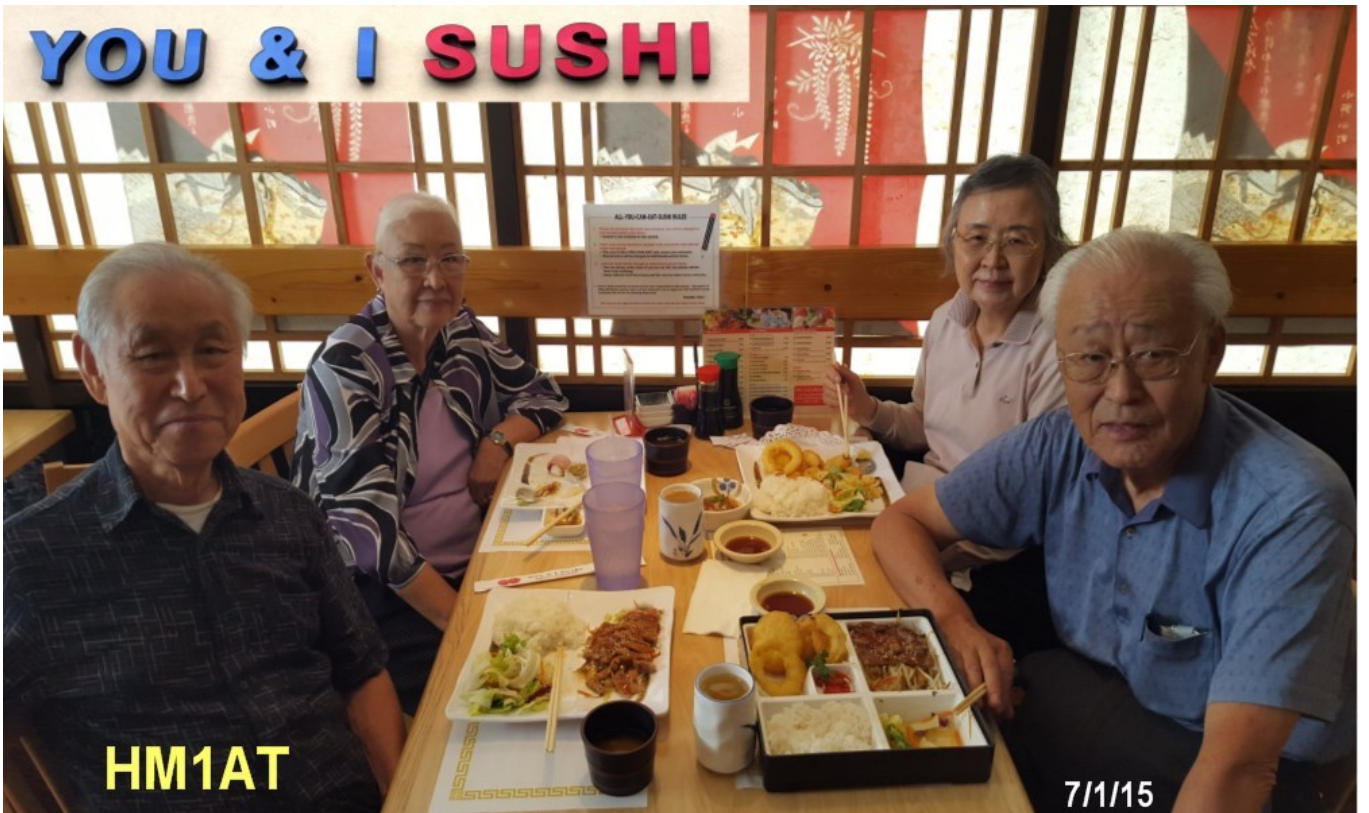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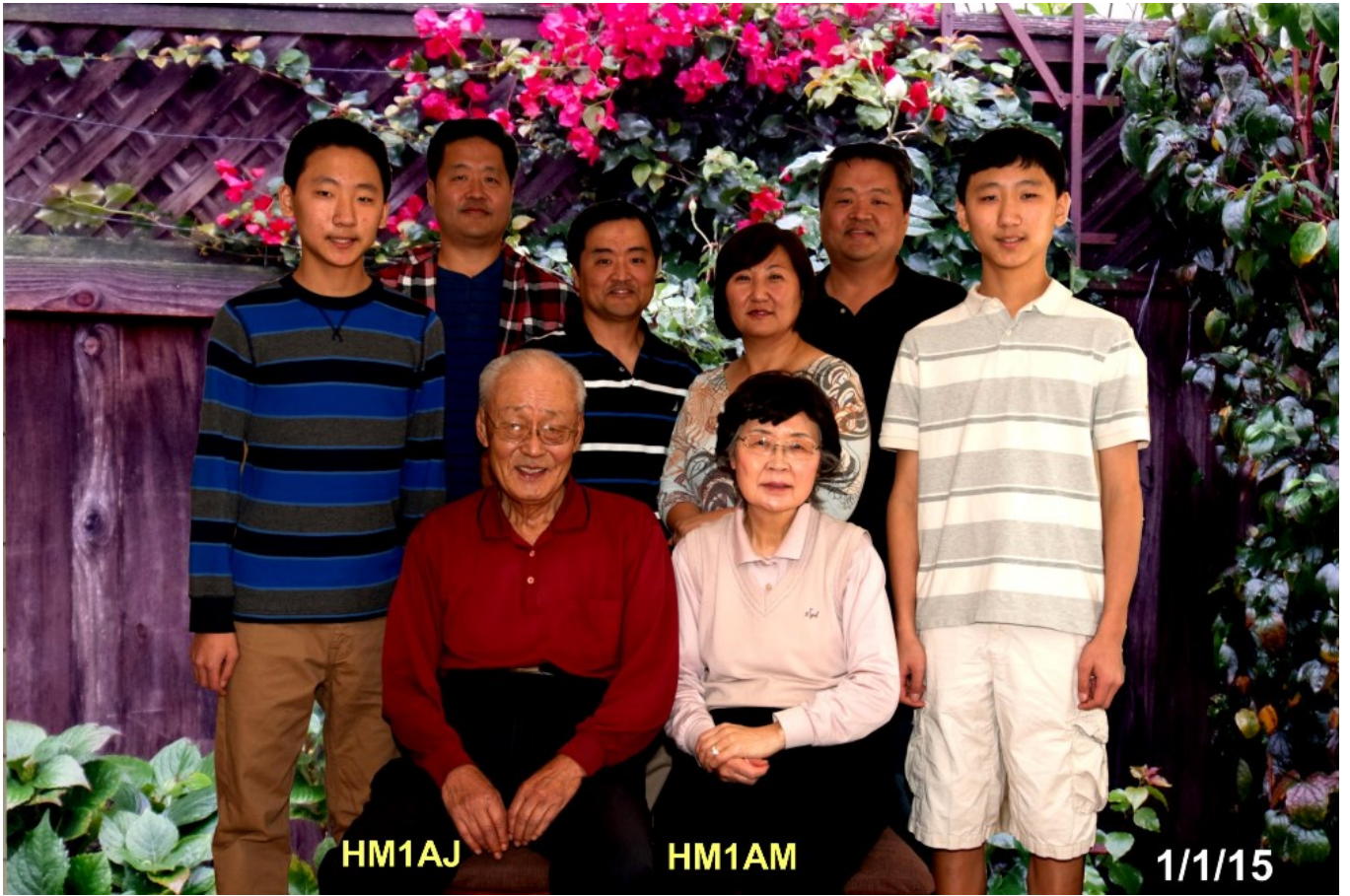
FREMONT • CALIFORNIA 94539
43571 SOUTHERLAND WAY

XCVR: KACHIBA 505DSP (100W)
ICOM 756 (100W)
P/A: AMERITRON AL-908 (1KW)
ANT: 3 BAND 3 ELE CUBICAL QUAD




The only house in the world perhaps, purchased just for ham radio station only - 1998.
1998 - 2000











K6HM/HM1BB



3/8/15



5/20/13

HM1BI

Happy 70th. Birthday !!





AD6BI/ex-HM1FM
Los Angeles 6/30/15



1/31/16



KE6YC
HM1GD

12/6/15



KG6DLO
ex-HM1QJ

KQ6LV
ex-HM1LJ

2/4/16



AD1AD
ex-HM1AHK

DURGIN-PARK
Established before you were born



6/17/15

KE2X
ex-HL2AG



6/27/15



AB6XI
Los Angeles







(이 상)